



7

1981

문학예술출판사

#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1. 7 호

(루게 405)



## ◆◆◆◆◆◆◆◆◆◆ 차 례 ◆◆◆◆◆◆◆◆◆◆

영원한 전사의 노래 .....	4
미래 .....	5
당의 눈빛(외 1 편).....	6
당이 안겨주는 사랑과 믿음을... ..	7
전사의 아버지 .....	8
조선의 명산, 구월산 .....	9
옥천샘 맑은 물아! .....	12
세월이 갈수록 그리운 마음 .....	13
그의 위훈은... ..	15
백두산의 봄 .....	23
사랑의 창조 .....	24
고향집 사립문앞에서(외 2 편) .....	25
혁명렬사릉 .....	25
네 마음 비낀 별 .....	26
3 대혁명의 교정에서 .....	27
떠나던 그날 .....	29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	33
믿음 .....	37
새벽길에서 .....	45
수령님은 전사의 편지를 보아주시네 .....	47
곤장덕에 오르며(외 3 편).....	48
밀림속의 혁명대학 .....	48
전우의 아들 .....	49
나는 사랑한다.....	49
초병의 눈(외 2 편).....	50

달이 웃네 .....	50
산딸기 .....	51
나의 《작가수첩》에서 .....	52
제대병사 고향으로 돌아오네 .....	54
길가의 십터에서 .....	55
우리 관리위원장 .....	56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순수문학》론과 그 문학의 반동성 .....	57
날려보낸 화살 .....	62
인간문제의 탐구와 중편소설 《불꽃》 .....	72
류랑민의 원한 .....	77
산골백성 .....	78
청춘의 심장을 끓게 하고 정열을 샘솟게 하였습니다.....	78
우리 시대 인간의 새로운 노래 .....	79

# 영원한 전사의 노래

김상오

내 아직 이 세상 끝까지 가보지 못했고  
그 많은 사람들 다 만나보지 못했다  
아마도 행복하다 말하는 사람들 드물지 않고  
자랑을 지닌 사람들 또한 없지 않으리

나는 이 땅의 이름없는 한 공민  
조그마한 초소를 지켜선 평범한 사람  
허나 나에게는 나의 생애를 밝히는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행복과 긍지가 있나니

내 스스로 속삭이는 말  
- 나는 수령님의 전사다

그것은 때로 일터에 선 나의 가슴에  
샘물처럼 맑은 기쁨으로 조용히 차오르고  
때로 견잡을수 없는 격랑으로 나를 흔들어  
시대의 폭풍속을 내달게 하나니

푸른 하늘 이고사는것이 그로 하여 기쁘고  
땅을 딛고 선것만으로도 즐거워  
아침이면 피어나는 억만 꽃봉오리들  
이슬 털며 꽃잎 열리는 소리 듣고  
저녁이면 행복한 삶이 불을 켜는 창문들마다  
별처럼 반짝이는 눈동자들을 본다

높이높이 창공으로 치솟는 우리의 수도  
그 아득히 빛나는 이마에 어리는  
새시대의 아름다운 노을을 바라보며  
거친 파도 멀리멀리 밀어내면서  
넓혀가는 인간존엄의 세상을 바라보며

내 속깊이 간직하는 말  
- 수령님의 전사다

오 누리를 덮은 찬란한 해빛 다 모아안고  
웨치고싶어라-나는 조선사람이다!  
만수대 높은 언덕에 올라 세계를 향해  
여기가 내 조국이라 부르고싶어라

내 지난날 저 청년공산주의자들처럼  
결에서 그이를 우러러모시지 못하였으나  
나의 생의 첫시기 몹시 슬프던 그때  
무시로 그이를 그리었노라

몹시 슬프던 그때  
꽃을 보아도 슬프고  
나는 새를 보아도 슬프고  
떠가는 흰구름을 보아도 눈물이 날 때

남이 사는 내 나라를 떠나는  
아 그리도 슬프던 배고동소리  
련락선 어두운 삼등선실안에  
짐작처럼 덩굴던 우리 겨레들  
그 허줄한 보따리를 부여안고  
**김일성장군**  
그이를 그리었노라

그이는 백두산에 떠오른 큰별이시기에  
북두칠성 저 멀리 그 하늘을 우러렀노라  
그이가 해불처럼 기발을 드셨기에  
그 붉은 기발 가슴에 품었노라

지금 나의 심장은 그 위대한 품속에 뛰고  
몸소 열으시는 노을속에 눈을 떠  
태양의 빛발속 대전변의 날을 가나니  
나는 따로 존재하지 않노라 그이를 떠나  
그이 계심은  
나의 삶의 시원이며 미래 그 모든 의미이기에

지상의 어느 지점 력사의 어느 한 시점에  
그이께서 머무르신다고 생각지 말라  
그이는 진리를 안으시고  
세월을 넘어 세계를 걸으시는분  
력사도 조국도 인류의 미래도  
그이 품에 태어나 이루어지나니

내 비록 이미 젊은 시절 지나갔지만  
살리라 붉은 피 심장에 끓는  
오늘의 청년공산주의자로  
서있으리라 그들처럼  
죽어서도 지키여설 위대한 동지  
우리의 태양을 우러러 영원히

그 어떤 다른 영에 원치 않노라  
그 어떤 다른 칭호 원치 않노라  
내 실사 백번 쓰러져도 천번 죽어도  
불려다오 다만 한마디  
- 너는 수령님의 전사다!

# 미래

김석주

조용히 생각만 해도  
어찌하여 이 가슴  
이렇듯 부풀어오르는것이나  
움트는 새싹처럼  
입술을 여는 꽃망울처럼

비개인 들끝에 솟은 무지개마냥  
아름다운 꿈을 주고  
빛나는 삶을 안겨주는것  
얼마나 좋으나  
우리의 래일을 생각함은...

이제 날이 밝으면  
멀리 개발지로 떠난다고  
잠 못드는 청춘의 마음에도  
그려보는 그날이 있고

수도의 언덕에서  
온 나라에 울려 퍼질  
대학습당의 첫 종소리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가슴속에도  
기다리는 그날이 있어

얼마나 좋으나  
어제는 일어서는 창광거리를  
황홀히 바라보았더니  
오늘은 그 높은 창가에서  
눈부신 조국의 전망을 안아보는 기쁨이여

래일...  
오는 나날이 더 좋은 나날이  
저기 가없는 지평선끝에서  
아름찬 복을 안고 손짓하는듯  
어서 오라고 마주오라고

때 좋은 청춘의 희망인양  
나래돋친 미래여  
그 어디서 오는것이나

해빛이 비쳐가는 그끝이더냐  
별빛이 비쳐가는 그끝이더냐

그 어떤 사랑의 손길이  
날마다 열어주고 이끌어주기에  
가는 앞길 이렇듯 밝은것이나  
가는 앞날 이렇듯 창창한것이나

그렇더라 당이여  
영원한 그대의 빛발은  
그끝을 헤아릴길 없는 미래  
우리 온갖 지향도  
조국의 무궁한 번영도  
저기서 시작되어 끝없이 펼쳐지나니

이 세상 빛을 다 모은대도  
그렇게 뜨겁지 못하리  
그렇게 은혜롭지 못하리  
그대 정다운 품처럼은

아 얼마나 위대한 향도의 빛발을  
우리 가슴에 안은것이나  
그때문에 오늘의 기쁨 이렇듯 크고  
래일의 희망 이렇듯 밝은것이 아닌가

그처럼 귀중한것이기애  
한치앞이 어둡던 그 시절  
두눈을 빼앗겼어도  
애젊은 그 녀투사는  
심장으로 보았더라 미래여

그것이 없이는 삶도 죽음  
그것이 있으면 무궁한 세기를 얻는것  
저기에 바친 생은 영생하나니  
마지막순간에도 웃으며  
선렬들이 부르며 가지 않았더냐

세월의 눈비와 불바다를 헤치며

세대를 이어 이룩하는 삶의 목적이더라  
그 삶마저 바쳐 안아오는 영원한것이더라  
미래는

휴식 없는 낮과 밤을 이어가는  
당의 끝없는 로고와 사색의 모든것이더라  
세월을 당겨 안겨주는 크나큰 사랑의 세계이더라  
우리의 미래는

오늘에 바치는 노력도  
사람마다 안은 그 희망도  
당은 사랑을 다하여 꽃피워주고  
정을 다하여 지켜주더라  
잠든 아기의 꿈을 지켜

요람가에 서있는 어머니처럼

미래...  
그 밝고 크고 휘황한것을  
조용히 마음속에 불러보아라  
이름못할 기쁨에 부푸는 가슴이여  
고마운 당을 받드는 한없는 궁지여

당이여, 우리 보노라  
세기를 내려오는 인류의 미래가  
바로 그대의 빛발이었음을  
향도의 그 빛발이  
우리의 운명을 밝게 비쳐줄을

## 당의 눈빛 외 1편

오영재

소리없는 기쁨을 입가에 담고  
요람가에서 아기의 단꿈을 지켜보는  
어머니의 그윽한 눈빛같아라  
한없이 부드럽고 자애로운  
당이여, 그대의 눈빛은

때로 우리 먼길을 달릴 때  
산이 바뀌고 들이 지나도  
변함없이 차창가에 머물러  
우리 가는 길우에 함께 있는  
해와 별 같아라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는  
당이여, 정다운 그대 눈빛

마음속에 그 눈빛 빛나고있을 때  
혼자라도 외롭지 않고  
천만의 힘이 한순간에 보태지는 그 눈빛  
우리 하는 일의 보람과 희열에  
아, 가슴이 젖는 어머니당의 눈빛

그 누가 홀로  
소문없이 밤두렁길을 걸을 때  
이루지 못한 창안에 가슴태우며

남몰래 기대결에서 새벽을 맞을 때  
당이여, 그대 눈빛은  
밤하늘의 무수한 별이 되어  
사랑스러운 아들딸들을 지켜보고있어라

청명한 가을하늘에 노래소리 넘치는  
배움의 창가마다 지혜로 비끼고  
백발이 성성한 로인에게도  
젊음의 붉은 혈색을 주는 그 눈빛

버들잎 움트는 동쪽우에  
프락포르 나란히 세워놓고  
젊은이가 들려주는 미래의 꿈속에  
처녀가 행복에 얼굴 붉힐 때  
당이여, 그대 눈빛은 봄별이 되어  
그들의 어깨우에 따사로이 내리여라

그대 보살핌아래  
우리의 삶은 언제나 상패한 이른아침  
해살을 맞는 신록처럼  
우리의 희망은 언제나 푸른빛  
새겨보는 그 은혜에  
우리 조용히 눈물 지으면

그대의 눈빛은  
맑은 이슬속에 어리는 행복의 무지개

때로 우리 길을 가다 헛디디면  
준렬히 타이르는 엄한 눈빛이 있어  
당이며, 그 사랑이 더욱 고맙고  
세월이 흐르고 나이 들수록  
저 별의 높이를 가늠할수 없듯이  
그 사랑의 끝을 더욱 헤아릴수 없나니

아, 인민의 슬기와 의지를 키워주고  
궁지높은 창조의 길을 축복해주며  
먼 미래의 한끝까지

우리를 손잡아 이끌어주는  
자애로운 어버이 그 눈빛

따르며 안기는 영원한 빛발  
당이며, 더없이 웅심깊은 그대 눈빛이여!  
부드러운 젖엄마의 품이  
아기의 온 세계이며 우주이듯이  
태양이 빛나는 하늘이 있고  
그대 눈빛 환희로이 삶의 길우에 흘러내리는  
당이며, 우리 안긴 그대의 품은  
생이 시작되어 그끝을 모르는  
위대한 온 세계이며 무한한 우주여라

## 당이 안겨주는 사랑과 믿음을...

베푸는 사랑, 안겨주는 믿음을  
진실로 귀중히 여길줄 알아  
당이 그대에게 주는 이 모든것은  
이날까지 바쳐온 노력에 대한  
한갓 치하도 위안의 손길도  
더구나 남다르게 그대를  
사람들앞에 내세워주는것도 아니다

그것은 그대 창조의 능력에 대한  
기꺼운 어버이의 기대  
진할줄 모르는 힘을 주고싶어  
그대를 다시금 여겨보는  
자애로운 고무의 눈빛  
혁명의 길에서 헛디딤이 없으라고  
따뜻이 이끌어주는 향도의 손길  
  
훈장처럼 가슴에 보이지는 않으나

그보다도 소중한것-  
당이 안겨주는 사랑과 믿음을  
그대여 심으라, 가슴에 깊이  
그것이 뿌리를 내리우고 아지를 치게

받아안은 그것으로 다하지 못할  
전사의 숭고한 의무를 안고  
키워가라, 그대의 능력  
그대의 신념과 억센 의지로

하여 그대 온 마음이  
한떨기 아름다운 충성의 꽃으로 피거라  
설사 그 꽃이  
이름없는 산비탈에 소문없이 피여  
사람들 그 꽃을 다 보아주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의 량심이기에  
그것은 그대 삶의 보람이기에...

# 전사의 아버지

박원식

포성에 간간이 흔들리는  
산기슭의 나지막한 야전병동  
기척없는 수술대앞에  
최고사령관 **김일성** 동지  
그이께서 말없이 서계셨다

열일곱살  
전사여 그 아무리 모진  
흉탄을 가슴에 받았기로  
네 어찌 일어나지 못한단말이나

네 그리도 그리워  
꿈결에도 그리던 최고사령관동지  
그이께서 네앞에 서계시는데  
어쩌면 네 그리도 말없을수 있느냐

어쩌면 아 어쩌면  
나어린 간호원도 군의도 로박사도  
가슴저머드는 안타까움  
방금 꺼질듯 가냘픈 부정맥앞에서  
손쓸 엄두도 못내는 죄스러움이여

무거운 그 마음들을 달래시는가  
생각깊으신 안광을  
군의소일군들에게  
천천히 돌리시는 그이

우리는 어제날 산에서  
양철툽으로 전우의 다리도 잘랐고  
소금물로 소독수를 대신했지만  
오직 혁명동지를 구해내야 한다는  
그 하나의 신념이 있었기에  
기어이 살려냈다  
뜨겁게도 울리시는 그 말씀

순간-  
막혔던 숨길문이 활짝 열렸는가  
...최고사령관동지!  
...최고사령관동지!  
어깨를 들먹이며 산악같은 심장을

다투어 수술대앞에 나서는데

다시금  
마디마디 가슴에 젖어오는  
간곡하신 그 말씀이여  
- 수술해주시오  
이것은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니라  
전사의 아버지로서 하는 부탁이요!

아 전사의 아버지  
전사의 아버지

행복한 전사여  
기적의 나라 조선이여  
언제 어느 나라 전쟁력사에  
최고사령관이시자 아버지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싸운  
군대가 있었는가

삶과 죽음이 판가름하는  
엄혹한 전쟁의 결전장에서  
최고사령관의 명령이 아닌  
아버지의 부탁을 지켜싸워  
승리한 전사들이 있었는가

이것이였다  
열일곱살, 적탄은 가슴을 뚫었어도  
죽지 않는 조선의 불사조의 녀이였다  
영웅전사에 영웅조선을  
세계의 면전높이 받들어올려주신  
위대한 힘이였다, 사랑이였다

아아  
아버지이시자 최고사령관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이를 모시고 그이를 따라  
혁명하는 조선이여!  
이 자랑 이 영광에  
겨를 힘 세상에 또 있으랴!



## 조선의 명산, 구월산

홍승덕

산 좋고 물 맑은 금수강산 내 나라는 그 어디를 가나 절승이요, 그 어디나 자랑으로 가득차있다.

조국기행의 길에 오른 우리는 중부 서남단기슭에 높이 솟아있는 구월산으로 향하였다.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시며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신 김형직선생님의 고귀한 혁명업적이 깃들어있어 더더욱 이름높은 구월산.

구름우에 높이 솟아 웅장함과 수려함으로 자랑 높고 사랑하는 고향을 지켜 미제침략자들과 용감하게 싸운 인민유격대원들의 영웅적위훈이 깃들어있는 구월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상에는 나라도 많지만 우리 조국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는 드문것입니다. 산천은 아름답고 땅은 기름져 오곡백과 무르익고 땅속에 금은보화 가득찬 나라, 슬기롭고 용감하고 문명한 인민이 사는 나라, 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귀중한 조국입니까!》**

구월산기슭에 도착한 우리들은 먼저 김형직선생님께서 혁명활동의 거점으로 리용하시던 광선학교를 찾았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험난한 구월산밭을 넘으시여 1916년 광선학교에 오시여 이 학교의 지하실에서 교원들의 비밀모임을 가지시고 조선독립의 자주적방침을 다시금 명백히 밝히시고 학생들을 지원의 애국사상으로 교양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다

1917년 여름 또다시 이 학교에 나오시여 교원들과 은물일대의 수많은 독립운동자들을 만나시고 조선국민회 하부조직망을 확대하며 독립운동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보장하며 반일애국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를 제시하시였다.

참으로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곳에 나오시여 활동하는 전기간 밤잠도 휴식도 잊으시고 찬비를 맞으시며 구월산밭을 넘으시였고 천대받는 이곳 마을청년들을 만나시여 그들에게 혁명의 불씨를 안겨주시였다.

우리들은 가슴뜨거운 심정을 안고 김형직선생님께서 반일혁명투쟁을 친히 조직지도하신 유서깊은 혁명사적지들인 짜리채산당집, 대진나루터, 남산밤나무골을 찾았다. 그 모든 사적들은 망국의 비운속에서도 승리를 굳게 믿으시고 새날을 예언하신 선생님의 불같은 신념을 그대로 우리들의 가슴속에 새겨넣어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이 험한 구월산밭을 헤쳐가신 그때로부터 하많은 세월이 흘러갔건만 하늘높

이 치솟은 한그루의 나무도 한떨기의 꽃송이도 우리들에게 더 뜻있게 안겨오고 숭엄한 감정을 안겨주고있었다.

우리들은 오직 조국광복을 위하여 한몸을 혁명에 바치신 김형직선생님의 뜨거운 숨결을 벅차게 느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은물읍에서 남서방향으로 10리쯤 떨어져 있는 산동리 정곡골입구에 다달았다.

맑고 푸른 하늘을 한껏 치받으며 준급하게 솟아오른 구월산의 주봉인 사황봉과 더불어 아사봉, 오봉 등의 산봉우리들이 한눈에 바라보이고 여기저기 계곡을 흐르는 세찬 개울물소리가 이 산 저산 메아리하며 청아하게 들려온다.

정곡골 골안에도 맑은 물이 소리치며 흐르고있었다. 개바닥의 이곳저곳에는 둥그런 바위들과 부석같이 구멍이 들쭉날쭉한 커다란 바위들이 오랜 세월의 비바람에 부대끼면서 희집은 이끼를 털처럼 뒤집어쓴채 잡자는 곱마냥 끄떡없이 놓여있었다. 계곡의 양편으로는 참나무, 소나무, 밤나무, 수삼나무가 앞이 안보이게 짙 들어찼다.

구월산의 오봉기슭에는 패엽사를 비롯하여 아사봉기슭의 월정사 등 우리 인민들의 슬기롭고 우아한 건축기술과 정교하고도 섬세한 솜씨를 자랑하는 옛 건축물들과 유적들이 많다. 먼 옛날의 문화와 력사 연구에 가치있는 산수의 절승인 자연경치를 훌륭히 조화시켜 지은 건축물들도 있다.

그러나 이 귀중한 유적들과 유물들은 일제놈들과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국놈들에 의하여 수없이 파괴되고 약탈당하였다.

우리는 인류문화의 무자비한 파괴자이며 교란자인 미, 일 침략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분노를 가까스로 누르며 걸음을 옮겼다.

정곡사앞에 이르니 거대한 장점으로 사정없이 쪽쪽 찌놓은듯이 깊은 골과 함께 높은 벼랑이 눈썹리 아프게 아찔하니 내려다보인다. 주변에는 잣나무, 소나무, 감나무, 전나무, 단풍나무, 느릅나무, 들메나무, 물푸레나무, 황철나무 등 수백여 종을 헤아리는 갖가지 나무들이 한벌 쪽 뒤덮여 있다.

물결치는 풍만한 수림의 바다속을 헤여가는심정에 휩싸인채 우리는 룡연폭포를 찾았다.

장수가 휘젓는 긴칼마냥 바람에 물결을 번뜩이며 높은곳 바위틈에서 쏟아져 내리꽂는 폭포는 그 물폭이 한발 잘되었다. 물이 떨어지는곳에는 깊이가 세길정도 되는 커다란 소가 있었다. 소의 주변에는 어른들도 허리를 구부리면 얼마든지 다들수 있게 구멍이 크게 뚫린 돌들이 여기저기에 코끼리같이 웅크리고있다.

폭포가 많은 구월산을 찾은김에 어찌 룡연폭포만 구경하랴싶어 우리는 삼형제폭포가 있는 길목에 들어섰다.

계곡의 비탈과 기슭에 산과일나무를 비롯한 수십년 자란을 잣나무들이 밀림처럼 꼭 들어찼다. 얼핏 보아도 한 나무에 100여개이상의 잣송이가 달린 잣나무들이 골안에 메여지게 늘어섰다. 여기에 소나무, 신갈나무, 달피나무, 단풍나무 등이 하늘이 안보이게 들어차 사방 어디를 보아도 온통 나무천지뿐이다. 산으로 더 깊이 오를수록 울창창한 수림이어서 발밑에서는 쌓이고쌓인 해묵은 낙엽이 해변처럼 푸근히 밟혀진다. 요지경속과도 같은 천고의 밀림 이곳저곳에서 갖가지 이름모를 산새들이 고운 목청을 돋우어가며 아름답게 지저귄다.

신비스러울 정도로 아름다운 자연의 황홀경에 이끌려 우리는 삼형제폭포가 내려다보이는 구월산의 주봉인 사항봉을 향하여 걸음을 재우쳤다.

한참 산을 돌아올라가느라 500여립방이 실히될 산갈은 바위가 우리앞을 막아나섰다.

이 어마어마하게 큰 돌을 이곳 사람들은 《말굽바위》라고 불렀다.

어제날 왜놈들이 말타고 왔다가 구월산이 너무도 엄엄하여 이 바위우에서 말발굽을 찍어놓은채 삶은 시래기풀이 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말굽바위》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

그 말굽바위우에 올라 동쪽끝까지를 내려다보니 삼형제폭포가 아찔한 절벽아래로 우우 소리치며 곤두박힌다. 삼형제폭포는 맨우에서 쏟아지는 폭포가 만들어놓은 소에서 또 폭포가 이루어져 그 아래에 다시 폭포가 생기고 해서 세개의 소와 세개의 폭포가 생겨났다. 세개의 폭포의 높이를 합치면 100미터가까이 된다.

실로 까마득한 높이, 기암괴석의 돌쪼에서 세차게 내리쏟아지는 삼형제폭포는 보기만 해도 기분이 봄날의 새벽같이 상쾌해지고 시원해지며 마음 또한 담대해진다.

폭포가 떨어지는 골안에 젖빛물안개가 피여오르는데 은실같이 부서지는 햇빛을 받아 눈이 부시도록 피여난 무지개가 마지막 소에 뿌리를 박고 사항봉꼭대기로 활동처럼 휘여든 다리를 놓았다.

우리의 발길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송두리채 잡아매놓고 가지 못하게 하는 심산유곡의 구월산의 아름다운 절경과 절묘한 자태, 장한 절승을 어찌 이루다 표현할수 있으랴!

넓은 평야지대에 불쑥 튀어나와 아무렇게나 들어앉은듯한 구월산은 야산과 고산의 두가지 독특한 자연미를 하나의 산악미로 자연스럽게 겸비하고있는 이채를 띤 산이라고 말할수 있다.

잡자던 수사자가 갑자기 사나운 머리를 도도히 쳐들고 그 빛갈 좋고 번쩍이는 거센 갈기를 마구 날리며 번개같이 내달리다가 그대로 땅우의 공간속에 굳어져버린듯한 험준한 위세와 아름다움과 장엄성은 갖춘 구월산은 말그대로 준급한 산악으

로 이루어진 조선의 명산이다.

끝짜기에 발길이 닿자마자 날카롭고 급하게 생긴 바위들과 칼날처럼 험한 산벼랑들이 불시에 가슴앞에 다가서며 숨쉴수 있는 탐승객의 길도 무심중 막아버린다. 그래도 자꾸 가느라면 점점 더 산세급한 봉우리들과 계곡들이 급기야 마주오고 높이에 비하면 엄청나게 험한 무서운 산발들이 용서없이 눈앞을 가리워버린다.

우리의 발길은 어느덧 구월산성 서문밖에 이르렀다.

구월산성은 지난날 황해도 5대산성중의 하나이다.

산세의 자연지리적조건을 잘 리용하여 쌓은 구월산성은 그 둘레가 10여리나 되며 성의 높이는 약 5메터이다. 네모진 돌들로 견고하게 쌓은 옛 성에는 동서남북방향으로 네개의 문이 있다. 또 성안에는 옛건물자리들과 유명한 고려자기를 구워냈다는 가마터들도 있었다.

그 옛날 우리 선조들은 이 성에 의지하여 외적을 용감히 물리쳤고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일시적 후퇴시기에는 인민유격대의 믿음직한 근거지였다.

답알모양으로 생긴 성안은 분지마냥 우묵하니 패웠는데 거기에는 몇아름씩 잘되는 이깔나무들이 성이 터지게 빼곡하니 늘어서있다. 성의 동문밖 벼랑중턱에는 《금란굴》이라는 자연동굴이 있다.

50여명이 들어가 있을수 있다는 이 굴아구리는 어른 서너명이 한꺼번에 들어갈수 있으리만큼 크다. 성바깥과 사항봉꼭대기에는 수백년 묵은 태고연한 원시림이 옛력사의 하많은 이야기들을 품은채 묵묵히 서있다. 이렇듯 피나무, 참나무, 이깔나무, 상수리나무, 굴참나무 등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운 나무들중에는 천년가까이 자랐다는 해묵은 엄나무가 한그루 서있다.

성을 다 돌아보고난 우리는 구월산의 주봉인 사항봉에 올랐다.

해발 천여메터를 거의 헤아리는 사항봉꼭대기에는 방안크기만한 바위돌 하나가 뿔뿔하게 놓여있었다. 스무나문명정도 올라설수 있는 너부죽하고 둥실한 바위주변에는 몇그루의 개박달나무가 주봉의 파수병마냥 호젓하게 서있었다.

사항봉, 아사봉, 오봉, 주가봉, 단군봉, 인환봉 등 크고작은 봉우리들과 준급한 산발들이 장한 위세를 떨치며 솟아있는 구월산은 그 특출한 산악미와 계곡미로 하여 자랑높다.

구월산의 이름은 처음에는 《아사달》, 혹은 《삼위》라 하였고 그밖에 《백악》이라고도 불리웠으며 세월이 흐름에 따라 《궁홀산》, 《결산》, 《중산》이라고 부르다가 오늘에 와서는 지금의것으로 굳어졌다.!

삼천군, 은천군, 안악군, 은률군과 접하고있는 구월산의 사항봉정수리를 딛고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북쪽으로는 대동강하류지대와 함께 항구도시 남포시가 한눈에 안겨오고 남으로는 저 멀리

구왕산너머로 싱그러운 파일향기를 풍기는 100리 청춘과원이 흐뭇하게 바라보인다. 서쪽으로는 룡금도까지 끈게 뻗어간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와 더불어 웅도, 청양도 그리고 아득히 석도가 펼쳐 보인다. 섬과 섬 사이로는 수많은 고기잡이배들이 바다를 누비고있다.

황해남도 곡창지대인 재령강상류와 황금과도 물결치는 나무리벌이 그림처럼 펼쳐진 동쪽, 구월산 비탈에는 부연, 마연, 요연의 세 개울물이 골짜기를 흐른다. 서쪽비탈면에는 가마소, 마당소 등의 크고작은 늪들과 고요연이라는 아름답고 깊은 못이 있다. 이뿐아니라 구월산에는 7년왕가물에도 마르지 않았다는 석담과 황해남북도일대에서 제일 용출량이 많고 오랜 옛날에 발견된 달천온천이 있다.

사황봉을 내려 우리는 서남방향에 솟아있는 구월산의 두번째봉우리인 아사봉으로 갔다.

아사봉정점에는 삼각추모양으로 생긴 수십미터의 높이에 달하는 날카롭고 뾰족한 바위가 거대한 창끝같이 하늘을 찌르며 솟아있다. 그 창끝같은 바위가 어찌나 매끄럽고 험한지 여직까지 그 꼭대기로는 사람의 발길이 미치지 못하였다고 한다.

아사봉을 내려 무성한 숲 헤치고 계곡을 가로질러넘어 다시 정곡골로 길을 잡아드는데 갑자기 한켠 산비탈에서 숲을 단숨에 훑어내는듯한 회오리바람이 일더니 수십마리의 꿩무리가 참나무숲속으로 급히 자취를 감추는것이였다.

《아! ...》

우리는 저도모르게 환호성을 올렸다.

어떤 때에는 백마리도 넘는 떼지은 꿩이 새초숲을 비자루쫓듯 활으며 날아옴다고 한다.

참으로 구월산은 유용동물들의 집이기도 하다.

어느해인가 관해리농장원들이 산기슭 다락밭에서 농사일을 다그치고있는데 노루 한마리가 다리를 절룩거리며 그들이 일하고있는 밭머리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것을 본 농장원들이 뛰어갔으나 노루는 피할념을 안하고 그냥 다리를 절며 걸어오는것이였다. 알고보니 발을 상한 노루였다. 조국의 자연에 대한 무한한 애착심을 늘 가슴속에 고스란히 간직하고있는 농장원들은 더 생각할거를없이 한달음으로 진료소에 달려가 의사를 데리고와서 다리 상한 노루를 치료한 다음 다시 산으로 올려보냈다.

약을 바르고 하얀 붕대까지 다리에 치맨 노루는 산속으로 들어가라고 자기의 등을 쓸어만지며 떠밀어주는 농장원들을 두눈을 습쩍이면서 정차

게 보기만 하였지 종시 움직이려고 하지 않았다. 네다리를 버티고 한참이나 서있던 노루는 두귀를 쫑긋쫑긋하더니 갇지 못한 은혜를 두고 떠나는 사람같이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옮기는것이였다. 숲속으로 다시 올라가면서도 노루는 자꾸만 뒤를 돌아다보며 한참씩이나 서있더라는것이다.

이것은 참말로 거짓이 아닌 사실그대로의 이야기이다.

꿩과 노루를 비롯한 동물들과 함께 구월산에는 이외에도 복작노루, 오소리, 너구리, 산토끼 등 동물들과 새들이 사철 옥실거리고있다.

특히 아름다운 구월산의 경치중에서 빼놓지 말아야 할것은 봄철이다. 구월산의 봄을 구경하지 않고서는 구월산에 와봤다고 말할수 없으며 두고두고 후회한다는것이다.

그것은 우리 나라에서 이름난 진달래가 여기 구월산에서는 더더욱 그 아름다움이 유명하기때문이라고 한다.

구월산에 봄이 오면 암팡지게 가지를 친 크지도 작지도 않은 야산종진달래가 온 산을 한벌 뒤덮는다. 울긋불긋한 연분홍진달래는 높은 산 바위들과 언덕밭이, 관목사이, 나무밑 할것없이 아름답게 피여난다. 진달래가 핀 구월산의 이러한 아름다운 경치는 다른 산들에서는 도저히 볼수 없는것이여서 산이 너무 험하여 더 오를 생각을 아예 단념했던 사람들까지도 이 산 저 산 돌바위 째와 언덕밭이에 곱게 핀 진달래구경을 하다나면 자신도모르는사이에 구월산의 수백봉우리들을 다 구경하게 된다. 말하자면 구월산의 진달래가 진달래이기는 하지만 다른 야산들에서 피는 진달래보다 아름답고 그지없이 곱기때문이다.

조선의 5대명산들을 다 돌아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가슴은 아팠다. 내친걸음에 저 남녘의 지리산까지 가보면 얼마나 좋으랴. 하나 우리는 남으로 더 가지 못하고 구월산에서 무거운 발길을 돌렸다. 우리앞에는 원한의 분계선철조망이 치욕의 아성같이 가로놓여있는것이다.

금수강산 그 어디엘 간들 아름답지 않으랴만 저 멀리 북쪽으로 묘향산을 마주하고 오른쪽 동쪽으로는 금강산, 서쪽 원권으로는 구월산과 나란히 손잡은 조선의 5대명산중의 하나인 지리산을 우리모두 기어이 가볼 그 환희로운 시각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조국의 아름다움으로 가슴을 한껏 적신 우리는 미제침략자들과 군사파쇼악당 전두환억적놈들에 대한 치솟는 분노와 끓여넘치는 복수심장속에 가다듬으며 조국기행의 로정을 북으로 바꾸었다.

# 옥천샘 맑은 물아!

김광호

천년 이끼오른 바위틈에서  
용용히 솟아나는 구슬같은 물  
물밑에 아롱아롱 흰 조약돌들도  
백옥처럼 아름다와 옥천샘인가!

잔디풀 소담한 이 샘물가에  
발걸음 승엄히 멈추어서면  
쪽박으로 맑은 물 정히 떠드시고  
선생님께서 하시던 그 말씀 들려와라

- 금수강산 물맛은 어데 가나 변함 없소  
머리우엔 망국의 비운이 드리웠지만  
민족의 피줄기는 이 샘물처럼 솟아나  
조선의 슬기와 기상을 빛내고있소.

아, 선생님의 뜻깊은 그 말씀  
겨레들의 가슴속에 샘물처럼 흘러들어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을 가셔주고  
투쟁의 푸른 싹을 키워주었나니

이 샘물 마시여 계급의 눈을 트고  
용맹도 담력도 꺼진 젊은이들  
저 천마산 상상봉에 수리개처럼 날아올라  
무산혁명의 횃불을 높이 올리였고  
원췌의 머리우에 퇴성벽력을 내리였어라

몸은 비록 왜놈들의 포승줄에 묶이웠어도  
조직의 비밀만은 심장속에 간직한채

이 샘물에 자기의 량심을 비쳐보며  
눈덮인 언덕길을 뗏뗏이 웃으며 걸어간  
이름모를 청년단원의 얼굴도 떠오르는듯

뼈를 에이는 압록강 얼음물속에서  
숨을 거두는 마지막순간  
그가 남긴 한마디 대답  
나는 오직  
김형직선생님 한분만을 믿는다고 웨치던  
추상같은 그 목소리도 들려오는듯...

오, 감옥도 죽음도 꺾을수 없었던  
송죽같은 절개가 여기서 솟아나고  
원췌들을 전몰케 한 칼같은 기상도  
여기서 투쟁의 억센 나래를 펼치였어라

아, 옥천샘! 옥천샘!  
김형직선생님의 승엄한 영상이 어려있어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가의 량심을  
거울처럼 비쳐주는 옥천샘 맑은 물아!

너의 즐기찬 흐름이 가닿을곳은  
《지원》의 넓은 바다  
온 나라 인민들 마음을 다 비쳐보게  
무궁토록 솟아나라 충성의 맑은 샘물아!

-청수동에서-

## 세월이 갈수록 그리운 마음

윤두근

7월의 따사로운 해빛은 마음의 고향 만경대에 무늬를 짜며 내리고 그리워 찾아오는 마음은 대동강과 나란히 또하나의 흐름을 이루며 초가집뜨락으로 물결쳐 흐른다.

유서깊은 만경대의 초가집에서  
어머니는 혁명 위해 살아오셨네  
넓고넓은 사랑속에 태양은 솟아  
사회주의 새아침은 밝아왔어라  
아, 우리 어머니 강반석어머니  
인민들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네

어머님에 대한 끝없는 찬양과 흠모를 안겨주며 노래는 만경봉하늘가에 넘친다. 사람들은 송엄한 생각에 잠겨 마당가에서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어머님, 강반석어머님! 목메여 부르며 인자하신 어머님의 영상을 우러러 나는 경건히 머리숙여 뜨거운 인사를 드린다.

아, 생전에 단 한번도 어머님을 뵈은 일 없건만 어이하여 이토록 마음에 그리움 사무치고 가슴은 뜨거움에 목메이는것인가.

우리 인민의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올리신 조선의 어머님!

한평생 리별과 고생 속에 사시면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받드시며 바치신 어머님의 높고 깊으신 숭고한 그 사랑!

새길수록 가슴속깊이에서 고마움과 감사의 정은 끊어넘치고 못잊을 그날로 생각은 나래를 펼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머니는 내가 혁명투쟁의 길에 나설수 있도록 적극 뒤받침해주었을뿐아니라 생애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떠한 곤난과 신변의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있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들의 혁명사업을 적극 도와주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말씀을 가슴깊이 새겨안은

나의 마음에는 무수한 저 하늘의 별처럼 어머님께서 바치신 하많은 사랑가운데서 1932년 여름에 있던 눈물 없이는 들을수 없고 감격 없이는 전할수 없는 그 이야기가 격정의 파도를 일으킨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인민혁명군을 갖 조직하시여 남만으로 진출하시기에 앞서 어머님의 병이 위독하시다는 소식을 받으시고 어머님께서 계시는 토기점골로 동지들의 뜨거운 지성과 념원을 안고 찾아오셨다.

뜻밖에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신 어머님의 기쁨은 한량없으시였다.

어머님께서는 해빛같은 미소를 지으시며 조국의 운명을 떠메신 위대한 수령님의 어깨를 다정히 쓰다듬어주시며 대원들은 다 건강한가, 갖 조직한 부대일이 잘되는가고 차애깊이 물으시였다.

물으심에 대답을 올리며 어머님을 바라보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가슴은 아프고 쓰리시였다.

그것은 어머님의 병세가 생각보다 더 위독하시였기때문이다. 게다가 집안살림은 말이 아니였다.

쌀은 이미 떨어진지 오래고 땀나무조차 거의 떨어져가고있었다.

이제 떠나시면 해빛도 잘 스며들지 않는 누기찬 방에서 홀로 누워계실 어머님을 생각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아픈 마음을 안으시고 나무도 해오시고 집안일도 거두어가셨다.

그러던 어느날 아침, 어머님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몸가까이에 불러앉히시고 근엄하게 말씀하시였다.

《나라를 찾자고 나선 사람이 집근심을 하고서야 어떻게 큰일을 하겠느냐, 너는 더 큰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싸우자고 하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내 생각같아서는 네가 하는 행동이 잘못된 것 같다.… 너의 동생들이 있고 또 동네사람들이 돌봐주겠다고 하는데 왜 떠나지 않느냐? 어서 떠나거라!》

아, 생명의 위험이 경각을 다루는 그 시각, 어머님께선들 어찌 사랑하는 아드님을 곁에 두시고 병구완을 받고싶으신 생각이 없으셨으랴.

하나 어머님께서는 자신의 중환보다 조국의 운

명을 먼저 생각하시고 광복을 찾는 혁명의 길로 위대한 수령님을 결연히 떠나보내시었다.

굶으시면서도 샳빨래, 샳바느질로 한푼 두푼 모아둔 돈 20원을 품속에 넣어주시고 혁명의 초행길을 헤쳐가시는 걸음걸음 날개가 되라고, 눈보라에 발이 얼세라 머리채를 잘라 신바닥에 깔아주시며 ...

물어보자, 력사여, 세상에 어머니의 지극한 사랑의 이야기는 많건만 그 언제 그 어느 나라 력사의 갈피에 어머니의 이런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던가!

이것은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을 민족의 태양으로 받들어올리신 조선의 어머니 강반석어머님께서만이 주실수 있는 위대한 사랑!

그 사랑은 봄이 없던 이 강산의 식민지얼음장을 녹인 광복의 봄빛이었고 짓밟히고 억눌린 우리 인민을 위대한 수령님의 품으로 이끌어 안겨주신 구원의 손길이였다.

아, 가장 간고하고 준엄하던 년대에 우리 인민이 어머니를 모시지 못했다면 소사하의 그 아침 아드님에 대한 그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 오늘 어찌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실수 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안아오신 주체의 첫 사회주의 락원에서 자주와 창조의 삶을 누리며 날마다 햇빛넘친 밝은 길로 웃으며 걸을수 있으랴.

생각하면 감사의 정은 가슴에 넘치고 고마움은 두볼을 적신다.

고생이면 세상에서 가장 모진 고생, 리별이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리별을 자신의 한몸에 다 겪으시고 나라 잃고 집도 없이 부평초처럼 떠다니던 우리 인민을 어버이수령님의 영원한 사랑의 한몸에 안겨주신 어머니의 그 사랑! 그 은혜 생각할수록 가슴저미는 뜨거운 생각은 하나!...

어버이수령님께서 꽃피우신 사회주의 이 강산에서 단 한뼘만이라도 비단옷을 입어보시고 단 하루라도 인민의 간절한 소원대로 오늘의 이 행

복을 누리며 편히 쉬신적 있으시다면, 단 한끼라도 우리 손으로 따뜻한 식사를 지어올리고 단 하루밤만이라도 불밝은 집집의 따뜻한 아래목에 모시였대도 우리 마음 이다지도 쓰리고 아프지 않으련만...

행복에 겨울수록 기쁨이 넘칠수록 못잊어 그리는 어머님.

아 강반석어머님!

어머님께서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인민들의 마음속에 살아계신다. 이 나라 어머니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께 충직한 아들딸로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며 인민모두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어떻게 받들며 충성으로 모셔야 함을 빛나는 모범으로 가르쳐주시며-

하기에 우리 인민은 강반석어머님을 조선의 어머니로서만 아니라 열렬한 공산주의혁명투사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받들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신 영원히 충성의 구감으로 높이 모시고 따르는것이다.

조국과 혁명, 인민 앞에 어머님께서 쌓으신 업적과 사랑을 심장에 새기며 만경봉에 오른 나는 위대한 수령님의 해빛아래 어머니의 념원이 꽃핀 락원을 바라보며 세월이 갈수록 그리운 마음 끝없는 노래에 싣는다.

착취받는 인민들의 해방을 위해

어머니가 바친 심혈 길이 살았네

수령님이 펼쳐주신 혁명의 길로

공산주의 새세상은 밝아오리라

아, 우리 어머니 강반석어머니

인민들의 마음속에 별처럼 빛나네

노래여, 조선의 위대한 어머니의 그 업적 그 사랑을 길이 전하며 인민의 마음속에 세월의 끝까지 울려가라.

## 그의 위훈은...

김승도

나는 며칠전 신문지상에서 우리 조국이 한교대 석탄생산에서 또 새 기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그 기록이 북부지구석탄총국산하 탄광들의 단기생산경기에서 창조되었다는 기사를 읽었다.

작가의 직업을 가진 나의 경우 그런 소식앞에서 피가 끓고 가슴이 뛰지 않을수 없었다. 그리하여 나는 서둘러 복행렬차에 몸을 실었다.

생활에서 우연한 상봉이 있는것처럼 뜻밖에 나는 회의차로 부에 왔다내려가는 총국생산과장과 한자리에 마주앉게 되었다. 열차는 흰 눈밭속을 뚫고 동해기슭을 따라 살같이 달리고있었다.

《마침 과장동무를 찾아가던 길이였습니다.》

내가 그를 찾아가는 이유를 말하자 그는 나의 손을 덥석 마주잡고 《정말 잘 만났습니다. 기쁩니다. 만나려던 참이었습니다.》라고 말하며 마구 흔드는것이였다.

취재대상이 이렇게 흥분하는 경우를 처음 보는 나는 그만 어리둥절해졌다.

《그것은 이미 신문지상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나려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앞섶을 풀어헤치더니 나의 앞에 한장의 사진을 꺼내놓았다. 나는 의아한 눈길로 그가 꺼내놓은 사진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서른댓살 나보이는 건장한 젊은이, 꼭 다물린 입귀밑에 팔알만한 검은 김, 껍 인상적인 인물이였다.

굵다란 손가락으로 수염자리가 퍼런 턱을 어루만지며 총국생산과장은 깊은 명상에 잠기는것이였다.

《천수탄광 채굴기사 최용걸이라고 합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이지요.》

## 1

...단기생산경기는 내가 월봉탄광에서 일할 때 있었습니까.

어느날 나는 경쟁에서 적지 않는 역할을 노는 관정원이 뜻밖에 승리경에 나타나 탄광사무실에 내려가는 전화를 받고 몹시 당황했지요.

나는 탄광의 생산과 기술발전 전반을 책임진 기사장의 위치에서 점잖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내 인차 올라가겠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하고 송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제창 돌아서 벽에 걸려있는 유선통화기의 송화기를 벗겨들고 3중대채탄막장을 찾아 심종길중대장에게 갱에 관정원이 올라갔다는것을 알려준후 얼른 작업복을 벗겨들고 거울앞에 마주섰습니다.

탄빛이 거뭇거뭇하게 습배인 얼굴과 꼭 찌른 눈확에는 며칠밤을 팬 피곤이 실려있었습니다. 나는 거기에 관심할 경황이 없었습니다. 우선 첫 인상을 멋들어지게 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이미 총국생산과장으로 임명을 받은 시람이였기때문에 더욱 그랬지요. 이번 생산경기만 끝내고 곧 새로 부임되어오는 기사장에게 사업을 인계하고 떠나야 했던것입니다.

그러므로 전국이 1억 2천만톤 석탄고지를 지원하여 펼쳐나서고 총국산하 수십개의 탄광들이 승부를 겨루게 되는 이번 단기생산경기는 나에게 각별히 심각한 사업이였습니다.

이번에도 승리경 심종길채탄중대를 돌격대로 내세워 총국이 보유한 채탄기록을 돌파하고 자기의 사업을 총화지으려는 나의 생각은 누구도 모르고있었지요.

그런데다 이제 오는 관정원이 현재까지 신문지상에서 우리 탄광 심종길채탄중대와 1.2위를 다투면서 사람들의 손에서 땀을 짜낸 천수탄광 유명한 리희백채탄중대의 채굴기사이며 그 기사가 까다롭다는 소문에 나는 매우 불안했습니다.

이윽해서 나는 혈떡거리며 막장에 들어섰습니다.

때마침 《송풍!-》하는 구령소리와 함께 유연축천공기의 동음과 왕왕거리는 풍관의 바람소리가 막장을 메웠고 젊은 탄부들이 기름기 도는 왕탄(큰덩어리)을 까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며 메를 휘둘러댔습니다. 부스러진 탄덩어리들이 사르릉거리는 콘베아에 실리어 쉽없이 조구통으로 흘러갔습니다.

누군가 채탄공들의 뒤에서 간데라불빛으로 앞을 비쳐주고있습니다. 찬찬히 보니 낯선 사람이였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나의 머리에는 그가 관정원이 아닐가 하는 생각이 피뚝 스쳤습니다.

이런 찰나에 유연축천공기옆에 섰던 채탄공 홍창구가 잘 붕락되지 않는 탄벽을 노려보다가 집채같이 크고 텅 빈 공간으로 후닥닥 뛰어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가 탄총짚사구에 지레대를 넣고 힘껏 누르자 담벽같은 석탄층이 왈칵 무너져 내렸습니다. 탄사태에 쫓기듯 그는 허둥지둥 뛰어나오질 않겠습니까.

《동무?!》

나는 가슴이 철렁하여 황급히 소리치며 손을 내뻗치며 청년의 팔목을 잡아나귀했습니다.

그리고는 숨돌릴새도 없이 돌아서 낯선 사나이의 앞을 막아서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천수탄광기사동무입니까?》

《예.》

《제가 기사장입니다. 오기 수고했습니다. 저기

나가서 이야기 합시다.》

나는 판정원의 등을 떠밀며 막장에서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예.》 하고 대답하고는 말 없이 홍창구의 뒤모습을 보기만 하였습니다.

《…………》

홍창구는 허리를 구부린채 동발에 묘하게 붙어서 계속 쏟아져내리는 탄이 동발짚에 걸릴 때마다 련속 지레대질을 해가며 조리있게 탄을 뽑았습니다. 그는 방금 있었던 일을 말끔히 잊은듯 태연하게 코노래를 흥얼흥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

비로봉밑에선 산삼이 나고  
옥류동굴안에는 백도라질세

…………

채탄공의 요술사와 같은 일숨씨에 홀린듯 그 누구도 몇분간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안타끼와 담배를 꺼내들었지요.

판정원은 홍창구의 옆에서 입을 꼭 다물고있는 심종길의 옆구리에 바짝 다가서더니 간데라불빛에 갈색으로 보이는 손바닥만한 수첩뚜껑을 펼쳐 들고 소리쳤습니다.

《중대장동무, 저 동무 이름이 뭐요?》

《채탄공 홍창구입니다. 혁신자이지요.》

《…………》

《이름있는 권투선수입니다. 전번에 지구별선수권대회에서 천수탄광선수를 녹카우트시킨 그 원손잡이입니다.》

아무 응대 없이 이름석자를 적어넣은 판정원은 수첩장에서 손을 떼려다 무슨 의미에서인지 군말 없이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심종길의 귀에 대고 시간당 채취량과 유연축의 천공깊이, 천공각도를 묻더군요. 거기에 대한 심종길의 대답은 너무나도 정확하여 오랜 기간 함께 일해온 나로서도 놀랄 정도였습니다. 공병제대군인다운데가 있었지요.

《그런데 채탄공이 봉락공간에 들어가게 됐소?》

판정원은 달리던 연필을 멈추고 나에게 눈길을 돌리더군요.

나는 《그건 모험입니다.》 라고 대답했지요.

《모험! 그것을 아는 중대장동무 왜 눈을 감고 있소?》

그는 다시 심종길에게 묻지 않겠습니까.

심종길은 단호하게 대답하더군요.

《모험보다 앞장서 봉락공간에 뛰어드는것은 우리 채탄공들의 마음입니다. 나는 그 열정에 찬물을 끼얹고싶지 않습니다.》

그건 나보다 판정원동무가 더 잘 알겁니다. 기사이니까요.》

그 말에 나는 가슴이 뭉클했지요. 나 역시 기사였기때문일지 모릅니다.

세차게 들먹이는 심종길의 가슴팍에 눈길을 박고있던 나는 이상스러운 감정을 안고 그말을 몇번이나 되뇌여보았습니다.

《기사!》

판정원의 불안해하는 몸가짐을 보니 아마 그도와 같은 심정인것 같았습니다.

그는 갑자기 얼굴에 웃음을 담더니 심종길의 탄물은 손목을 굳게 부여잡고 흔들었습니다.

《중대장동무, 한번 최고로 도약해봅시다!》

《고맙습니다.》

두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사나이답게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순간 나는 어리둥절해졌습니다. 판정원의 속내를 알수 없었지요.

× ×

나는 한결 가벼워진 마음으로 판정원과 나란히 조구통앞으로 걸어나왔습니다.

교대를 인계인수할수 있는 그곳은 네기동의 철두목우에 판자를 가로질러놓고 못을 친 장의자도 있고 구호관들과 속보관들도 걸려있었습니다. 얼핏 보면 간단한 무대를 방불케 하였습니다.

《자, 한대 태우시오.》

나는 무저놓은 동발목에 걸터앉으며 《검은금》 한대를 꺼내 권했습니다.

《미안하게 됐수다. 젊은이들이란 참 성미가 급해서…》

나의 말에는 리해를 바라는 마음이 섞여있었습니다.

《…………》

그는 말없이 담배를 받아 간데라불촉에 갖다떨 뿐이었습니다.

물론… 나는 막 안타까운 심정을 가까스로 억제하며 담배연기를 깊숙이 빨아 얼굴이 뽀얗게 가리워 안보이도록 내뿜었습니다.

그러나 판정원은 섭섭할 정도로 나의 생각에 무관심하였습니다. 그는 줄곧 자기 생각에만 잠겨있다가 움쭉 일어나 여유있게 몸을 돌렸습니다.

《기사장동지, 규정상 위반입니다. 중대장동무는 봉락공간에 뛰어드는 모험을 눈감고있습니다. 엄중합니다. 작업을 중지시킵시다.》

《뭐요?!-》

나는 앉은자리에서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놀라움과 절망적인 기분이 온몸을 사로잡았지만 다음순간부터는 못마땅한 생각이 심장으로 맹렬히 흘러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에 대한 반발로 생산경기의 승부를 위해 웃으면서 깎아내리려고 잡도리한다는 저속한 마음이 치받치더군요.

《그럼 천수탄광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오?》 이런 말이 입밖으로 불쑥 튀어나가는것을 겨우 참았습니다. 참는수밖에 없었지요. 하찮은 일로 괜히 관계를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는 측면에서 나는 자신을 극도로 조심하고있었던것입니다.

판정원은 담배연기를 몇모금 더 빨더니 꿈초를 껌 집어던지고 몇걸음 왔다갔다하다가 한자리에 우뚝 멈춰서버리는것이였습니다.

《기사장동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두 별다른 의견이 없소. 기사동무는 판정규정을 놓고 보니깐요. 노동자들이란 언제나 성실하고 솔직합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왕왕 한 측면만 보고 그 사람에 대하여 속단하는 때가 있지요...나는 이에 대하여 심사숙고합니다.》

나는 일부러 현장실태를 톡 터놓고 이야기하지 않고 능히 예돌아 들을수 있게 사색적인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의 말에 주의를 돌리지 않더군요.

《작업을 30분간 중지시킵시다. 심종길채탄중대는 너무 흥분되어있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봉락공간보다 더 위험한곳에 몸을 던질수 있습니다. 판정규정을 지키게 하는것은 일꾼들의 임무이고 탄광호상간의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판정원은 예리한 칼날로 에여버리듯 딱 잘라했습니다. 태양등빛에 비치인 그의 낫색도 몹시 상기된 표정이었습니다. 안타까움이 어린듯한 그윽한 두눈은 자주 내려감겼고 가슴은 큰 심호흡으로 들먹이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심중한 생각에 잠긴듯하더니 《기사장동지, 그렇게 합시다.》라고 한마디 더 강조하고 갱구쪽으로 급히 발걸음을 옮겨놓았습니다.

《...!!》

나는 재불을 뒤집어쓴듯 화끈 달아오른 얼굴을 어루만지며 판정원의 뒤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숙보판기등에 달아놓은 유선통화기에 대고 당장 작업을 중지하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심종길은 빙글빙글 웃는 목소리로 안된다고 대답하는것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태연하기 짝이 없더군요. 나는 어처구니가 없어 말머리를 돌리었습니다.

《봉락되오?》

《모험을 한 보람이 있습니다. 앓은 석탄벼락을 맞았지요. 자연과의 투쟁이란 그 맛이 팬찮습니다.》

30분이 아니라 1분도 중지시킬수 없습니다. 여기는 전선입니다.》

그의 말대로 1분간만이라도 중단시킨다면 통채로 무너져내린 석탄을 운반하는데서 얼마나 큰 손실을 볼것인가. 이 불같은 시각에... 한발자국만 엇겨디디면 십여발자국 떨어지는 이 긴박한 시각에... 뛰어도 성차지 않아 몸부림치는 생산경기의 돌격로에서... 위훈의 불꽃이 엇갈리는 결정적인 이 기회에... 나는 후- 하고 가쁜숨을 길게 내뿜었습니다.

그리고는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명령이요. 탄광의 규률에 복종하오. 책임은 내가 지겠소. 내가 말이요.》

나는 솔뚜경같은 손으로 동가슴을 움켜잡고 돌아서려다가 무엇인가 안심치 않아서 다시 통화기에 다가섰습니다.

《한가지 더 물읍시다. 중대장동무는 천수탄광리회백채탄중대를 압도할수 있다고 생각하오?》

나는 턱에 땀방울이 맺힌것도 감각하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는 꼭 압도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도...》

이 대답을 음미해볼새도 없이 나는 그저 압도해야 한다는 말마디에 안도의 숨을 내그으며 휘돌아서 컴컴하고 미끈미끈한 사다리를 투덕투덕 디디고 밑으로 걸어내려갔습니다. 나는 온몸이 자꾸만 땅속, 천길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것 같았습니다.

## 2

내가 검신원실앞을 지나가는데 《기사장동지!-》하는 웬 처녀의 야무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돌아보니 특무상사령장을 단 검은 제복차림의 얼굴이 동그랗고 눈살이 꼳꼳한 처녀가 뒤따라오면서 3중대막장에서 기사장을 찾는다는것이었습니다.

나는 검신원실로 들어가 유선통화기의 송화기를 벗겨들었습니다.

《뭘때문이요. 뭐 심종길동무요. 그래...》

그의 말은 나를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지요. 글썽 막장탄중도 점차 굳어지고 천수탄광의 유능한 채굴기사도 붙어있는데 유연축천공기를 개조하자는 의견을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방안이 들썩하게 웃고말았습니다.

《...동문 도대체 몇살이요? 참 천진하구만. 그 사람은 판정원이요. 말하자면 우리와 눈을 똑부릅뜨고 마주선 경쟁자란말이요!》

그 순간 크게 기대를 걸고 계획을 짰던 심종길채탄중대에 대한 나의 기대가 졸지에 무너지는것 같았습니다.

《기사동무도 한번 힘껏 도약해보자고 했습니까.》

《하하하... 그건 일꾼들이 흔히 쓰는 통속어요. 뭐가 힘들어 듣기 좋게 말 못하겠소.》

《.....》

왜서인지 그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질없는 생각은 말고 채탄규정을 정확히 지키요. 그리고 현재능력만 견지하요. 알겠소. 허참... 호박쓰고 돼지우리로 들어가자는것이 아니고 뭐요?...》

《뭘라고요?! 호박이라구요?...》

《됐소, 됐소. 아무것도 아니요. 그건 내 혼자소리요.》

나는 얼굴이 뜨거워 유선통화기앞에서 얼른 물러났습니다. 그리고는 황황히 나가려다 문옆에 붙어있는 파란도색의 신문꽃이에 돌돌 말아서 꽂아놓은 전투속보를 보고 그중 하나를 쑥 뽑아들었습니다. 중앙전투지휘부에서 발간하는 《석탄전선》이었지요.

지표별순위가 그려져있는 1면을 펼쳐들때마다 늘 그러하듯 그 시각도 나의 가슴은 울렁거리었습니다. 탄광별경쟁도표를 내려다보는 나의 미간이 어찌나 일그러졌던지 검신원처녀가 놀란 토끼마냥 눈이 울롱해서 쳐다보지 않겠습니까. 나는 입술을 지그시 다물고 신문지면우에 눈길을 박은 채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왼 손이 가늘게

떨리더군요.

어제 신문에만 하여도 엄청나게 앞섰던 석탄생산도표는 하루새에 세번째 순위에 놓였지요. 물론 천수탄광이 첫자리였습니다. 나는 저도모르게 얼굴이 확 달아오름을 느끼며 신문을 와락와락 접어 제자리에 꽂아놓은후 담배한대를 붙여물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달음으로 산너머에 있는 청년갱, 백덕갱, 조양갱을 두루 돌아보고나니 퍼그나 시간이 흘렀지요.

이윽고 사무실에 내려간 나는 폭신한 안락의자에 몸을 맡기고 숨을 돌리었습니다. 벌써 새벽이 다가오고있었습니다. 짜늘한 새벽공기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온몸이 녹아내리듯이 솔깃이 졸음이 밀려들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눈을 감았지요.

…누런 금술이 달린 영예의 우승기를 안고 들췌하는 심종길채탄중대원들, 열차에 오르는 자신과 배웅나온 정다운 탄부들, 멀어지는 탄광마을… 이때 고요한 새벽공기를 건드리며 툭툭 문두드리는 소리가 얼핏 들리더군요. 눈을 떴지요. 꿈이였습니다. 서글픈 생각이 들기에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들어오시오.》

나는 습관된 목소리로 눈을 감은채 대답하였습니다. 문소리가 난 뒤에 가느스름히 눈을 뜨니 뜻밖에도 얼굴에 탄먼지가 꺼렇게 오른 관정원이 가방을 끼고 문지방에 서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신새벽에 찾아온 손님에 대한 의문으로 몸가짐을 바로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꼬박 새웠구만요.》

《아다섯이 일군들에게겐 며칠밤씩이야 버릇이 된걸요. 허허…》

나는 자리를 권하며 손님맞기에 익숙된 동작으로 앞상으로 옮겨와 자연스럽게 마주앉았습니다. 나는 그를 물끄러미 건너다보았습니다.

관정원은 두손을 마주잡고 침착하게 말을 꺼내더군요.

《한가지 토론할 문제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피곤이 실려 좀 쾡해보였습니다.

《네. 서슴지 말고 말하오.》

《어제 저는 심종길채탄중대 홍창구동무가 모험하는데서 심한 가책을 받았습니다. 전 기사입니다.》

《나도 그건 알고있소. 리희백채탄중대의 힘이 어데 있다는것두 알고있구…》

《…………》

나는 첫날부터 수자며 채탄규정을 따지고들던 그가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나오는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겨 한동안 멍하니 바라만보았습니다.

《유연축천공기에 관절장치를 도입해서 쓰자는 의견입니다. 막장지질조건이 앞으로 그걸 요구합니다.》

관정원도 석탄생산실적을 본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때문에 이런것을 제기할것인가?

그 진속은 알수 없으나 마치 조롱하는듯한 불쾌감이 들더군요.

관정원은 내가 더 생각할새도 없이 자기의 말을 계속하였습니다.

《지금 막장에서 나오는길입니다. …》

중대장동무를 비롯한 탄부들이 대찬성이더군요. 아, 글썄 홍창구동무가 무릎을 탁 치며 <기술에는 어느 탄광, 어느 공장 하는 따위 한계가 없답니다. >하더니 도면을 와락 빼앗아 품에 넣고 시치미를 툭 따지 않겠습니까. 모두 웃고말았지요. 그래서 기사장동무와 토론하러 찾아왔습니다.》

관정원은 백지 한장을 꺼내 략도를 그리며 알기쉽게 설명하였습니다.

《이것보십시오. 탄부들은 1억 2천만톤 석탄고지를 바라보며 마음껏 <모험>할수 있는 기계를 요구하고있습니다. 다시말해서 그것은 자기들의 의사를 마음대로 실현할 작용을 하는 기계이지요. 그 요구에 자기의 창안이나 발명을 다가세우는것은 기술일군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쑤지를 뻔 관정원은 스스럼없이 기술적문제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런 응대도 하지 않고 략도만 묵묵히 응시하던 나는 《고마운 일입니다.》라고 말꼬리를 흐리면서 잠간 생각에 잠기였습니다.

침묵이 흘렀지요. 사실 따분했습니다. 관정원은 참을성있게 나의 대답을 기다리더군요.

《기사동문 기발한 착상을 했구만. 이것은 오랜 기간 고심끝에 얻은것이 분명한데…》

《물론 착상은 이미전부터 하고있었지요. 천수탄광 리희백채탄중대원들의 방조가 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그것을 도입하자면 지금의 배풍기를 교체해야 하지 않소? 기사동무의 말대로 봉락되는 채탄량이 거의 두배나 많아진다면… 그러니 그만큼한 탄먼지량제거대책이 필요하겠구만.》

《물론이지요.》

《그러구 탄부들이 기계에 익숙되려면 시간이 걸려야겠구…》

《네.》

왜서인지 그때 나는 갱내일에 귀신이라 할수 있으리만큼 그 부대조건을 먼저 끄집어냈습니다.

《그 리론은 배풍능력을 2배로 한다는것과 평행되지요. 사실 저는 이 탄광의 막장조건이 걱정됩니다. 그것을 우려했는데 채탄공동무들과 토론하는 과정에 통기굴어구에 배풍기를 하나 더 설치해주고 풍문을 조절해주면 지금의 설비로도 능히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큰 기쁨이 아닐수 없습니다.》

관정원은 마치 정든 자기 탄광의 기술과에서 닦쳐오는 난관을 안타까와하듯이 절절히 이야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리희백채탄중대의

창조물인데 심중해야 할것입니다.

사람이란 남의 창조물에 대해 존중할줄 알아야 합니다. 도덕을 지켜줄줄도 알아야 하구...》

나는 타산했지요, 그것을 받아들였다가 잘되지 않는 날이면 만회할수 없는 랑패를 면할수 없게 될것이고 실사 그렇지 않고 성사했다하여도 남의 로력을 빌어 우승대에 올랐다는 소리를 듣기는 더우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듣기 좋게 얼버무려 넘겼습니다.

한편 심종길이 《분별없이》 동의해나선것을 생각하니 속이 활짝 뒤집혔습니다. 당장 불러내고 싶었으나 참는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몹시 초조해졌습니다.

《이것보십시오. 월봉탄광이 벌써 이렇게 뒤떨어지고있습니다. 천수탄광을 위해서라도 빨리...》

관정원은 안타까와 목단추를 풀어제끼듯이 《석탄전선》을 와락와락 퍼보였습니다.

(허허... 바로 거기에 목적이 있었군. 우리의 기록을 발판으로 딛고 더 높이 뛰어오르자는것이. 그것두 그렇지만 더 큰 목적은?...)

나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동무나 나나 다 자기 직능에서 성실히 이번 경기를 끝냅시다.》

그때처럼 긴장된 시간에는 기사장이란 큰 중책은 생각밖이고 어처구니없으리만큼 철부지의 마음이 되더군요. 누구나 매일반인것 같습니다.

관정원은 나의 심정을 폭넓게 이해한듯 점점 언성을 낮추는것이었습니다.

《기사장동지도 대학에서 강의를 받을 때는 그 기술을 어느 탄광, 어느 갭에 적용시키기 위해서 배운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니 나의 머리에는 문득 우리 탄광에서 유연축전공기를 처음 만들었을 때 근 2년간이나 비밀을 지키고 한몫 단단히 보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것을 그가 상기시킬가봐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

《기사장동지, 생산에 지장이 없게 하도록 탄부들에게 말겁시다.》

피로로 풀어진 나의 푸릿한 눈언저리를 본 관정원은 될수록 말을 늘어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생산에 지장이 없이라?... 좀 더 생각해보오.》

나는 끝내 그것을 승인하지 않은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나는 영천탄광기계공장에 가서 약속한 광차를 받아와야 했습니다. 적어도 한 3~4일은 걸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해결돼야 이번 생산경기에서 예견한 석탄을 뽑아낼수 있었던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리용했습니다. 기사장이 없으면 그 문제를 결론받을수 없기때문에 더 제기하지 못할것이라는것을 생각했지요. 나의 의도를 알길 없는 관정원은 《석탄전선》을 말아쥐고 따라일어섰습니다. 역시 흥분에 떠있는 얼굴이었지요.

문밖에까지 나온 나는 푸름푸름 밝아오는 신작

로쪽으로 걸어가는 그의 뒤모습을 우두커니 바라보았습니다.

(허참, 어떤 때는 규정을 따지고 어떤 때는 도와주겠다고 나서구... 물론 국가가 주시하는 이런 때에 자기 창안의 위력을 나타내게 한다는것은 그 성과가 갑절 빛을 낼수 있지...)

나는 넓은 이마를 어루만지며 웃었습니다.

《사람이란 다 자기 방법론이 있는 법이요!》

나는 웅근 목소리로 이렇게 웅얼거리며 들어와 폭신한 안락의자에 가 앉았습니다.

창너머로 작은 세멘트다리 건너편 파란 철근을 타리안에 자리잡은 공무원직장으로 걸어가는 관정원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 3

전야근교대 막장공연을 위해 들어가는 경제선 동대원들을 태운 인차가 서서히 움직이었습니다.

문열에 자리잡은 나는 불을 붙이려고 마주앉은 청년에게 간데라를 내밀었습니다. 청년이 류달리 크고 거울알처럼 번들거리는 스펀화면을 내대자 물주리에 쉬익- 소리를 내며 시퍼런 불이 달렸다가 흑 꺼져버렸습니다.

《아니, 기사장동지구만요. 언제 오셨습니까? 정말 눈이 까매서 기다렸습니다.》

상대편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자 나는 고개를 버쩍 들었습니다. 심종길중대장이었습니다. 그는 반가와서 어쩔줄을 몰라했습니다.

《아- 마침 잘 만났소. 찾아가던 참이었소.》

흔히 사람들은 오래간만에 만나면 안부부터 묻기마련인데 나는 그럴 경향이 없었습니다. 생각은 그저 생산경기! 석탄실적! 그 한곳에 가있었습니다.

《새로 설치할 배풍기전동기를 실어들여보내고 따라들어가는길입니다.》

《뭘요?! 그래 관절식유연축전공기를 실험한단 말이지?》

대뜸 두눈이 휘둥그레진 나는 자신이 인차안에 있다는것마저 잊고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기차칸에서 우연히 만난 자재과장한테서 3중대 채탄막장에 짬버럭이 나타나 큰일났다는 소리를 듣고 역에 내리자바람으로 뛰어올라오는길인데다 이런 소리까지 들으니 눈앞이 아득했습니다.

《실험이 아니라 도입입니다. 지금 관정원동무가 동무들과 함께 관절식회전기구를 유연축에 맞추고있습니다.》

《뭘어-요?! 누가 승인했소?》

《부기사장동무가 그를 목마까지 태웠지요... 공무원직장동무들이 기사동무의 호소를 듣고 감동되어 스물두시간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보, 내가 그걸 몰라서 외면한줄 아오. 어느 탄광이 어느 탄광을 하는 판에...》

나는 주위를 살피며 한숨을 크게 내그었습니다. 속이 탔지요.

《그래 작업을 중지했소?》

《네, 한 30분간 중지했습니다.》

《30분간?!》

나는 순간에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동문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오우?》

《기사장동지, 오늘은 30분 중지했지만 래일은 30일을 앞당깁니다. 그게 자존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뭐라구?!...》

나는 마음이 괴롭다못해 서글퍼지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엽때까지 동무를 모르구 일해왔구만. 그것이 큰 실수였소. 주인은 한두 일군이 아니라 동계급들이란말이요. 왜 주인으로서 립장하나 똑똑히 지킬줄 모르오. 판정원이 발벗고나서는 목적을 왜 모르오?》

《우릴 도와주자는거겠지요.》

《바로 그 뒤에 묘한것이 숨어있소. 그게 뭔지 아오? 그게... 이제 다 알게 될거요. 당장 일을 시작하오. 당장!》

《.....》

잠시후 인차는 3중대채탄막장을 가까이 둔 지령실앞에 와뒀었습니다. 말할새도 없이 훌쩍 뛰여내린 심종길은 막장으로 가는 갱목차에 올랐습니다. 갱목차가 휙 바람을 일구며 지나갔습니다.

지지고 볶으는 기름냄새가 코를 찌르는 갱내식당앞에서 탄부들이 법석 끓고 현장방송이 짹짹 울려나왔습니다.

방송원처녀의 맑은 목소리가 긴장된 나의 발목을 잡아세웠습니다. 나는 지령실앞 넓은 공간 한복판에 동상처럼 굳어져버렸지요.

심종길채탄중대에서 수십배의 능률을 낼수 있는 새 창안을 도입하고있다는 선동방송이 들썩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숨이 막히고 가슴이 막 터지는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실신한 사람처럼 멍하니 서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다니지 않는 지름경도를 택하여 발걸음을 바빠 옮겼습니다.

나는 돼지우리앞을 지나려다가 문득 걸음을 멈추고 건너지른 통나무가름대를 두손으로 잡고 우리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백키로가 넘을상싶은 어미돼지가 모로 누워서 아홉마리나 되는 오동통살이 오른 새끼들에게 젖을 빨리우며 이따금 꿀꿀거렸습니다. 탐스럽게 젖을 파는 모양이 참 귀여웠습니다. 나는 잔뜩 열이 올라 찹찹거리던 사람답지 않게 눈귀를 조프리고 입가에 느슨한 미소를 그리었습니다. 순간이나마 행복하였습니다.

(처음으로 갱안에 버섯발과 돼지목장을 꾸리라고 했을 때가 어제갈던데 벌써 16년이 지났군!)

내가 이런 생각을 굴리는데 등뒤에서 누가 어깨를 톡 치며 《월 그리 구미를 돋구나. 건 엿보지 말게. 우리 기사장동지가 준비하는 3중대용이네.》 하고 다가서는것이였습니다. 홍창구였지요.

나는 그의 행동이 너무 우스워서 무릅없이 그쳐 죽어라 웃기만하였습니다.

뒤더수기를 굵적거리며 어쩔바를 몰라하던 홍창구는 책 돌아서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막장쪽

으로 내빼지 않겠습니까.

나는 저너석이 분명 방송원고를 써다주고 가는 길이라고 감촉할수 있었습니다. 정신이 번쩍 든 나는 촌촌한 동발새로 재치있게 빠져 그를 따라갔지요.

내가 석수가 쏟아지는 사다리밧에 거의 당도했을 때 돌버섯이 허열게 돌은 동발목앞에서 홍창구가 라이타를 번쩍거리고있었습니다. 미끈미끈한 사다리로 오르려다 간데라불이 죽은 모양이였습니다.

《홍창구, 홍동무!-》

나는 숨이 턱에 닿아 혈떡거리며 그를 성급히 불렀습니다.

《.....》

《홍동무!》

재차 불려서야 홍창구는 한손으로 동발을 잡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니 벌써 따라구만요?!... 기사장동진 아직도 굴길에 들어서면 펄펄 나누만요. 인민체육대회 금메달수상자 54키로급 홍창구 늑었구나.》

주먹으로 무릎을 치며 익살을 부리였습니다. 동발에 기대여 퍼더버리고 앉는 모양이 넘어졌던 김에 쉬어가자는 심산같았습니다. 하는수없이 나도 그 앞에 쭈그리고 앉아 실태를 좀 알아보려고 년지시 안전모를 이마우로 올려밀었지요. 벗어진 이마에 착 달라붙은 몇오리의 머리칼이 더운 땀에 축축히 젖어 김을 문문 서러울렸습니다.

《동무가 방송원골 써었소?》

나는 숨을 톼느라고 가슴을 들먹이였습니다.

《제가 그런 재간이 있으면 기자가 됐지요.》

《그럼 중대장이요?》

《아니요.》

《그럼 누구요?》

《능숙한 선동원이지요. 그는 유능한 채굴기사랍니다.》

이 말에 나는 이마살을 찌프리였습니다.

《음-》

나는 입술을 짹 깨물었습니다.

《먼저 올라가십시오. 뭘 깜빡 잊고왔습니다.》

《뭘데 ?》

《저... 작업시간을 30분이나 지연시킨 이 모험가의 버릇을 톡 떨구어놓을 <로동안전규정>관을 달입니다. 판정원동지한테서 분공받고 퇴근할 때 써놓고 나간건데 오늘 현장에 붙여야 합니다.》

《홍동무가 직접 썼으니 내용을 행하니 켜겠소.》

《언젠 뭐 그걸 몰라서 모험했나요... 내 얼른 갔다오겠으니 여기서 다리침이나 좀 하십시오.》

능청스럽게 퍼더버리고 앉았던 홍창구가 벌떡 일어나 다시 온 길로 코노래를 흥얼흥얼 부르며 걸어갔습니다.

...

비로봉밑에선 산삼이 나고  
옥류동굴안에는 백도라질세  
아-아- 인민의 금강산

.....

나는 웃음집이 흔들거려 한동안 만사를 잊은 듯 웃고말았습니다. ...

× ×

통기굴로 올라가는 길과 막장으로 들어가는 갈림길 삼각점에 이른 나는 레루를 밟고 잠시 서성거렸습니다.

(어느쪽으로 갈것인가? 송풍기를 설치하고있을 통기굴로, 아니면 천공기를 조립하고있을 막장으로?)

나는 고개를 숙인채 몇발자국 더 서성거리다가 판정원이 꼭 막장에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는 그리로 걸으며 혼자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공명을 목적으로 하는 일은 언제나 좋은 결과를 빚어낼수 없지. 그것을 막장의 정적이 증명해 줄것ियो. 막장의 정적이!...》

몇걸음 옮겨놓았던지... 갑자기 요란한 천공기 소리가 귀청을 때렸습니다. 나는 와들 놀라 멈춰섰습니다. 다음순간 나는 부지중 호흡의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왜서인지 숨결이 자꾸만 빨라지는 것이었습니다.

사지가 나른해지고 것처럼 용솟던 용기가 해면 위에 떨어진 물방울같이 잦아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념이 정의로운 힘앞에 무력해지고있음을 감촉할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나는 몇발자국 더 옮겨놓았습니다. 하지만 그 걸음은 누구도 감각하지 못하게 류달리 조심히 옮겨졌습니다.

참나무등발에 떠받들린 막장 불락천정이 꺼밋 꺼밋한 짙버럭덩어리들과 탄층이 함께 굳어져 억척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심종길은 유연축천공기의 정머리를 마음껏 전회하면서 구석진곳까지 천공하고있었습니다.

심장을 울리는 천공기동음, 바람소리, 콘베아소리... 막장은 심종길이 말하던것처럼 전선, 전화의 날 나자신이 싸우던 돌출부를 방불케 했습니다. 심종길은 물론 채탄공들의 얼굴에는 기백과 희열이 넘쳐나고있었습니다.

예견했던 판정원은 그 장소에 없었습니다. 자신의 예견이 하나도 맞지 않는 까닭을 무슨 리치로 보아야 할지 나는 도무지 알수 없었습니다. 나는 자기 생각의 모순이 무엇인지 아직은 안개속에서 오솔길을 찾듯 희미하게 료광적으로밖에 리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 자신이 취한 립장이 어떤 모순속에 빠져있다는것만은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현실앞에서 자기의 마음을 돌려세우는것은 너무 섭섭하고 피로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허리를 수긋하고 정신없이 통기굴로 걸어

갔습니다.

밋밋한 경사로 이루어진 통기굴은 들어서자부터 서늘한 감을 주었습니다. 등발이 촘촘히 들어선 끝은 통기굴 한끝에서 불빛이 보이고 쇠붙이 맞부딪치는 소리가 나리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야말로 정적이 흐르고있었습니다.

나는 배풍기운전공의 조작변앞에까지 와서 머뭇거렸습니다.

멀리서 두사람의 그림자만 얼른거리더군요. 그중 한사람이 몇발자국 내려오더니 우뚝 멈춰서 간데라불을 들어 크게 원을 그리는 것이었습니다. 무슨 신호였습니다. 분명 나에게 신호하는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뭐요?》

나는 용기를 내어 소리쳤습니다.

《거 스위치를 좀 넣소.》

《어느 스위치말이요?》

《아니 홍창구등무가 아니요?!》

《.....》

《어느 스위치가말이요?》

《제기랄, 어느 스위치는 어느 스위치겠소. 등무는 여기서 뭘하는지 모르고있소. 도대체 누구요? 석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사람갈구려. 아직도 두 등무같은 사람이 있으니...》

상대편에서 신경질이 섞인 두덜거림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한매 쳐번질 기세로 불빛을 번뜩거리며 달려내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

순간 나는 가슴이 섬찝했습니다. 마치도 자신의 행동을 두고 하는 격분에 찬 목소리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알수 없는 나의 마음을 그리도 면바로 쿵 찢른것입니다.

마주 걸어오던 채탄공이 배풍기개폐기앞에 우두커니 서있는 나를 보고 어쩔바를 몰라했습니다.

《기사장동진걸 그만...》

《등무, 말을 삼가하오. 기사장이라고 다 알겠소. 모를수도 있지. 사람이 어떻게 세상만사를 다 알고 일하겠소.》

나의 음성이 어딘가 모르게 가을바람에 흩어지는 락엽처럼 쓸쓸하고 경련적이라는것을 그도 느꼈는지 대단히 미안해하더군요.

나는 다시금 눈을 조용히 감았습니다.

《판정원등무가 어디 갔소?》

《금방 떠났습니다.》

《떠나다니?!》

나는 정신을 번쩍 차렸습니다.

《참차로... 총국에서 중간총화가 있다고 배풍기 조립을 끝내는걸 보고 급히 나갔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요?》

《14일입니다.》

《아, 래일이 15일이구만. 15일에 중간총화가 있다고 했지?! ...》

《판정원등문 기사장동지를 만나지 못하고 가는 데 래일아침 8시에 총국접수실에서 기다리겠으니

밤교대 석탄생산량을 전화로 꼭 알려달라고 몇번이나 당부하고 떠났습니다.》

《전화로!!...》

나는 고개를 버쩍 쳐들고 채탄공을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왜서인지 자꾸만 눈곱이 더워오며 뜨거운것이 복받쳐올랐습니다. 가늠할수 없는 흥분때문인지 관자노리가 떨리고 수염이 꺼실한 턱 끝으로 땀이 흘러내리더군요.

나는 서둘러 주머니를 들춰 담배를 붙여물었습니다.

《그래 갔단말이요?》

《지금쯤은 떠났을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동발에 매달려있는 유선통화에서 빨리 배풍기를 돌리라는 심종길의 목소리가 울려나왔습니다.

나는 《알겠소.》라고 대답하고는 채탄공에게 개폐기를 넣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유압차단기가 절각하더니 위잉-하는 배풍기의 시동음이 굴안을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후출근하던 풍관이 불룩해지며 신선한 바람소리가 쇠아 가슴을 적시었습니다.

나는 다시 유선통화기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3중대 중대장동무!》

요란한 천공기소리에 뒤섞인 심종길의 목소리가 맥동전류처럼 동강동강 끊어졌습니다.

《중대장동무요? 내 기사장이요. 뭐 막장이 극복된다구! 탄차를? ...》

조구가 차는데 빨리 탄차를 3배나 더 들여밀어야겠다는것이었습니다.

《중소. 아침교대시간까지 열한시간이 남았소. 마음껏 도약하오, 도약. 그리고 후야근 정미 8시간 교대 채탄량을 따로 측정하오. 탄차보장은 내가 지휘하겠소. 나의 위치는 갱내지령실이요. 중대의 력량을 총동원하오!》

나는 이렇게 소리쳐놓고서야 자신이 관정원이 말하던 그 도약이라는 단어를 곱씹어 뉘엿다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석탄! 도약! 조국!》

나는 자기가 어떤 자세로 섰을 때 이 말이 저절로 튀어나왔는가를 생각지 않을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동발목에 박아놓은 간데라고리를 벗겨들고 조구통쪽으로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의 머리에는 이 짧은 시간에 너무나도 많은 생각이 회오리쳤지요.

(나는 남이 자신을 앞서는것을 두려워했소. 그리고 남을 칭찬하기를 좋아하지 않았고 나라의 석탄생산이야 어떻게 되든말든 자신의 기록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모든것이 고착되기를 원했소. 그래서 남이 훈장을 받을 때면 얼굴을 붉히며 박수를 쳤소... 나는 앞으로 어느 탄광이 아니라 조국을 생각하고 나 자신과 같은 사람과 투쟁해야 할 사람이 아니오?! ...)

나는 저도모르게 가슴을 움켜잡았습니다.

《고맙소. 고맙소. 기사동무!!》

마음속의 진정을 부르짖으며 석탄이 사태처럼 쏟아져내리는 조구통앞에 이른 나는 성급히 유선통화기의 송화기를 벗겨들었지요.

《관정원동무는 교대채탄량을 얼마로 예정했소?》

심종길이 얼마라고 대답했는데 큰베아소리의 지장으로 알아들을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웨쳤습니다.

《관정원동무의 예정량을 뛰어넘어야 하오. 그리고 날이 밝으면 홍창구동무를 시켜서 관절식유연축천공기의 도면을 빨리 천수탄광에 부치도록 하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나는 그 시각 어마어마한 중간총화석상에서 우리 조국이 보유하게 된 전례없는 새 기록을 놓고 열변을 토할 관정원의 불같은 목소리를 듣고있었습니다.

예견했던대로 그 다음날 신문의 첫면에 북부지구석탄총국산하 월봉탄광 심종길채탄중대의 위훈이 주먹같은 특호활자로 보도되었지요.

그러나 누구도 그 명예속에 빛나는 숨은 노력은 모르고있었습니다. 오늘까지도...

× ×

우리들사이에는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많은 생각을 불러내는 침묵이었다.

렬차가 검푸른 해안을 멀리 두고 힘준한 내륙지대로 달리기 시작하자 끝없이 내려쬐이는 주먹같은 눈송이들이 차창을 뒤덮었다.

나는 어쩐지 마음이 후련해지면서 아직도 더들을 이야기가 있는듯 강렬한 호기심이 한가슴 갈마들었다.

《생각이 깊어지는 이야깁니다.》

《그렇습니다. 조국의 명예가 될수 없는 위훈은 자신의 명예로도 될수 없지요. 진정한 명예만 언제나 숨은 위훈속에서 더 빛나는 법입니다.》

총국생산과장은 차창으로 불리운 물기를 손등으로 닦았다. 석탄을 만재한 화차들이 줄지어 흘러갔다.

《월봉탄광에서 나오는 방통들이구만.》

《그렇습니까?》

《예.》

《과장동문 다음역에 내려야지요?》

《다음역에? ... 곧장 천수탄광으로 내려가겠습니다. 나와 함께 가는것이 어떻습니까? 난 이렇게 욕심사나운 사람입니다. 하하... 이제 결함이라니까. 그것만은 아직도 시정하지 못했습니다.》

《하하하... 세상에는 리로운 <결함>도 있답니다.》

나는 혈기왕성한 그의 미간에 눈길을 준채 동감을 표시하였다.

무너져내리는 눈속을 뚫고 렬차는 함경산줄기의 좁은 계곡을 따라 줄기차게 달리였다.

# 백두산의 봄

박창화

오월이라

백두산기슭에 서니

신비로와라

하늘땅의 조화가

화산이 터져오르듯

장군봉엔 눈보라 솟구쳐오르는데

밀림속 곳곳엔 진달래가 불타누나

유격대원들이 두고간 우등불처럼-

아 봄과 겨울을

한시각에 바라보는 이 순간

마음속에 차오르는

승엄한 생각

남호두 귀틀가의 못잇을 고드름

《반일전가》 가슴치던 혈전의 그 언덕...

우리 수령님 봄을 안으시고

기나긴 겨울을 헤쳐오셨나니

하늘가득 내리는 봄별도

그대로 받기엔 송구스럽구나

이름모를 한송이 꽃조차도

그대로 서서는 안아볼수 없구나

오늘의 행복을 꽃피워주신

은혜로운 사랑의 손길만 갈고

키낮은 꽃에도

수령님의 높은 뜻 어리어있어

아 봄이다!

천지의 푸른물이 설레이는 저 하늘가엔

종다리 아닌 눈보라가 울어도

마음속엔 새움이 터올라

진정 봄향기에 취해

지나온 겨울을 잊지 말라고

아지랑이 아닌 눈보라를 이고온

생각많은 백두산의 봄이여!

# 사랑의 창조

동기춘

넓은 화랑의 푸른 기둥은  
백두의 밀림으로 일어서는가  
어디선가 산새의 우짖음도 들려올듯...  
여기 렬사들의 석상제작실로  
위대한 수령님 몸소 오시다

걸은 들길과 넘은 준령  
싸운 전구는 서로 달라도  
저마다 지닌 이름 같지 않아도  
위대한 장군님을 오로지 받들어  
혁명렬사의 한이름속에 빛나는 그들

가난을 헤치느라 그후론 혁명을 하느라  
언제 한번 세다리사진기앞에 서볼 여유도 없이  
항일성전에 열혈청춘을 바치고  
20대에 이름만을 남겨놓은 그들이건만  
아버이장군님 마음속깊이에  
그 모습 진하게 남긴탓에...

아, 한 전사의 앞으로 다가가신 수령님  
이 동무는 안경이 유표했으니 그 모습 살리라  
이르실 때-  
북만의 광야에서  
장군님의 한팔이 되겠다 맹세 높던 그 전사  
오가자의 돌다리를 건느던 날에는  
그이를 모시고 압록강도 이렇게 넘고싶다던 전사  
수령님품에 안겨 그날의 모습으로 일어서고...

그이께서 또 한 전사를 안으실듯 손길 드시며

이 동무의 어깨는 남달리 넓었다 말씀하실 때-  
머슴의 지게줄에 어깨가 패우다가  
혁명의 총을 메니 편하고 살찼다던 지휘원  
40년이 흐른 세월의 언덕을 질러와  
수령님 우러러 그 큰 어깨를 들먹이고...

걸으신다, 수령님께서  
렬사들이 남기고간 못잊으실 추억을  
웁기시는 자욱마다 뜨겁게 담으시며  
눈앞에 생시처럼 달려오는 그 모습들을  
백두의 저 먼 산발에서 안아오시며

조국의 청사에  
혁명의 만대에  
길이 빛날 조선의 아들딸이였기에  
이날까지 가슴속깊이 품고계신 우리 수령님

이렇듯 몸소 오시여  
허물 하나 기미 하나 다 기억해주시고  
녀전사들의 고운 불우물은  
웃는 모습속에 길이 남기라 하시니  
아, 삶의 위대한 선언이여  
눈물 머금고 고개드는 저 렬사들을 보는가

위대한 아버지 우리 수령님  
하늘처럼 넓으신 그 품에서  
빛 뿌린 별들 꺼질줄 몰라라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 고향집 사립문앞에서 외 2 편

량덕모

선뜻 들어설수 없구나  
만경대 고향집이여  
철없던 시절엔  
그저 좋아 들어서던 이 사립문  
내 어이하여 걸음 멈추는가

프락의 작은 모래알 하나하나  
초가지붕의 벼짚 오리오리  
이 나라 수난을 막아섰던  
일가분들 숨결 어려있는 집

나이 들고 썸이 들수록  
받아안은 은혜 더더욱 고마와  
빈손으로 부모님앞에 나서지 못하듯  
그저는 정말 그저는  
들어설수 없는 집이여

아 내 무엇을 안고 들어서라  
가슴가득 차오르는  
감사의 인사를 대신하랴  
찬이슬 찬서리 다 맞으며  
조국의 새아침 안아오신 일가분들앞에

하늘가에 풍년날가리 쌓아놓고도  
마음은 먼저  
구름천리 달려와 쓰다듬었노라  
저 집안의 타개죽 끓던 부뚜막이여

허리 못편 독이며...

봄가을 프락뜨르 몰고몰아  
혁신자의 꽃다발 아름안을 때도  
생각은 깊어졌노라  
저기 땀젖은 농쟁기우에 마음 없으며  
더 갈아빈질 사래긴 이랑을 두고

아 마음속에 늘 그리운 집이여  
울적마다 안고온 자랑보다  
안겨주는 혁명의 재부 끝없는 집이여  
그래서 이 사립문앞에 서면  
효성 다하지 못한 자식처럼  
내 머리 숙어만지나니

우리 수령님  
조국을 안고 돌아오신 이 프락으로  
온 일가분의 뜻으로 열려진 이 문으로  
땀땀이 들어 못선다면  
무엇하러 이 땅에 사는것이나

오 찾아울적마다  
만풍년의 열매 거둬도록 안고  
이 사립문으로 들어서리라!  
여기서 시작된 혁명의 길우에서  
내 보람찬 삶  
별처럼 빛내이려

## 혁명렬사릉

여기서 만나누나!  
사진 한장 못남기여  
그리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던  
그 투사의 눈길을

숨지면서도 장군님 계시는곳으로  
머리를 돌려달라던 그 전사  
백두의 어느 봉우리에  
남모르게 묻혀있다  
이 언덕에서 다시 얼굴 들었는가

아 혁명의 폭풍속에 흩어진  
아쉬운 넋들  
내 생의 한시절을 다주어서라도  
저 락원의 거리를  
한번 손잡고 거닐수 있다면  
한번만이라도  
그대들 목소리 다시 들을수 있다면...

아니여라

눈서리 이고 싸우던 날의 그 모습으로  
봄향기 안고온 나를 반기는 이들  
기쁜 날이면 더더욱 못잊어 추억하시는  
아버이수령님 곁에 늘 서있는 투사들이여

세상에 부러운 삶이 있다면  
이 언덕에서 제모습 잃지 않은  
그대들 몇몇한 얼굴  
백년 삶보다 고귀한 행복이 있다면  
꽃나이로 이 언덕에 오른 그대들 영광  
내 한생 따라오른 삶의 절정

오르고오르다 쓰러진들  
한이 없이 눈 감을수 있구나!  
이 언덕우에 뿌려지는 사랑의 빗발을  
내 또한 받아안고 살기에

오 혁명렬사릉 혁명렬사릉!  
세월은 흘러  
수천만번 바뀌는 인생들과 함께  
언제나 행복의 꽃밭길을 걸으며  
걸음걸음 이끌어주는 삶의 길잡이들  
여기서 다 볼수 있구나!

## 네 마음 비긴 벌

쪽정이 한알 없이 알찬 이삭들  
정이월에 나래 한장 더 엮고  
오뉴월에 김 한벌 더 매자던  
네 목소리 스며배여 이리도 쇠소리 내느냐

넘어진 강냉이 한대 없이 들어찬  
다락발 빛나는 충계충계  
온 농장을 부르며 폭우속을 달리던  
처녀야 네 담찬 마음 받들어올렸느냐

과원의 빨간 사과알들도  
익은 얼굴 내저으며 말하는듯  
길쭉의 배부른 줄당콩들도  
깍지 터치며 말하는듯

너는 꽃눈우에 내리는 찬서리 몰며  
이른봄밤에 타오른 해불  
들판의 풀 한포기 버릴세라 쌓아올린  
거름산우에 나뭇기던 기밭이라고!

아 불같이 날아오른 가슴이어서  
새벽이슬 좋다던 관리위원장처녀야!  
- 수령님의 말씀대로 농사짓자요!  
늘쌍 속삭이던 네 마음 비긴 벌

걸을수록 정녕 황홀하구나  
열이 오른 얼굴에 찬물찜질하며  
하루쯤 쉬라고 타이르던 어머니도  
미처 몰랐던 네 마음 여기서 다 보누나

하도 극성스런 네 진정이어서  
말없는 땅도 알아주는가  
일년내내 입술이 트도록  
농사일 앞장서 드달려온 이 가을

어디 가나 눈이 시게 여물은 금빛이삭들  
처녀야! 너에게 안겨주는  
대지의 금벌메달이라고  
풍년벌은 끝없이 설레며 말하누나!

## 3 대혁명의 교정에서

한용걸

사람들이 흔히 불밝은 대학의 강의실을 배움의 교정이라고 부르듯이 3대혁명소조원으로 일하고 있는 우리들은 또 다른 의미, 사회와 현실이라는 넓은 의미에서 새로운 교실에 대한 표상을 느껴안을 때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에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그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적극 참가시키는것이다. 대학생들을 3대혁명소조운동에 계획적으로 참가시켜 그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며 그 과정에 자신을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단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생들의 사회정치활동이라는 귀중한 말씀속에는 대학생들을 3대혁명수행의 직접적인 담당자로 되게 할뿐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전위로 세워주시려는 아버지수령님의 심원한 뜻과 사랑이 깃들어있다.

대학의 교정을 떠난 그후부터 나는 동무들에게 자주 편지를 날리지 못하고 또 편지를 받았다 해도 회답을 보내지 못하는 때가 많지만 우리들은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곳곳에서 들려오는 조국의 큰 경사와 자랑거리들을 두고 언제나 가슴뜨거운 충격속에 서로의 소식을 알고있다.

그때마다 나는 자신도모르는사이 깊은 생각에 잠기곤한다.

대학때에 설계합평회에서 《백화점》설계를 1등으로 당선시킨 박동무의 경우라고 해도 실지 소조기간이 아니였다면 어느 공공건물의 한 대상 건축이나 겨우 담당하고있을것이다.

기계공학을 전공한 리동무는 그가 흥미를 가진 유압식기계의 반축계산만을 전공할것이며 화학을 배운 설동무는 고분자합성의 산비밀을 알기 위해 실험실을 집으로 삼고 실험에만 열중하고있을것이다.

교작이면 설계실과 계산실, 실험실만을 대상으로 그 울타리속에서 에돌았을 우리들이 3대혁명소조활동기간에 얼마나 풍부한 지식과 산 리론을 체득하여 자신의 면모를 사회와 혁명 앞에 뽐냈는지 내놓았던가.

그래서 나는 가끔 지난날을 오늘과 그리고 미

래와 결부하여 돌이켜보는 때가 많다.

전후 내가 처음으로 들어간 인민학교 교실은 네칸방 기와집의 맨 끝방이었는데 그때 우리가 하도 귀하다보니 창문을 창호지로 발랐었다. 나는 거기에서 《우리 말》 교과서의 첫페이지를 번지였다.

두해를 채 못넘기여 초운마을의 앞남산기슭, 유리창문이 주련한 새 교사로 이사하게 되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수 없다.

처음 우리 글을 익히고 산수 구구표를 외운 그 교사 그 교실, 수수한 나무층계의 그 교문을 떠나 세멘트층계의 중학교 교사와 대리석층계의 대학교정을 거쳐 나는 교정에서 교정으로만 걸어왔다.

나는 대학문을 나서며 이것으로 배움은 끝나고 받아온 은덕에 로력의 땀으로 보답을 드리게 되였다고 생각하였지만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서는 나를 또 새로운곳으로 불러주시였다.

그곳은 어둔 밤을 태우는 용접의 불꽃이 경축의 축포처럼 날려퍼지는 일터, 제관직장의 함마소리, 그리고 합숙창문을 열기만 하면 용선로의 불빛이 노을로 붉어져 언제나 단숨에 뛰여가고싶은곳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처럼 대학의 교정을 내리는 불타는 우리 가슴마다에 혁명전위의 빛나는 영예를 안겨주시고 보다높은 배움의 층계우에 다시 세워주신것이 아닌가.

받아안은 땀에 비해 해놓은 땀이 적은것으로 항상 자책의 무거운 걸음을 옮기곤하던 나에게 있어서 이 과분한 영광과 믿음은 너무도 상상을 초월하는것이다.

그때문에 설비관리에 주인답지 못한 일군들의 낡은 사상을 말끔히 고쳐주지 못한것으로 박동무가 온밤 잠못들고 모지름을 쓰다가 비내리는 그 밤 현장으로 뛰어나간것이며 야외에 설치된 전동기의 동체에 자신의 걸옷을 벗어 덮었던것이다.

전동기가 젖었다고 해서 누가 그에게 탓할 사랑은 없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토록 심려하시는 설비를 두고 혁명전위의 그 뜨거운 충성심은 불타올랐던것이다.

내가 천둥소리에 놀라 잠을 깨여 현장에

달려나갔을 때 그는 아무 일도 없었는듯  
흑판우에 치차쓸림힘 공식을 써놓고  
로동자들에게 한창 그 원리를 설명하고있었다.

어제는 조립작업반에 놓여있던 흑판이 이  
밤에는 치차작업반에 옮겨와 순수 공식만이 아닌  
나라의 귀중한 설비관리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슴과 가슴들에 깨우쳐준다.

물이 함뿍 배인 그의 온몸에서는 비물인지  
땀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그 무엇이 쉼없이 땀혀  
떨어지고있었다.

웬만하여 극장에 가거나 영화를 보면서 눈물을  
흘릴줄 모른다고 동무들로부터 때로  
《무감정》이라는 추궁비슷한 말을 듣곤하던  
나였으나 이때의 감격은 무슨 말로도 다  
표현할수가 없었다.

내가 손에 들고 간 설비 수명을 늘이기 위한  
직관결그림을 흑판밑에 나란히 걸어놓으며  
박동무의 웅심깊은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듯  
그에게서 눈길을 떼지 못하는데 슬그머니 다가와  
나의 손을 뜨겁게 덧잡아쥐는 사람이 있었다.

나이가 오십이 넘도록 굵은 이바퀴를 꺾으며  
치절반앞에서 머리가 희여온 반장아바이였다.  
젊은이다운 열정이 넘치는 그의 얼굴은 감격과  
자책의 감정이 한데 어울려 상기되어있었다.

《고맙습니다. 소조원동무, 우리 현장이야말로  
3대혁명의 훌륭한 교실이우다!》

(아, 3대혁명의 교실!)

허식 없는 투박한 음성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코허리가 시큰해지며 눈굽이 뜨거워올랐다.

3대혁명의 교실!

바로 여기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이  
마련해준 사람도, 자연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고 변혁해나가는 혁명의 교정이  
아닌가.

조국땅의 어제와 오늘을 모르고 참다운 과학을  
할수 없고 열렬한 애국자가 되지 못하고서  
과학에 한생을 바칠수 없다는 현실의 이 엄연한  
진리를 나는 바로 오늘 이 생활속에서  
느끼고있다.

그때문에 종래의 과학이 한세기가 지나도  
점령하지 못했으며 또 점령할수 없다고 인정하던  
새 주물방법이 우리의 교실에서 바로  
3대혁명전위들에 의하여 그 결실을 보게  
된것이라.

바로 이 위대한 교정이 자리잡은 모든곳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새로운 기적에 기적이  
태어났다.

서해의 가덕도와 능금섬으로 대형벨트콘베아가  
뻗어갔고 유해로동의 일터가 자동화의 공장으로  
환연기를 뿔어올린다.

수천톤의 석탄을 품고 잠자던 수백만산이  
한순간에 《지진》을 일으키며 기름이 번쩍이는  
석탄산으로 다시 솟아난다.

주체의 철학을 배웠고 과학을 터득한 우리들이  
마음쓸 일이나 피로운 일이 있다면 오늘  
이때까지 비오나, 눈오나, 바람이 부나 다심한  
어머니의 손길로 키워주고 고스란히 안아 배움의  
한길에 세워주신 은혜로운 그 사랑에 땃땃이  
보답을 드리지 못하는것뿐이다.

나 역시 그렇게 살지 못했기때문에 항상  
자책속의 자신을 보는것이며 또 그렇게 살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깡그리 쏟아  
일하는것이다.

박동무가 현장흑판에 써놓은 공식이 결코  
자신의 수양을 위한것이 아니다. 눈에 띄지 않은  
기대우에 남모르게 덮어놓은 그의 겉옷이 한  
기대공을 위한 일만이 아니다.

나는 무엇보다 그날 박동무의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그 깨끗한 충성심이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로동자들의 가슴을  
흔들어놓았는가를 똑똑히 안다.

그것은 박동무뿐아닌 우리 세대, 온 나라  
3대혁명전위들의 하나같은 모습을 되새기게  
하는것이다.

바로 그 교정에서 바로 그 손들에 받들리어  
우리 조국은 사람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연을  
변혁하며 하루를 백날맛잡이로 속도전의 세찬  
열풍을 일으키며 세월을 주름잡아 달려나간다.

강의종소리는 울리지 않아도 이 벅찬  
현실속에서 우리의 수업은 계속되고있다!

3대혁명의 찬란한 빛발속에 언제나 대오의  
기수로 이슬찬 새벽길을 남먼저 걷는  
혁명전위들의 이름을 조국은 영원히 안고  
살것이다. 그 이름속에 나의 평범한 이름도  
있으려니 나의 긍지와 자부심을 무엇에 비길수  
있으랴.

혁명의 빛나는 년대기를 수놓으며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위업을 받들어가는 3대혁명의  
진군길에서 대학생-우리 전위들의 이름은 별처럼  
빛날것이다.

## 떠나던 그날

설진기

## 1

꽃피는 봄날.

전국품질감독원강습에 올라온 원치성은 제품검사에 귀하게 쓰일 물건을 구하였다.

지금 공장에서는 이 물건이 발라서 제품검사의 신속성을 보장 못하고있었다.

치성은 한시바빠 그것을 공장에 보내고싶었다. 내려갈 때에 들고가려고 했지만 강습날자가 아직 많은 형편이라 우편물로 부치는편이 더 빠를것 같았다.

점심시간에 그는 베개통만한 꾸레미를 들고 체신소로 향했다.

봄빛이 짙어가는 거리에는 가슴벅찬 생활의 물결이 끊임없이 흐르고있었다. 방금 살수차가 시원히 지나간 도로위로 승용차들이 바빠 지나다니고 산뜻한 정복차림의 교통정리원은 오가는 자동차들을 정확히 지휘하고있었다.

네거리의 체신소에는 손님들이 적지 않았다.

소포를 취급하는 창구앞에서는 고수머리사나이가 막아서서 무엇인가 시비를 캐고있는데다가 간막이유리에 《알림》종이까지 붙어서 치성에게는 소포취급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치성은 순서를 기다리며 창밖에 눈을 주었다. 통유리로 된 큼직한 창문으로는 네거리의 풍경이 그대로 펼쳐졌다.

일이 갓 돌아나기 시작한 가로수밑으로 다채로운 옷차림을 한 사람의 물결이 쉬임없이 엇갈리고 엇갈린다.

치성은 품질감독원의 직업적인 눈으로 사람들의 차림새며, 옷색갈이며, 걸음걸이까지 그 모든 것을 관찰하고있었다.

치성은 초조히 창구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앞 사람의 싱개이질은 좀처럼 끝날상싶지 않았다.

《손님, 안된다는데 왜 자꾸 그래요?!》

《이거 정말 인정사정이 없구만. 시간이 없어서 그런다질 않소!》

알아보니, 짐을 찾을 손님이 공민증을 가져오지 않았다는것이였다. 체신소에서 띄운 통지서를 가지고 왔으니 인정할수 있지 않느냐는것이 손님의 트집이였고 규정의 요구인것만큼 공민증을 확인하지 않고서는 짐을 내줄수 없다는것이 소포취급원의 주장이였다.

《아주머니! 나도 물론 규정대로 하는게 나쁘다는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을 우선 믿고봐야지! 그만큼 사정했으면 알아줘야 할게 아니요.》

《동무!》 하고 치성은 참다못해 한마디 내뱉었

다.

《...규정대로 하는게 나쁘지 않다고는 하면서 규정을 어기려 해서야 되겠소?!》

치성은 어쩐지 《규정의 편》을 들고싶어졌던것이다. 그의 직업적인 심리가 그쪽으로 쏠리게 했는지 모른다.

고수머리청년은 치성을 힐끔 치며보더니 입맛을 다시며 물러나고말았다.

이때 치성은 소포취급원녀인의 얼굴을 똑바로 보게 되었다. 그는 자기의 눈을 의심했다.

(아니 저 동무가!... 내가 잘못보지나 않았나?... 탄순이가 신통한데?...)

탄순인듯도 하고 아닌듯도 하였다. 하긴 벌써 10년가까운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가.

치성은 그와 눈이 마주칠 순간을 기다렸다.

치성의 꾸레미를 받아든 순간 《탄순》의 감장 눈이 갑절이나 커졌다.

《아니, 검사원동지...》

《탄순동무!》

원치성은 흥분하여 부르짖었다. 그는 분명 8년 전 치성이네 공장 선반공으로 일하던 탄순이였다.

《아저씨!》

탄순이도 펜을 떨구며 일어섰다.

《그동안 편안했소?》

《예, 아저씨 지금도 검사원이세요?》

《이젠 감독원이요.》

《그래요!... 공장도 많이 변했겠지요?... 우리 집은 모두 이사했기때문에 그사이 한번도 고향에 가보지 못했어요》

회포를 나누기에는 너무도 짧은 시간이였다.

탄순이는 치성이가 내민 꾸레미를 받아 저울판 위에 올려놓으며 실무적인 어조로 물었다.

《무엇이예요?》

《검사에 쓰는거요...》

《여전하시군요!》

탄순이는 웃었으나 어쩐지 치성은 얼굴이 뜨거워짐을 의식했다.

탄순이의 웃음밑에는 잊혀지지 않는 딱한 사연이 깔려있었다...

## 2

그것은 꽃같은 처녀 오탄순이가 원치성이네 공장에서 선반기를 돌린 마지막 날에 있는 일이였다.

그날 치성은 탄순이가 결혼식준비를 위하여 다음날부터 휴가에 들어간다는 소문을 들었었다.

탄순이는 직장혁신자들중의 한사람이었다. 치성은 탄순이가 공장에서의 마지막 날을 아무런 오점없이 장식하도록 그를 적극 도우리라 마음먹었다.

그가 이토록 원심을 쓰게 된데는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으니 탄순이는 량에만 치중하고 질을 높이지 못하는 약점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비록 엄중한 약점은 아니라 할지라도 옥의 티를 닦아주지 못한채 시집보내게 된다면 보내는 마음인들 좋겠는가.

그리하여 치성은 도면료해로부터 공구준비에 이르기까지 그의 작업준비상태를 하나하나 보살폈고 공정검사도 수시로 해주었다.

《됐소. 지금까지는 정확한데, 이제 완성작업만 잘하면 문제없겠소.》

《아저씨, 고마와요. 이젠 넘려 마세요.》

처녀의 긍지로운 얼굴을 돌아본 순간 치성은 지나친 간섭으로 하여 그의 자존심을 건드렸음을 깨달았다.

치성은 머리를 끄덕이며 물려났다.

하긴 남의 덕으로 해놓은 일이야 무슨 긍지라. 그래서 탄순이도 이날따라 보다 더 중요한 재품을 맡았다지 않는가. 탄순이의 이 고상한 지향을 높이 사주어야 할것이였다.

그런데, 교대시간이 다 되어, 제품을 검사해나가던 치성은 탄순의 제품이 도면치수보다 작아진 것을 알고 저으기 놀랐다.

금시 머리가 핑그르르 도는듯했다.

(내가 잘못했구나- 완성작업을 할 때에 선반기 옆에서 절대로 떠나지 말았어야 했을것을... 탄순아, 보라. 너의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 끝내 코를 치지 않았는가...)

시비를 캐서는 무엇하랴. 이제야 다 깨진 사발인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인가. 치성은 검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머리를 쳐들었다.

그런데 검사대앞에 서있는 탄순이는 방글방글 웃었다. 그 웃음속에는 자신에 대한 긍지가 한껏 어려있었다.

검사원의 시선을 받은 첫순간 처녀의 얼굴에는 한가닥 그늘이 비졌으나 곧 씻은듯이 사라지고 얼굴은 보름달같이 환했다.

치성은 입술을 깨물고 신음했다.

(아- 저 아릿다운 얼굴에, 아아 나는 왜 하필이면 남의 가슴에 못을 박지 않으면 안되는 이런 직업을 걸머졌더라만말인가.)

치성은 한순간 동요했다.

(만약... 탄순이에게는 합격이라고 해놓고 제품은 규정대로 처리하면 어떨까? 탄순이를 기분 좋게 해서 떠나보낸 다음 내가 대신 깎아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안돼. 소용없어. 탄순이를 위해서는 아무런 교양적가치도 없는 속임수야.)

마침내 그가 입을 열려는 바로 그 순간에 탄순이가 먼저 노래부르듯 말했다.

《검사원아저씨! 저... 이번 일요일.》

《탄순동무!》

치성은 그의 말허리를 잘랐다. 초청의 말이 나올것이 두려웠던것이다.

마치 솜총각이 첫사랑의 고백을 하듯 그는 가카스로 검사결과를 실토했다.

《?! ...》

탄순의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그는 전혀 말이 없었다. 뉘엿이 땅바닥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얼굴을 싸쥐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치성은 그 자리에 우뚝 서서, 탄순이가 사라진 철문쪽을 점도록 바라보았다.

(탄순동무, 나를 원망하지 마오. 나는 동무가 어느때든지 나의 심정을 리해하여줄 때가 있으리라 믿고싶소.)

이날밤 탄순이는 이를 악물고 축을 다시 깎았는데 사색이 짙은 그의 눈에서는 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 했다. 두번째 검사는 밤교대 검사원한테 맞혔는데 에누리 없는 합격이였다고 한다.

공장을 떠나면서 탄순이는 원치성을 만나고 가겠다고 검사부사무실까지 찾아왔으나 그때 치성은 공장안에 없었던것이다. 그리하여 치성의 머리속에는 얼굴을 싸쥐고 밖으로 뛰쳐나가던 처녀의 흐린 모습만이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 3

시집가는 처녀의 그 흐린 모습에 대한 기억은 오래동안 그의 뇌리에서 떨어지지 않았었다.

그러나 이제는 하도 오래전 일이고 또 그러루한 일들이 그뒤에도 없지 않았던터이라 묵은 인상들은 새 인상들에 의하여 가리워지게 되였었다.

그런데 전혀 뜻밖에도 여기서 그를 만나고보니 9년전 옛일이 어제런듯 떠오른것이다.

《여전하시군요.》라는 탄순이의 웃음에 그가 얼굴을 붉히게 된것도 (저 녀자가 그때 일을 아직도 삭이지 못해 그러는게 아닐까?) 하는 추측때문이었다.

(설마 그렇지야 않겠지. 내가 너무 웅졸한게 아니여?) 하고 그는 자신을 나무래여도 보았다. 처음에 반가와하던 그 얼굴을 봐서도 탄순이가 자기를 고깝게 여긴다고 판단할 근거는 없었다.

또 사실상 그가 잘못된것이 무언가?!

그는 한갓 제품검사원으로서 당에서 맡겨준 혁명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을뿐이 아닌가. 만약 그때에 끝까지 원칙을 고수하지 못하였더라면 그는 일생동안 량심의 가책을 면치 못할것이였다.

검사사업에 몸을 적신이후 아직 한번도 용화를 몰라온 그에게 있어서 그것은 변절과도 같은 일이었다.

《아저씨.》

탄순의 부름소리에 치성은 정신을 가다듬었다.  
《노곤규격이 규정에 어긋나는군요.》

《뭐? ...》

탄순이는 미소를 머금은채 노끈을 손가락으로 당겨보인다.

《노끈직경이 삼미리이상 돼야 해요.》

《어, 그런가? ...》

얼굴이 화끈했다. 술한 사람들앞에서 뺨이라도 맞은듯싶었다. 치지가 휘딱 뒤바뀔채 9년전 그날로 되돌아가는가싶기도 하였다.

《그, 그럼... 고쳐해야지?... 이리 보내라구.》

그는 손을 쏙 내밀었다.

탄순이는 눈웃음을 짓더니 꾸레미를 탁상기슭으로 밀어내놓는다.

《됐어요.》

《? ...》

《바쁘시면 가보세요. 아저씨!》

치성은 어정쩡하니 그냥 서있었다.

《참, 령수증.》하고 탄순이는 령수증용지에 몇자 적어서 도장까지 꼭 눌러 내민다. 치성은 기계적으로 그것을 받았다. 령수증까지 받아줬으니 작별하지 않을수 없게 되었다.

《탄순동무, 그럼 수고하겠소.》

작별인사는 그자신에게도 별로 딱딱스레 느껴졌다. 이 순간에 그는 미소조차 보내지 못하였다. 어쩐지 그는 얼굴이 뜨거움을 느끼며 도망치듯 그곳을 나왔다.

식료상점의 유리벽을 따라 치성은 뜨적뜨적 걸음을 옮기었다. 그의 머리속은 복잡했다.

(내 마음은 왜 이리 뻗뻗치 못할까? 내 걸음은 왜 이리 무거울까? 그것은 탄순이가 나를 융화해주었기때문이다. 내가 그 융화를 순순히 받았기때문이다.)

어떤 사람에게는 규정대로만 요구하다가 나에게 눈을 감아주다니?! 교수머리청년이 이것을 안다면 얼마나 분해할까.)

원치성은 얼굴이 달아올랐다. 만약 탄순이가 자기를 융화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부끄럽지는 않았을는지 모른다. 그래서 치성은 탄순이를 책망해보았다.

(세살적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더니 탄순이, 너는 원칙을 흥정하는 못된 버릇을 오늘까지도 고치지 못하였구나. 내 너를 위하여 마지막날까지 원심을 썼건만 아무런 효험도 없었구나.)

치성은 또 자신을 무섭게 질책해보기도 하였다.

(내가 이제 무슨 태도인가. 어제날에는 탄순이와 천분의 일미리를 가지고 다투던 내가 오늘은 그에게서 일미리를 융화받다니?!)

치성은 문득 걸음을 멈추었다. 저앞에 높이 걸려있는 일용품상점간판이 눈에 띄었던것이다.

길옆에 아찔하게 솟은 건물들에서는 수백수천의 창문들이 번쩍이고있었는데 그 모든 창문들은

마치도 커다란 눈이 되어 자기를 내려다보고있는 것만 같았다.

치성은 급히 일용품상점으로 향했다.

상점앞에는 가지가지 일용품들이 저를 먼저 보라는듯 향내를 풍기며 빛을 뿜고있었다. 하지만 그속에 그가 찾는 상품만은 보이지 않았다.

멀리 건능길을 에돌아 건너편 잡화상점에 가서야 끈을 만날수 있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끈은 3미리가 되지 못했다.

《좀 더 굵은것이 없습니까?》

끈을 놓지 못하며 하도 애타하니 판매원처녀가 사근사근하게 물었다.

《어데다 쓰려고 그러세요?》

《소포를 꾸려야 하겠는데.》

《소포면 되겠구만요. 고래힘줄같이 질긴건데요 뭐.》

처녀는 량손에 끈을 잡아쥐고 잡아당겨보이기까지 했다.

《동무도 아직 모르는구만. 소포끈은 삼미리이상 돼야 합니다.》

처녀는 그를 찬찬히 보더니 끈을 걸어가지고 물러가버린다.

원치성은 자신을 다시한번 돌이켜보게 되었다.

(내가 너무나 고지식하지 않은가? 3미리라는 규정도 결국 견고성을 보장하자는데 목적이 있는것인데 고래힘줄같이 질긴 끈이 1미리가 모자란다고 하여 못쓸 까닭이 무어람?)

치성은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아니다. 남들은 하치않게 여길수도 있지만 자기만은 그렇게 할수 없다고 생각하였다. 1미리도 백으로 쪼개여 다루는 직업적인 타성때문이겠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는 언제든지 규정대로 살아야만 마음이 편안하군 하였다.

만약 자기가 이대로 사라져버린다면 이제 공장에 내려가 검사대앞에 설 때 손끝이 떨리지 않을수 없으리라고 그는 생각하였다.

치성은 팔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백화점까지 갔다오느라면 오후강습에 늦어지지 않을까? 이제라도 짐을 도로 찾아오는게 나을까? ...)

《손님, 이거면 되겠나요?》

판매원처녀가 휘장을 들치고 매대뒤에서 나오며 묻는 말이였다. 그의 손에는 포장품에서 풀어난듯 봉인딱지조각이 붙어있는 알맞춤한 끈이 들려있었다.

《예! 그거면 됩니다. 되구말구요!》

치성은 어찌나 기뻐던지 판매원처녀에게 고맙다는 인사조차 제대로 못하였다.

그가 다시 체신소로 들어갔을 때 창구앞에는 손님들이 없었다. 탄순이는 무엇인가 류다른 일을 하느라고 그가 다가서는것을 보지 못한다.

창구안을 엿본 치성은 놀랐다. 탄순이는 다름

아닌 자기의 꾸레미를 손질하고있지 않는가! 불합격끈을 풀어버리고 규정에 맞는 다른 끈으로 동이고있는게 분명했다.

(아- 탄순동무!)

그는 자기의 짧은 생각을 깊이 뉘우쳤다. 미안했다. 축스러웠다. 부끄럽기도 하였다.

(아무렴 그렇겠지! 아무렴 그렇겠지! 그 무슨 힘이 탄순이를 저렇듯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었을까?)

그는 쥐고있던 끈을 바지주머니에 쓸어넣으며 인사를 건넸었다.

《탄순이, 수고하오!》

《아이! 아저씨가 왜 또 오셨어요?》

《탄순이가 보구파서 왔지.》

치성은 저도모르게 꾸레미쪽으로 흘끔 시선을 던졌다. 그러자 탄순이는 꾸레미를 탁상아래에 슬그머니 내려놓으며 별로 어색해한다.

창턱우에 팔굽을 고인 치성은 탄순이를 정겹게 바라보았다.

《나는 동무와 이렇게 다시 만날줄은 정말 몰랐소.》

《저는 꼭 만날것만 같았어요...》

《...탄순이, 그때 일이 생각나오? 동무가 떠나던 마지막 날.》

탄순은 반가운듯 눈을 반짝였다.

《기억나구말구요. 저는 언제나 그날을 잊지 않고있어요.》

《...그때는 내가 너무하지 않았던가?》

《아이, 무슨 말씀을.》

《나는 동무와 작별인사를 나누고싶었지만 일부러 피했소. 나는 동무가 나를 원망하리라고 생각했소.》

탄순이는 실눈을 지었다.

《불론 원망도 했지요. 아무리 원칙적인 아저씨라지만 그날만은 사정을 좀 봐주겠거니 믿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걸 보고 저는 아저씨가 과연 지독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지독한 사람... 하지만 결혼식날 나는 아저씨가 오시지 않나 해서 몇번이나 울밖에 나갔었는지 몰라요... 집을 떠날 때까지 저는 그냥 아저씨를 기다리며 생각해봤어요. 검사원아저씨가 정말 옳다, 저런 검사원이 되기는 쉽지 않아,

다른 검사원이라면 저렇게 못할거야, 그 아저씨라고 왜 봐주고싶은 생각이 없겠어? 직업이 그러니까 그렇지 사실은 어진 아저씨데...오작을 낼가봐 얼마나 원심을 썼댔다구. 오작도장을 치고 나서도 마음이 무척 괴로웠을거야...》

추억에 잠긴 탄순의 얼굴은 처녀시절처럼 아름다웠다.

《저는 아저씨를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인사드리려 했었어요. 그날밤에 축을 다시 깎지 않았더라면 떠나는 내 마음이 절대로 떳떳할수 없으리라는것을 뒤늦게나마 깨달았지요. 그런데 아저씨는 끝내 오시지 않더군요...》

고향을 떠난 뒤에도 가끔, 직장에서나 그 어디에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원칙이 흔들리게 되는 딱한 립장에 놓이게 될 때면 원아저씨의 얼굴이 문득문득 떠오르곤했어요. 그러면 아저씨는 엄한 시선으로 저를 탈선하지 않도록 바로잡아주는것 같았어요. 저는 아저씨가 안내하여주는 그 끈게 뻗은 레루를 따라 오늘까지 거침없이 달려왔어요.》

《!! ...》

치성은 눈시울이 뜨끔했다. 그의 가슴속에서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이 용솟음쳤다.

품질감독원에게 있어서 가장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 어떤 때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1등제품에 합격도장을 누르는 그런 순간이라고 대답할수도 있을것이다.

검사도장을 쥔 이후 그가 체험했던 그러한 기쁨과 행복의 순간은 천번이었던가 만번이었던가.

하지만 그 많고많은 기쁨과 행복을 합치고 합쳐도 오늘, 아름다운 인간으로 성장한 탄순이를 바라보는 이 순간의 기쁨과 행복보다 크지는 못하리라!

뒤에서 발걸음소리가 울렸다.

치성은 더 지체하지 않았다.

《자- 그럼, 탄순이, 또 만나자구!》

《안녕히 가세요. 전, 아저씨...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흐뭇해진 마음으로 문을 나서는데 낮익은 《고수머리》가 눈에 띄었다. 구면친구처럼 눈인사를 보내오며 의젓하게 체신소로 들어간다. 그의 손에는 푸른 공민증이 쥐여져있었다.



## 현실속의 작가들을 찾아서

우리는 얼마전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하여 들끓고있는 벽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자신들을 부단히 혁명화,로동계급화하며 새로운 작품창작에서 커다란 성과를 올리고있는 작가들을 찾아서 먼길을 떠났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늘 로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로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줄 아는, 로동자, 농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여야 하겠습니다.》**

달리는 차창가에 앉은 우리의 눈앞에는 북방의 서수라에서 저 립진강 풍덕벌까지 동해의 앞섬에서 비단섬의 마안도까지, 천길 지하막장과 용광로앞에서, 설레이는 황금벌과 천리어장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함께 땀흘리며 좋은 글을 써나가는 작가들의 미더운 모습들이 떠올랐다.

과연 그들은 지금 당의 문필전사의 영예를 안고 무엇과도 바꿀수 없는 귀중한 생활의 한복판을 어떻게 걷고있으며 성실한 체험의 붓을 들어 무슨 작품을 어떻게 창작하고있을것인가? ...

### 1. 열정의 노래

《열정의 노래》, 이는 작가 김홍무동무가 마지막 추고작업을 하고있는 장편소설의 제목이다.

《소년》호렬차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진 공업도시 영광의 땅에 들어섰다.

이곳 금성프락포르공장에는 작가 김홍무동무가 생활체험의 뿌리를 내린곳이다.

숨은 영웅들이 태어나던(1978년~1979년) 그 벽찬 시기를 그가 장편의 화폭에 담고있다는것을 알고있는 우리의 마음은 지금 그가 무엇을 하고있을가 하는 호기심으로 차있었다.

우리는 기타소리, 노래소리 흥겨운 로동자합숙으로 찾아갔다.

때마침 김홍무동무는 공장이 마주보이는 창가의 책상앞에서 원고작업을 하고있었다. 그는 우리가 들어온줄도 몰랐다.

작업복차림으로 앉아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써가는 그의 뒤모습을 보는 순간 상봉의 감회보다 먼저 1973년 11월 18일 첫눈 내린 《보통강》역두가 떠올랐다.

현지과견장을 받아쥐고 그는 《소년》호렬차의 승강대를 잡고 이윽도록 서있지 않았던가!

(잘 있더라, 평양이여. 내 로동계급의 《열정의 노래》를 안고 돌아오리라!)

10년이요 20년이요 당이 준 혁명과업을 수행하지 못하면 돌아오지 않으리라는 결의가 작가의 굳은 신념이었다.

작년에 우리와 렬차안에서 우연히 만났던 청년은 그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아, 작가동무들이구만요. 저희공장에도 작가 한동무가 와있습니다. 참 저는 초면에 큰 실수를 했었습니다. 텅텅한 작업복을 입은 사람이 이제부터 함께 일하자고 하길래 <어디서 배치돼왔소? ... 몸을 보니 나이가 드신것 같은데 꽤 견뎌내겠소?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로동과에 제기하여 잘 해결받게 좋겠소>라고 했지요. 그러자 그는 <동무, 내 몸이 비록 약하지만 열정이 있소.>라고 대답합니다. 그바람에 나는 그의 어깨를 톡 치며 <열정이 있다구?!>하고 크게 웃었지요. 그런데 그가 작가인줄은...》

청년은 계속하여 작가동무는 《70일전투》의 그 벽찬 나날에 기계바다의 한복판에 《너는 무엇때문에 사는가?》《너는 무엇때문에 일하는가?》라는 선동격문을 써붙여 술한 사람들의 심장을 끓게 한 선동원이였고 전국이 프락포르리대관을 긴박하게 요구하던 그때 혁신운동을 조직하고 결린 고리를 풀던 청년동력대의 모범대원이었다고 했다.

작가 김홍무동무는 우리가 그때 그려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이다. 9년이 지난 이 시각에도 변함이 없었다. 그의 현실체험과 창작은 오히려 더 적극적이고 왕성하다. 말과 걸음걸이에서도 청춘의 열정이 넘친다.

우리의 물음에 대한 그의 대답은 간결하였다. 그것은 자기 작품에 대한 이야기이기때문이었다.

《저는 생활체험과정에 충실성은 반드시 성실성에 혁명적열정이 안반침되여야 한다는것을 강렬히 느꼈습니다.》

《그럼 그것이 종자로 되었겠군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열정의 노래>라고 했지요. 주인공도 첫 프락포르를 만들 때 아버지와 형의 밥보자기를 들고다니던 어린이로부터 오늘은 기사장으로 성장한 기술일군을 선택했습니다.》

우리는 작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기였다.

주인공 김진오가 부르는 열정의 노래는 작가 자신이 시대앞에서 부르는 《열정의 노래》인것이다. 여기에 바로 작가의 고심이 있었다. 시대가 낳은 주인공의 높은 열정의 세계에 자기의 심장의 열도를 앞세워야 하는 그 어려운 투쟁에서 작가는 정신육체적으로 승리했던것이다.

우리는 그와 함께 공장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벌써 공장구내는 락조가 비끼기 시작한다. 구내의 한복판의 작은 휴게실에서 기타소리가 은은히 울려나왔다.

작가 김홍무동무가 초기에 자리를 정했다던 그곳이었다. 여기서 젊은 로동자들은 작가에게 한

곡조 타라고 기타를 권했다. 매일 찾아오던 로동의 벗들이었다. 그들은 공장사업은 물론 사랑문제까지 가지고 찾아오곤 했었다.

《사실 저는 그때마다 그들과 실무적으로 담화나 하다가 보내는것이 파본했습니다. 그래서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지요.》

공장의 저녁에 쿵짝... 쿵짝...  
불타는 창가에 쿵짝... 쿵짝...

은근한 기타의 선율속에서 말을 주고받는 우리의 기분도 날아갈듯 즐거워졌다.

어디서 기타소리를 들었는지 작업복을 걸친 부지배인과 한 녀성일군이 들어왔다.

그들은 그의 소설의 《심의원》들이었다. 가장 린색한 의견을 준 열다섯 사람중의 두명이었다. 특히 녀성일군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불길속에서 함께 싸운 전우이다. 부상당한 그를 간호해준 은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세대들이 이어받은, 조국앞에 바친 전우들이 지녔던 깨끗한 량심과 충성의 열정을 담지 못한데 대한 비판은 작가를 울리었다. 그것은 그를 번민과 고뇌속에 몰아넣었다.

이 모든것이 작가 김홍무동무의 생활이었고 생활이 주는 방조였다.

때문에 지금 작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닌 이곳 주인공들의 의견을 받아 밤을 때며 힘겨운 수정작업을 하고있는것이다.

《반드시 소설은 사건을 먼저 구성하지 마십시오. 종자를 잡고 인간성격의 핵을 쥐면 저절로 엮어집니다.》

이미 그는 《소설을 어떻게 쓸것인가》를 지면에 쓴바가 있지만 이런 말을 하기는 처음이다.

오랜기간 생활체험과 탐구과정에 얻어진 《보석》이었다. 격언이나 속담과도 같은것이였다.

우리는 책이 나올 마지막 날까지 현지에서 쓸 결심을 다지는 작가 김홍무동무의 모습에서 멀지않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 장엄한 시대의 화폭을 보았다. 열정의 노래를 들었다.

노래의 여운을 안은채 우리는 렬차에 오른다. 렬차는 들끓는 생활의 한복판으로 뻗어간 두줄기의 은빛레루우를 줄기차게 달린다.

## 2. 기적소리

온 나라를 보람찬 구내길처럼 달리고달리는 사나이들의 창조의 웨침인가!

정다운 기적소리 울려온다.

《붕!-》

넓다란 조차장 한복판에 덩실 솟아있는 2층 운전사령실 확성기에서 울려나오는 목소리에, 보내고 맞는 기관차들도 정시 무사고운행을 화답하누나.

이른아침, 우리는 평양철도국 서평양기관차대를 찾았다. 마침 그때 시인 박세옥동무는 승무원들과 함께 기관차에 앉아 역구내로 들어서고있었다.

그 렬차는 집중수송렬차 《붉은기》 5093호였다.

이마에 붉은 기발을 그린 렬차는 서서히 멈춰서고 키가 후리후리한 세명의 승무원들이 내리었다.

우리는 철도제복을 입은 그 세사람중에 시인 박세옥동무가 있을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때문에 시인을 찾는 우리가 아니라 먼길을 다녀온 시인이 먼저 우리를 알아보고 달려왔다.

그는 손을 모자채양옆으로 올려 경례를 하였다. 그순간 그의 앞에 굳어진 우리는 코마루가 시큰했다. 시인이 아니라 조국의 동맥을 지켜선 한 로동계급앞에 선 심정이였다.

참말 성실한 생활체험가에게 모든 로동제복이 저렇듯 잘 어울리는 법이다.

그는 저 제복을 입고 조국의 궤도우의 그 어디도 다 갔었다. 외진 산간역의 조역도 만났고 집중화물역의 3대혁명소조원도 만났다.

이미 지면을 통해서 그의 시 《기적소리》, 《조국은 그 마음을 사랑한다》를 읽은바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창작되었는가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속에서 그와 함께 승무조휴제실로 걸음을 옮겼다. 그곳은 곧 시인의 창작실이였다.

거기에서 만난 작업반선동원동무는 우리에게 얼마전에 그가 쓴 동승기가 철도신문지면을 통하여 철도일군들속에서 대단한 반향을 일으키고있다고 말해주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인제는 시인동무도 철도일군이 다 된것 같습니다. 전번 승무를 마치고 시인동무네 집에서 하루 같이 휴식하게 되었는데 밖에서 기적소리가 울리니까 별떡 일어나 창문을 열지 않겠습니까.》

선동원동무의 말은 가슴을 찔다. 바로 생활이란 이렇게 사람들을 고상하고 아름답게 만드는것이다.

우리는 시인의 생활 이모저모에서 그것을 찾아볼수 있었다.

《지금 박동무가 준비하고있는 작품은 어떤것들인지요?》

《저는 지금 제가 그간 체험한 생활중에서 3대혁명소조원에 대한 자료를 선택하여 련시를 만들고있습니다. 제목은 <내가 만난 소조원처녀>(가제)입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보다도 풍부한 생활을 깔고 시를 꾸며보려고 합니다. 초고는 다 썼고 지금은 부족점을 극복하면서 수정하고있습니다.》

자기 작품에 대한 요구성이 높은 그였지만 왜서인지 오늘은 전과는 달리 듣고 의견을 좀 나누자고 하면서 먼 승무길의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조국의 동맥을 지켜선 인간들을 뜨겁게 노래한 구절구절들이였다.

《참, 소조원처녀의 마음이 뜨겁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하자 우리옆에 묵묵히 앉아있던 선동원

동무가

《소조원의 심장 못지 않게 시인의 심장도 뜨겁습니다. 그는 얼마전에 우리 반장동무의 아들때문에 큰 병원에 찾아가 세번씩이나 협의회를 가지도록 방조를 주었습니다. 그날 우리 기관차대의 당지도원도, 영웅기관사도, 로동자들도 그리로 발걸음을 옮기었습니다.》하고 한마디 덧붙이는 것이었다

한명의 기관사를 위하여 나붙었던 벽시도 시인 박세옥동무가 쓴 것이었다. 그것을 그는 의무감에 사로잡혀 쓴 것이 아니다. 성실한 체험과 진지한 탐구는 그를 한자리에 가만두지 않았다. 무엇인가 찾아 부단히 움직이게 하였고 무엇인가 자꾸 웨치게 했다. 그것이 생활체험이고 그것이 시인의 열정이다.

시인은 붓으로가 아니라 심장으로 시를 써야 한다.

독자들은 얼마 있지 않아 시인 박세옥동무의 련시 《내가 만난 소조원처녀》와 반갑게 상봉할 것이다. 그때 그는 우리들을 3대혁명의 기치높이 충성의 한길, 위훈의 한길로 더 힘차게 이끌어줄 것이다.

우리는 그날을 약속했다. 그리고 남행열차에 올랐다. 차창가로 전야가 흘러간다.

하지만 역홈에서 사색에 잠겨 하던 시인 박세옥동무의 말은 잊혀지지 않는다.

《…기관사의 아들딸들은 자기 아버지 기적소리를 압니다. 그러나 나는 아직 내가 타는 5093호의 기적소리를 가려들지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좋은 시를 못쓰는 원인이 거기에 있지요. 하지만 저도 멀지않아 내가 타는 집중수송렬차의 기적소리를 가려들을것입니다! …》

그날은, 그날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 3. 그가 정한 일터에서

눈부신 해빛은 수양산기슭에 자리잡은 공장의 하늘가에 쏟아져내린다.

서해의 파도소리 은은히 울려오는 한낮이다. 곧게 뻗은 구내길에 그늘을 드리워주는 가로수들에 신록이 짙다.

걸음걸음 옮기는 우리의 가슴은 한껏 부푼다. 취할듯 고르로운 기계소리, 구수한 기름냄새를 담은 미풍은 얼마나 좋은가.

류다른 이 봄처럼 만나는 사람마다의 얼굴에 새것을 창조해내려는 희망과 기쁨이 넘친듯싶다. 그들속에는 당일군도, 기사도, 선반공도, 영양제식당아주머니도, 작가도, 배우도 있으리.

하는 일은 서로 달라도 그들이 사는 집은 하나이다. 벽찬 생활이 약동하는 공장의 큰 지붕밑이다. 작가 박사영동무도 해주트락포르부속품공장의 이 지붕밑에서 생활을 체험하고 탐구하고 있다.

우리가 박사영동무가 일터를 정한 기술혁신돌격대 현장의 열려진 철문안에 들어섰을 때는 제관작업이 한창이었다.

육중한 샤프에서 철컹철컹 규격철관은 잘라내

고 그옆에서 곤색작업복차림의 박사영동무가 소재를 련속 섬겨주었다. 희열이 넘친 그의 등그스름한 얼굴에는 구슬땀이 흥건히 내뿜었다.

《박동무!》

그는 이렇게 현장에서 우리와 만나니 더없이 기쁜지 두툼한 병어리장갑을 벗어두고 우리의 손을 덥석 마주잡았다.

얼마간 그들의 일손을 도와준 우리는 잠간 휴식의 한때를 같이하게 되었다.

《박동무는 우리 작업반명단에 오른 <7보충수>입니다.》

공훈기계제작공인 제관작업반장이 하는 말이었다. 그의 말에 의하면 박사영동무는 출근길에는 구내에 첫자욱을 찍으며 퇴근길에는 마지막 자욱을 찍는 사람으로 존경을 받고있다고 한다.

그의 작가작업은 퇴근시간이후부터 시작된다. 로동계급이 꾸려준 현장 《창작실》 창가에 불빛이 꺼질줄 모르는 깊은 밤에 바로 기술혁신돌격대원들의 생활과 성격이 탐구되는것이다.

작가 박사영동무에게는 바로 이 작업이 자기의 하루일과의 가장 힘겨운 로동이다.

박사영동무는 우리와 함께 현장을 걸으며 이렇게 말하였다.

《지금 저는 기술혁신돌격대에서 하고있는 스텝자동흐름선에 눈길을 돌리고있습니다. 이 흐름선은 기사들의 높은 탐구속에서 만들어지고있습니다. 그 세계를 추구하는 과정에 저는 우리 시대 새 인텔리들의 전형을 창조하려고 합니다…

저는 생활체험과정을 통해서 작가들의 현실침투에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이 얼마나 정당한가를 나날이 더 뼈속깊이 체득하고있습니다.》

우리는 호기심을 안고 그의 《작가수첩》을 펼쳐보았다. 거기에는 창작중에 있는 작품들의 제목들과 인물설정을 비롯한 많은 소묘들이 적혀있었다.

그가 택한 주인공은 방금전 그를 작업반의 7보충수라고 하던 공훈기계제작공이며 기사인 제관반장이었다.

또한 그밑에 적어놓은 선반공 리영순이라는 이름도 눈에 띄었다. 저쪽 선반기앞에서 푸른 쇠밥을 튕기며 긴 축을 깎는 처녀가 바로 그였다.

단편소설 《선구자들》(가제)!

단편소설 《영희》!

우리는 소설의 제목을 한번 더 외워보았다. 독자들을 기다리게 하는 제목이다. 독자들의 심금을 울려줘게 될 내용이다.

생활은 기어코 그에게 훌륭한 작품을 선물할것이다.

속보관의 한 자리에 올라있는 박사영동무의 진지하고 성실한 노력은 어찌 독자들을 기쁘게 하지 않으랴.

이윽하여 우리는 이곳 로동계급과 작가 박사영동무의 배웅을 받으며 벽찬 생활이 약동하는 현장, 보람찬 그의 일터를 나섰다.

구내에 내리는 해빛은 더욱 눈부시다.

은은한 기계소리, 파도소리는 가슴가슴에 긴

여운을 남긴다. 기다려달라는듯... 기다려달라는듯...

#### 4. 로동의 벼들이 들려준 이야기

강선제강소 인발직장은 보기만 해도 가슴벅차다. 긴 바줄같은 시뻘건 강관들이 더운 바람을 일으키며 끝없이 흘러가고 흘러온다.

황혼녘의 압연장은 쇠물빛 노을속에 황홀경을 이루었다.

직장사무실에서 직장장동무를 만난 우리는 그만 실망하고말았다. 우리가 찾아온 시인 계훈동무는 어디엔가 가고 없었던것이다.

우리의 섭섭해하는 기색을 본 그는

《계훈동무가 없으면 뭘합니까? 우리가 그를 대신해주지요.》하고 웃는것이였다.

《대신하더니? ...》

그러나 우리의 의문은 인차 풀리였다. 그들은 계훈동무자신보다도 그를 더 잘 알고있었으며 그가 하고있는 좋은 일들을 그 자신보다도 더 많이 알고있었다.

《우리는 벌써 6년동안 함께 생활합니다. 이고장태생이여서인지는 몰라도 참으로 말이 적고 성실한 동무이지요. 물론 생활에서 모범일뿐만 아니라 특히 현장에 어려운 일이 제기되었을 때는 어떻게 아는지 한밤중이라도 꼭꼭 나타나군합니다. 우리 압연공들은 거기서 큰 충격을 받고 힘을 얻습니다.》

직장장동무는 진심으로 말했다.

사실 그랬었다. 그는 자신을 당원으로, 작가로 키워준 제강소를 마음속에 안고 사는 사람이였다.

그가 당의 배려로 전문교육을 받고 시인으로서의 첫자욱을 내디딘곳도 바로 여기 쇠물빛 노을속이였다. 그가 좋은 글을 많이 펴내고있는 시의 저수지도 바로 여기 쇠냄새 풍기는 강철로동계급의 생활속이였다.

우리는 직장장동무와 이야기를 나누며 청년들이 일하는 인발기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서 만난 젊은 사로청위원장동무는 보안경을 이마우로 번뜩 올려밀고 사람 좋게 말하는것이였다.

《우리는 시인동무의 첫 독자입니다. 아마 <증오의 노래>, <용해공의 어머니>도 우리가 제일먼저 읽었을것입니다. 첫 독자라는 의미에서 긍지가 큼니다. 때문에 우리는 작업반휴제실에서 벌어지는 합평회에 적극 참가하지요. 글썄 이웃직장 사로청원들도 찾아오군합니다. 그는

우리의 심정을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다가 시줄에 담고있습니다.》

우리는 사로청위원장동무의 이 말에서만도, 계훈동무의 창작태도와 옹은 자세를 능히 엿볼수 있었다.

문득 우리의 머리속에는 이미 그가 써서 발표한 시 《강철지구의 인사》의 한구절이 떠올랐다.

.....

내 고향 강철지구 찾아오는 동무들이여

부디 우리에게 인사말 따로 하지 말고

쇠물을 두고 물어다오

우리는 쇠물이란 말 떠나 다른 인사 몰라라

이 한편을 통해서만도 생활을 뜨겁게 대하는 시인의 진정을 명백히 느낄수 있는것이다. 그가 시 한편에 기울이는 노력을 여기에 다 적을수는 없다. 진지한 탐구정신은 야삼경에도 그를 용해장으로 불러내며 책상앞에서 꼬박 새날을 맞게도 한다.

우리는 공장정문앞에서 우연히 만난 한 문학통신원동무의 안내를 받아 제강소문학소조실에 잠깐 들리였다.

문학소조벽보 《강선의 노을》에 문학통신원들의 작품과 계훈동무의 시가 나란히 붙어있었다.

문학통신원들의 작품을 자기 작품처럼 아끼고 도와주는 그의 숨은 노력을 구태여 더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 문학통신원동무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다.

《지금 계훈동무는 서정서사시 <달밝은 강언덕에...>를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는 당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이 작품을 끝내기 위하여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있지요.》

《그는 훌륭한 작품을 꼭 써낼것입니다. 그럼 계훈동무에게 시를 훌륭히 완성하기를 바란다고 우리의 부탁을 전해주시지요.》

우리는 거리에 나섰다. 제강소의 하늘가에 밤노을이 곱게 피어난다.

...렬차에 오른 우리의 눈에는 멀리 달마산하늘가에 피여오른 쇠물빛 밤노을이 보이였다.

(다음호에 계속)  
본사기자 최봉무

# 민 음

박호섭

## 1

불의에 닥쳐온 첫추위는 사람들에게 솜옷을 입게 하였다.

솜옷중에서도 제일 두툼한 데트론솜옷을 입은 정인범은 잣은기침을 하면서 누런 락엽이 성기게 널린 마을길로 무겁게 걸어갔다.

그는 방금전에 리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것!》이란 진단을 받았던것이다.

젊은 시절에 얻은 상처로 하여 환절기마다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그 주의사항을 어기고 비류강기슭에서 이틀밤을 새우며 새땅찾기전투를 무리하게 지휘한 후과였다.

책임적인 직무와 54살이라는 나이, 그리고 굵힐줄 모르는 성격을 지닌 그였기는 하였지만 독감앞에서는 그도 어쩔수가 없었던것이다.

그는 입원준비와 사업인계를 리유로 얻은 하루밤의 여유를 어떻게 효과있게 리용할것인가를 이모저모로 타산하면서 리당사무실앞에 이르렀다.

애꿎은 신발털개에다 분풀이를 하듯 신바닥을 털고 현관에 들어서던 그는 주춤 걸음을 멈추었다.

현관에 놓여있는 손님용대기의자에는 40대의 사람인 관리위원장이 담배를 피우며 앉아있었다.

그가 기다린 시간과 그리고 담배들 즐기는 그의 성미를 말해주는듯 그의 앞에 놓여있는 모래가 담긴 절구통모양의 큰 사기재털이에는 다섯개의 똑같은 풍초가 말뚝처럼 꽂혀있었다.

《어서 들어갑시다.》

정인범은 배치되어온지 1년밖에 되지 않는 젊은 관리위원장이 마음속 고충이 있을 때마다 바로 이 현관의 대기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운다는 것을 알고있었다.

두사람은 함께 《리당비서실》이란 문패가 붙은 방으로 들어갔다.

《한대 피우십시오!》

풍채가 좋고 폐절이 밝은 관리위원장은 리당비서가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는것을 잘 알면서도 담배갑을 책상위에 꺼내놓았다.

《어서 피우십시오.》

그제야 관리위원장 배운집은 담배가치를 끄집어내어 능숙하게 불을 붙여물었다.

담배가치를 켜 그의 손가락짚은 노랑게 담배진이 배였다.

《다름이 아니라 유종림이때문에...》

배운집은 담배연기를 길게 내뿜리면서 말꼭지를 떼었다.

《유종림이요?》

유종림은 9작업반의 반장이다.

《그 동무가 이번에 큰 일을 저질러놓았습니다. 배추를 100톤이나 얼거렸지요. 공명주의를 부리면서 남새수확을 앞당기라는 지시를 깔구앉았다가 그래냈습니다, 잘못은 그렇다치구 그에 대해 좀 되게 비판을 하였더니 잘못했다고 한마디 남기고는 나한테 얼씬 얼굴두 내밀지 않지요. 전에 두 군에서 김매기검열을 나오겠다고 할 때 길센부터 먼저 손질하랬는데 안쪽이 가물을 더 탄다면서 말을 듣지 않더니...》

작업반장이란 사람이 관리위원장에게 순순히 굽어들지 않으면 농사를 잘 지을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좀 단단히 버릇을 떼자는겁니다.

일을 잘한다구 민구 칭찬만 해왔더니 변질했지요. 칭찬이란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일을 가르친다는것을 나는 이번에 절실히 느꼈습니다.》

이마에 가로지른 굵은 주름살과 주먹처럼 두드러진 배운집의 관골은 그가 말할 때마다 살아나군하였으며 《일》이란 말을 외울 때마다 그의 억양은 각별히 높아지는것이였다.

정인범은 아무런 예고도, 준비도 없이 불의에 급소라도 맞은 사람처럼 당황하였다.

유종림은 그가 오래전부터 믿어주고 남다른 관심을 돌려준 사람이였다. 그는 젊은 관리위원장에게도 유종림은 좋은 사람이며 성실한 일군이라고 늘 말해준 사람이였다.

《비서동문 전쟁의 어려운 때에 그 동무를 데리고있었다지요?》

들리는 말에는 그때 그 동무가 무슨 큰 말썽을 일으켰다는데 그 문제를 알고싶어 왔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 사람들의 본질적인 진면모가 나타나는게 아닙니까.

그걸 알아야 그 동무를 바로잡아놓을수 있으니 까요.》

미처 말을 맺기전에 거듭 담배연기를 들이빨고 있는 그의 거동은 그가 유종림이때문에 얼마나 속을 태우고있는가를 말해주는것이였다.

《그래서 그 동무를 더는 믿기 어렵단말이겠지요?》 정인범은 마치 자기가 큰 죄라도 저지른듯, 자기의 책벌문제라도 제기된듯이 겁에 질려 물었다.

《그를 전면적으로 밝혀놓지 않으면 더 큰 잘못을 저지룰수 있습니다.

그를 엄격히 꾸짖는건 필요한것이고 또 우리 일을 위해서도 그래야지요. 필요하다면 그가 지난 시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두 새롭게 느끼

게 하여야 하는거지요... 그가 믿음을 도용한건 용서될수 없는게 아닙니까...》

새 담배가치에 불을 옮기면서 배운집은 부드럽게 말하였다.

그러나 그 부드러운 말속에는 결코 부드럽지 않은 뜻이 담겨져있다는것을 정인범은 육감으로 느끼었다.

마치 배운집이가 피워문 그 담배불꽃이 가슴에 와닿기라도 한듯 정인범의 속은 뜨겁게 확확 달아올랐다. 사람들의 문제가 제기되면 그는 늘 자기의 문제처럼 흥분하곤하였다.

그 흥분때문에 그는 남달리 마음을 더 많이 쓰면서 살아왔고 또 그 때문에 더 많은 땀을 바쳐왔다.

유종림! 그도 바로 정인범이가 아끼고 사랑하는 리내의 당원들중의 한사람이었으며 오래전부터 함께 일해온 그의 옛친우였다.

자기가 가르쳐온 사람에 대하여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던 관심을 가지고 그에 대해 끝까지 책임질것을 결심하고있는 정인범에게 있어서 당원 유종림은 각별한 존재였다.

그것은 유종림이가 오래전에 파오를 저지른 사람이라는데 그 원인이 있었으며 그가 그 파오를 스스로 씻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다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

정인범은 유종림이가 농장총회의 보고서와 속보판에 자주 이름이 오르고 사람들이 그를 칭찬하는 말을 들을 때면 남달리 기쁘고 만족했었다.

그런데 그에게 갑자기 공명주의가 생겨났다는 것이 아닌가?

믿을수 없는 일이었다. 믿어지지 않는 일이었다.

그러나 9반에서 남새를 100톤이나 열구었다는것은 그도 알고있는 엄연한 사실이다.

정인범은 한생을 두고 심열을 기울여 쌓은 탑이 무너져내리기라도 한듯 허전하였다. 배반을 당한듯 분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스스로의 발목을 비끄러매놓은 때처럼 안타깝기도 하였다.

(내가 그를 믿기만한것은 사랑이 아니었던가?)

정인범의 마음속에서는 어느새 이런 생각이 움터나기 시작하였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마음속 변화를 감추고 말하였다.

《알만합니다. 위원장동무! 그런데 지금 꼭 그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까? 나한테 시간을 좀 주지 않겠습니까?》

정인범의 말을 듣자 배운집의 넓은 얼굴에는 화색이 돌았다..

《알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니 되새겨볼 시간이 필요할겁니다.》

바라고 온 뜻을 이루기라도 한듯 관리위원장은 선뜻 일어서 나갔다.

무엇에 홀린듯 자기의 그림자를 내려다보며 우

두키니 서있던 정인범은 서류장쪽으로 걸어가서 그밀에 달린 서랍을 끄당겼다. 그 서랍에서는 여벌로 구해둔 안경과 평양에서 사온 만년필, 전지약 그리고 외국에 가있는 친구한테서 온 편지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그는 이 서랍을 뒤적이다가 맨 밑바닥에 놓여있는 상아물부리를 꺼내었다.

아직 한번도 담배가치를 끼워본적이 없는 새물부리였다.

그는 자기가 무엇때문에 이 상아물부리를 여기에다 건사해두고있었으며 또 어찌하여 지금 이것을 생각했는지 알수 없었다.

상아물부리? 이 물부리에는 잊을수 없는 사연이 깃들어있었다.

지금으로부터 30년전, 바로 정인범이가 고통을 겪고있는 지금의 질병과 상처를 가지게 된 1950년 초겨울의 일이었다.

그때 인민유격대의 독립중대를 지휘하고있는 정인범은 전투에서 심한 부상을 당하고 농가에서 치료를 받았다.

참으로 어려운 때였다.

쌀은 적었고 소금은 떨어졌다. 담배를 피워본지는 아득하였다.

나다니는 사람들과는 달리 종일 누워있어야 하는 부상자에게는 담배를 못피우는것이 소금을 못먹는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었다.

언젠가는 너무도 담배를 피우고싶어 마른 호박잎을 바스어 남몰래 몇모금 피운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이 크나큰 일을 저지를줄 누가 알았으랴.

그 일은 그가 호박잎담배를 피운지 바로 한주일후에 있었다.

습격조를 데리고 나갔던 유종림이가 돌아오지 않는것이다. 승리하고 돌아온 습격조원들의 말에 의하면 유종림은 귀로에서 자기는 중대장한테서 특별임무를 받은것이 있다면서 떨어졌다는것이다.

유종림은 이틀후에야 돌아왔다.

그의 옷은 심하게 해졌고 몇군데 상처까지 입었다.

《무슨 일이요? 어디 갔댔소?》

《주구놈의 잡화상을 하나 쳤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서야 정인범은 유종림이가 해방전에 잡화상의 밑에서 갇은 모욕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왔다는것을 생각했고 자기의 개인적복수를 위해 혼자 떨어졌다는것을 알았다.

《그래, 그것이 내가 준 특별임무요?》

《.....》

《왜 말이 없소? 동무는 우리 중대의 규률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단말이요. 그리고 동무는 상급의 신임과 믿음을 도용하였단말이요!》

동문 이것이 용서할수 없는 일인줄 몰랐소?》

《.....》

지휘관의 뜻밖의 태도에 놀라서인지 아니면 자기가 저지른 잘못의 크기를 비로소 알아차려서인지 유종림은 대답을 못하였다.

《동무는 부대앞에서 벌을 받아야겠소!》

그때 정인범은 이렇게 말했었다.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대로 실행하였었다. 그에게는 그럴수 있는 응당한 권한이 부여되어있었다. 그는 중대를 정렬시키고 규률위반자인 유종림을 전투대오에서부터 로인들로 무어진 후방조로 보낸다는것을 선포하였었다.

그날밤 정인범은 우연히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가 이상한것을 끄집어내었다.

그것은 두박의 골연과 반짝거리는 새 상아물부리였다. 누가 주머니에 넣은것인지 정인범은 대뜸 짐작하였었다.

가슴이 뛰고 또 뛰었다.

누구때문에 유종림이가 규률을 위반했는가를 말해주는 증거였다.

(잘못은 나에게서부터였구나!)

이렇게 단정한 그는 주머니속에서 나타난 그 담배를 부대의 동무들에게 나누어 피우도록 주었고 물부리는 건사해두었다.

그는 그때부터 담배를 끊어버리었다.

그러나 후방부대에 간 유종림은 한번도 그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유종림이가 모든것을 옳게 깨달았을것이라고 생각하였으며혁명규률에 끝까지 충실할것이라고 믿었다.

전쟁이 끝난뒤에 그는 군당지도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유종림은 협동농장의 농장원이 되었다. 몇번 군에서 만난 일이 있었지만 서로가 깊은 사연에 대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는 유종림이가 농장에서 일을 잘하고있으며 분조장을 거쳐 작업반장으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은근히 기뻐하였었다.

그는 농장의 책임적인 사람들을 만나면 그를 잘 돌봐줄것을 부탁하였었다.

얼마후 정인범은 바로 유종림이가 일하는 농장의 리당비서로 임명되었다.

그가 임명되어온 그해 봄에 풍교롭게도 유종림이네 작업반에서는 소 한마리를 죽이였다. 후치질의 기일을 앞당기겠다고 너무 혹사시킨 후과였었다.

농장적인 사고심의회가 벌어졌고 작업반장과 관리자를 포함한 몇몇 관계자들에게 변상문제가 제기되었다.

일은 변상문제로만 끝나지 않았다. 이것을 엄격히 취급할것을 주장하는 몇몇 일군들로 하여 작업반장의 자격문제까지 논의하게 되었다.

그때 정인범은 그 일군들앞에서 이렇게 말하였었다.

《동무들! 변상을 시키고 비판을 주는것은 옳지만 그의 경우를 교의적인것으로 보는건 다시한번 생각들해봅시다.

내 의견은 그를 믿자는것입니다. 믿읍시다. 믿어야 합니다!》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리당비서와 한 당원! 그들사이의 관계는 믿음으로 이어져왔었다.

그런데 그 당원이 마침내 더 큰 일을 그르친것이 아닌가?

정인범은 상아물부리를 쥐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방안을 거닐고 또 거닐었다.

(배추수확고를 높여서 자기의 얼굴이나 내기 위해 모험을 하면서 지시를 어기다가 그렇게 만들었다단말이지? 그런 공명심때문에? 비판을 좀 받았다고 관리위원장앞에는 나타나지도 않는다? 어떻게 그럴수 있는가?)

벽시계의 시침은 9자를 가리키고있었다.

(가자, 가보자! 그에게서 생겨난 그 공명심을 뿌리채 뽑아줘야 해!)

## 2

깜박이는 못별들이 희미한 빛으로 땅우의 모든것을 조심히 어루만지는 밤이다.

고르롭지 않은 길을 따라 전조등을 가진 자전거가 구배길을 달리고있었다.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에는 적당치 않은 밤이건만 정인범은 그냥 바빠 자전거의 배달을 밟았다.

배스가 다닐수 없게 되었을 때이면 실오리같은 수로둑의 지름길로 자전거를 타고 군으로 다니어서 《자전거선수》라는 말을 들은 정인범이었지만 지금은 그에 대한 그 모든 칭찬이 한갓 거짓이라는것을 말하는듯 자전거는 술취한것처럼 기우뚱 거린다.

등골로 흐르는 땀과 솟아오르는 기침이 가끔 그의 전진을 방해하였었다.

그를 방해하는것중에서도 제일 큰 방해자는 머리속에서 번거롭게 감겨도는 후회와 뉘우침이였다.

(내가 그를 너무 믿은것은 무원칙한 일이였다. 너무 믿어주었기때문에 그가 또 잘못을 저지르게 아닐가! 끝없는 질책과 꾸짖음, 채찍질만이 그를 옳게 이끌수 있는것이 아닐가!)

사람을 믿어야 한다고 철석같이 외워온 그에게 있어서 이 생각은 지난시절의 모든 신념을 한꺼번에 뒤엎을듯한 가장 무서운 번뇌였다.

그것은 온몸의 번열과 두통을 포함한 육체적이고 통보라도 몇배나 더 큰 아픔이였다. 바로 그 피로때문에 그는 뜻밖의 불행에 빠지고말았다.

어둠을 불안스레 누비며 구배를 달리던 《제비》가 내림받이를 미끄러져내리다가 모진 돌부리에 걸채이면서 길섶으로 나동그라진것이다.

주인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온 자전거가 처음으로 주인을 배신한것이였다.

만약 어느 알뜰한 농장원이 발머리에 모아세운

강냉이짚가리만이 아니었다면 그는 큰 부상을 당할번하였다.

그는 얼마만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자기처럼 모재비로 넘어진 자전거를 일으켜세웠다.

자전거는 별로 상한데가 없었지만 자전거의 주인인 정인범의 왼쪽다리는 짚을 때마다 심하게 시큰거렸다.

그는 자전거에 몸을 반쯤 의지하여 바퀴를 굴리면서 절름절름 걸어갔다. 자전거를 밀며 얼마를 가다가는 멎어서서 무릎을 주무르곤하였다.

이렇게 거듭하면서 삼각길 갈림목에 이르렀을 때 달구지 한대가 나타났다.

덜커덩거리면서 굴러오는 달구지에는 호미자루, 낫자루, 망치자루감따위의 물푸레나무단들이 반남아 실려있었다.

《이게 누군가? 비서가 아닌가. 이밤에 어딜 가나? 다리는 왜 저나?》

멍에를 멘 소의 고삐를 쥐고 누령소굴에서 따라오던 로인이 달구지를 멈춰세우고 반색을 하였다

9작업반에 사는 《자고로》란 별명을 가진 소래빈로인이었다. 딸 일곱을 낳아 죄다 시집을 보내고 량주가 오복이 살고있는 로인이었다.

《9반으로 가는길입니다. 반장동무를 만나보려구요. 아저씨는 어디 갔다가... 이렇게?》

아버지와 친형제처럼 지낸 소래빈로인을 정인범은 어려서부터 아저씨라고 불렀다.

참으로 그들은 오래동안 한동리에 살면서 깊이 정이 든 사이였다.

《고령산에 갔댔네. 자고로 짹짹이 바람쏘일겸 올라갔다가 해놓은것을 실어오는길일세... 자고로 티끌모아 큰산이라더니...》

그런데 비서는 자고로 부비서랑, 지도원이랑 젊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나이에 밤길을 자전거로 다니나? 반장을 부를수도 있는데...》

《자고로》로인은 정인범이가 자전거에서 굴러갔다는것을 대뜸 짐작하고 타이르듯 나무랐다.

《아닙니다. 제가 가서 만나야 할 일입니다.》

정인범은 어물어물 변명하였다.

《자고로》로인은 달구지의 앞자리에 놓인 물푸레나무단을 비껴치우고 자리를 만들었다.

《어서 올라왔게! 자전거는 여기에 실구...》

《아, 아닙니다!》

뜻밖의 권고에 정인범은 어쩔줄 몰라 손을 내저었다.

《고집을 너무 쓰지 말라구! 임자는 달구지를 타는걸 무척 좋아했지? 자고로 그렇게 건다간 밤새 가야 할걸세.》

《아닙니다. 일없습니다. 어서 감시다 아저씨!》

정인범은 굳이 거절하였지만 《자고로》로인은 자전거를 앓다싶이하여 달구지에 올려실었다.

별수없이 정인범은 달구지에 올라앉았다.

《단단히 붙잡으라구!》

이렇게 한마디 훈시를 하고서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자고로》로인은 조심스레 소고삐를 나눠채었다.

달구지는 덜커덩거리면서 굴러갔다.

그의 몸이 흔들릴 때마다 하늘의 별들도 흔들리었다.

《덜크렁, 덜크렁...》

어둠속으로 굴러가는 달구지의 바퀴소리. 그 소리는 이상한 추억을 불러왔다.

그는 마차우에서 태어났고 달구지우에서 자라왔다. 먼 북방의 방랑객이었던 아버지는 어머니를 너무도 일찍 잃은 아들을 계모의 손에서 자랴우고싶지 않아 자기의 원목 실은 달구지에 태우고 다녔다.

맨발로 아버지를 쫓아다니다가 달구지를 타면 그는 온 세상을 타고갔은듯이 흥겨웠고 가고싶던 하늘의 별이라도 가는듯 기쁘지 않았던가.

너무도 오래전에 헤어진 그 생활, 그러나 세월도 지워버리지 못한 그 추억은 그에게서 너무도 생동한 일이었다.

이런 밤엔 《자고로》아저씨가 추억의 노래라도 한마디 해주었으면싶었다. 그러나 로인은 뒤를 돌아보지 않고 누령소와 나란히 걸어갔다.

《아저씨!》

정인범은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고집을 쓴 탓에 《자고로》로인이 화를 내는것이라고 생각하고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로인은 대답은커녕 돌아보지조차 않았다.

《아저씨!》

정인범은 또 한번 불렀다.

어려서부터 그는 로인을 이렇게 불렀었다.

그만이 아니라 온 동리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불려온 이름이다. 아는것이 많고 옛말도 많은 로인...

머나먼 어제날 멍석이 깔린 그의 집 토방에서 모기쑤이 타는 밤이면 모여온 동리의 늙은이와 젊은이들, 녀인들, 아이들과 함께 그도 로인의 옛말을 들었다.

《...자고로 한 옛날에...》

로인의 이야기는 매번 이렇게 시작되곤하였다. 용감한 장수가 나오는 이야기, 귀신이 사람처럼 말도 하는 이야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기적들도 담겨진 그 이야기들은 무섭기도 하고 재미도 났으며 용기도 솟구치게 하였었다.

《아바이! 왜 이젠 달구지를 젊은사람들한테 맡기시지요... 이젠 젊은이들을 너무 괴롭히는것입니다.》

정인범은 소래빈아바이가 쉬는 날이 없이 도끼자루와 호미자루감을 해오고 찌리비를 해다가 농장에 바치고 집둘레에 호박을 심어서 수확하면 축산반으로 실어간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임자도 이제 한 10년쯤 더 있어보라구. 손에서 일을 뺏는건 결국 목숨을 뺏는거야!》

《자고로》로인은 통명스럽게 대꾸하였다.

로인을 위안하고 안심시킨다는것이 그만 더 아픈데를 건드려놓았다는것을 알고 정인범은 미처 대답을 찾지 못하였다.

《임자들이 우리 수령님의 뜻을 옳게 받들자면 늙은것들을 방안으로 들여쫓을것이 아니라 믿어야 하네. 자고로 힘이 있구 용기가 있구 또 어깨가 있다는것을 믿어야 하네. 자고로 젊었을 때처럼, 그러구 끝까지말이야!》

《자고로》로인은 이렇게 말하고는 공연히 소잔등을 채찍으로 철썩 갈기였다.

정인범은 자신의 등에 그 채찍이 내린듯 흠칫 놀랐다.

여기서 화제는 또다시 끊기였다.

《비서! 임자는 잊지 않았겠지? 전쟁때일말이야!》

이번에는 소태빈로인이 먼저 말머리를 떼었다.

《제가 그걸 왜 잊겠습니까? 전쟁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그 시절을 영원히 잊지 못할겁니다. 그때 아저씨는 우리 중대의 후방조를 책임지고 소달구지로 무척 수고를 하셨지요. 저두 부상을 당하구 그때 아바이의 달구지에 실려간 일이 있는데... 또 오늘밤에 아바이의 달구지를 탔구만요.》

《내 수고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네. 비서가 종림이를 찾아간다니 하는 말이네만 자고로 그 사람은 벌을 받구선 우리한테 와서 일을 잘했네! 자고로 그때 난 사람이 벌을 받으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걸 알았지. 난 그저 그때 임자가 다른데루 조동되지만 않았다면 자고로 그를 다시 전투부대로 보냈으면 했었네.》

그런데 그 친구는 임자가 떠난뒤에 아예 우리한테 주저앉고말더군... 자고로 난 임자를 나무랐다니까. 지나친 사람이라구...자고로 남의 운명을 끝까지 책임질줄 모르는 사람이라구...

아마 임자가 떠나기전에 그를 전투부대에 다시 배치하였대두 자고로 난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했을거야.

그후 임자가 나를 만날 때마다 유종림이에 대해 자고로 관심하는걸 알구서는 생각이 달라졌네.

종림이네가 소를 죽이었을 땐 자고로 반장자리를 내놓게 될거라구들 생각했지. 그런데 임자는 그 사람을 믿어주더라말이야.

나는 속으로 내가 사람을 잘못 생각했구나, 자고로 자칫하면 좋은 사람을 욕할뻔했구나 하구 뉘우쳤네 ...》

《아저씨!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제가 잘못된것 같습니다. 그를 믿기보다는 그를 혹하게 꾸짖었어야 옳았을겁니다.》

《그건 잘못 생각이야! 자고로 자네답지 않은 말이군! 자고로 그건 인간을 귀중히 여길줄 모르는 사람의 말이야, 그건 물론 쉬운 방법이지. 자고로 그런 쉬운 방법으로 사람을 다루는건 좋지 않아. 일을 위해서, 일의 성과만을 생각하면서 사람에게 대해서 쉽게 결심을 내리는건 더욱 재미없구...》

더우기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고로 대중의 신임을 받고있는 사람이 그러면 안되지...》

로인은 마음속깊이에 아껴둔듯한 말로 정인범을 타이르는것이였다.

정인범의 가슴엔 전류라도 흘러드는듯 찌르르 하였다.

《아저씨! 그러나 현실은 사람을 엄하게 취급하는것이 필요하다는걸 증명하고있거든요. 유종림이가 자기의 이름을 한번 떨쳐보겠다고 하면서 상급의 지시를 고의로 어기고 배추를 얼궂놓은건 옛날 버릇때문일수 있습니다.》

세살적버릇이 여든까지 간다는 말도 있는데요. 내가 그를 뺱혹히 질책했다면 저는 이 밤길을 가지 않을수도 있었을것입니다.

아저씨! 전 다시는 사람들을 그저 쉽게 믿지 않으렵니다. 믿기만 하는건 사랑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믿음 한가지만으로는 사람을 책임질수도 사랑할수도 없거든요.》

정인범은 흥분하였다.

배반당한듯한 모욕감과 믿었던만큼 실망이 더 커진 마음속 감정때문이였다. 여직까지 유종림이가 일을 잘한다는 그 한가지 리유로 만족하고 기뻐한 뉘우침까지 덧쳐졌다.

자기가 옳으며 이 길에서 변함없으리라던 그 모든 자부심이 한낱 허위이며 부질없는 속단에 불과했다는것으로 하여 가슴이 아프고 쓰리고 자신이 혐오스럽기까지 하였다.

정인범의 흥분한것을 알아차려서인지 아니면 그의 그 모든 말이 한마디도 틀리지 않는다는 뜻에서인지 소태빈아바이는 말이 없었다. 달구지는 덜컹거리면서 굴러갔다.

하늘에서는 별찌가 길게 붉은 줄을 동남쪽으로 그으면서 창공을 반으로 갈라놓았다.

《왜 대답이 없습니까?》

정인범은 다그쳐물었다.

《내가 무슨 대답을 할것이 있겠나. 자고로 내가 임자앞에서 할말이 있다면 부락을 성실히 리행하지 못한 가책뿐인데...》

자고로 내가 반장에게 활창대와 말뚝감을 실어다주고 때로는 그와 같이 일하면서도 임자가 말하는 그런 점을 보지 못했으니, 자고로 나야 눈이 어두운셈인데, 늙었다니까...

임자도 늙는것 같네! 언제가도 늙지 않을것 같은 자네가... 의심을 많이 품는건 늙었다는 징조 거든.》

로인은 잠시 말을 끊고 나직이 한숨을 쉰 다음 말을 이었다.

《사람은 한생을 살면서 많은것을 남겨놓고 가지. 남겨놓은것들중에서 가장 귀중한건 바로 사람에 대한 옳고 정확한 평가일세!

아니 옳게 사람을 키워놓은것이지.

그런데 난 그럴만한 일을 못했거든…》

로인은 혼자소리처럼 말하였지만 그 말은 정인법의 가슴을 이상하게 건드렸다.

로인의 말뒤에 숨어있는 그 속대사의 뜻때문인줄 정인법은 어렴풋이 느끼었다. 그러나 그는 《자고로》로인의 말을 긍정할수가 없었다.

어둠속에서는 부끄러움을 타는 밤서리가 선득선득한 기운을 풍기면서 내리고있었다.

《자 다 왔네! 저 종림이네 집엔 불이 켜졌군! 자고로 난 길 넓은 여기서 달구지를 돌려야 하니까…》

정인법은 달구지에서 내리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아저씨!》하고 인사를 남기었다.

유종림의 집에서 그를 맞아준것은 잠자던 일곱살짜리 사내애였다.

### 3

《아버지는 어디 갔니?》

《…?》

선잠에서 깨어난 유종림의 막내아들은 아버지처럼 큰 눈을 습벽이면서 미처 대답을 못하였다.

정인법은 어수선한 방안을 한바퀴 돌아보았다. 방안에는 책들이 어지럽게 뒤엉켜져있었다. 반쯤 미달이가 열려져있는 옷방은 너무도 란잡하였다.

책상에도, 방바닥에도 더미져 쌓였거나 갈피가 접힌 각가지의 크고작은 책들이 무질서하게 뒤 널려있다.

그는 옷방 문지방의 걸상에 걸터앉았다. 그리고 정돈되지 않은 방안을 휘둘러보면서 집에 찾아온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차리고 반가운 뜻으로 코를 벌름거리는 소년에게 넌지시 물었다.

《아버지는 어데 갔다구?》

《…우리 아버지 일하러 갔어요!》

《어디에?》

《터밭에요.》

《터밭에?》

정인법은 갑자기 가슴에서 무엇이 툭- 떨어지는것을 느꼈다. 마지막으로 기대고있던 담벽이 무너져버린듯 마음이 허전해졌다.

관리위원회에는 나타나지도 않고 밤에는 자기의 집 터밭에 나가서 일한다?

정인법의 가슴에서는 분기가 욱 치밀어올랐다.

(…관리위원장이 나를 찾아온것은 정말 잘한 일이군! 그가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히 유종림을

바로 리해할수 없지 않았는가?

단단히 꾸짖으리라. 전에는 말하지 않았던 모든것을 죄다 말하리라!)

정인법은 솟구쳐오르는 열기에 목이 메여 심히 기침을 하였다.

《그래 터밭은 어디냐? 너 나를 좀 가르쳐주지 않으련?》

정인법이 그냥 오뚝 서있는 어린 소년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저쪽 골안이야요. 길루 가다가 오른쪽에 있는 거요. 나랑 같이 가자요.》

소년은 양말을 신지 않은채 길안내자가 되려고 하였다.

《그만두거라, 내 혼자서 가지.》

정인법은 잠기를 채 쫓아버리지 못한 소년을 놀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소년이 가르쳐준 방향으로 걸었다.

가슴에는 무엇이라고 꼭 집수수 없는 울분만이 가득차있었다. 잡화상을 치고 돌아온 유종림을 만났던 그때처럼 격분도 솟구쳐올랐다.

그 격분은 높은 목소리가 되어 그의 가슴속에서 울리고있었다.

(자루속의 송곳은 빠져나오기 마련이야. 종림이! 난 이제야 종림일 다 알았어. 난 동무의 허울을 벗겨버리고말테야!

겁날테지… 그럼 왜 옳게 살지 못했나! 왜 믿음을 저버렸나!

자기의 이름 석자가 그렇게도 귀한가? 그렇게 너절한 마음으로 남겨놓은 이름은 누구도 기억해 주지 않을거네!

우리는 <조선로동당>이란 이름속에 자기의 이름도 바치기로 맹세한 사람이 아닌가…자기이름을 위해 배추를 100톤이나 열구고 또 관리위원회에는 얼굴도 안내민다지? 알고보니 이밤도 동무는 무슨 일을 하고있는가말이네!)

캄캄한 밤이다. 탈곡장에서 울려오는 탈곡기소리와 멀리 전야에서 불줄기를 앞세우고 논을 가는 트랙토르의 발동소리가 밤을 잠들지 못하게 하고있었다.

정인법은 올라리가 선 좁은 길로 걸어갔다.

마을에서 얼마 떨어진 밭에서는 두개의 등불이 살아서 움직이고있었다.

그것은 배추를 심은 유종림이네 터밭이었다.

키가 크고 가슴이 퍼진 유종림이가 전지불을 든채 터밭을 오가면서 안해와 딸에게 지시를 주고있었다.

《여보! 그쪽엔 환기구멍을 좀더 크게 내놓소. 언 배추가 소생할 땐 새 공기를 많이 요구하니깐…》

그러자 저쪽에서 녀인이 대답하였다.

《환기구멍에다 비닐조박으로 문을 내면 좋겠어요!》

전지불을 천 유종림이와 안해사이에는 비닐박막이 씌워진 긴 두둑이 드러누워있었고 그 두둑 겉으로는 흙밥이 눈두렁처럼 놓여있었다.

유종림이가 터밭에다가 두개의 온상구멍이를 만들어놓은것이다. 온상구멍이결에서 짚단을 안고다니던 애어린 소녀의 목소리가 울렸다.

《아버지! 저기 누가 왔어요!》

유종림의 딸이 울타리결에 붙어선 정인범을 먼저 알아보고 겁에 질려 부르짖은것이다.

유종림이와 안해가 동시에 울타리쪽으로 전지불빛을 보내었다.

《아! 비서동지!》

정인범을 알아본 유종림이가 오래동안 떨어졌던 어머니를 만난 때처럼 기쁨에 겨워 웨쳤다.

《여기서 무슨 일을 하오?》

정인범은 터밭으로 걸어나가면서 부드럽게 물었다.

《언배추를 살릴수 있는가를 시험하는중입니다.》

《뭐 언배추를?》

《그렇습니다. 이결... 보십시오!》

유종림은 비닐박막을 헤치고 온상구멍이에서 배추포기를 하나 꺼내여 물기뻐 결잎을 헤치었다.

결잎을 헤치자 하얗게 살아나는 속살이 보이었다. 배추는 속에서 살아나고있었다.

《아니, 배추가 살아나지 않소?》

정인범은 뜻밖의 기쁨이 믿어지지 않아 눈을 슴벅이었다.

《그렇습니다. 비서동지! 배추는 살아납니다. 이렇게 하면 언배추를 전부 소생시킬수 있습니다. ...제가 새 배추종자의 최고수확고를 바라다가 그만 ...

저는 작업반의 얼군 배추들을 죄다 되살리는것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렵니다.》

최송스럽게 울리는 유종림이의 이 대답은 정인범의 가슴은 모질게 흔들었다.

(새 배추종자의 시험때문에? 그리고 언배추들을 소생시키겠다? 얼마나 좋은 생각인가. 아! )

정인범은 유종림이의 손을 힘껏 잡아주고싶었다.

그는 이렇게 뜻밖의 일과 부닥쳐보기는 처음이었다.

모든것이 뜻밖이었다. 터밭을 시험포전으로 만

든 유종림이의 의도도, 얼군 배추를 다시 소생시킬수 있다는것도, 그가 관리위원장을 찾아가지 않은 원인도 모두 뜻밖이었다.

유종림이가 새로운 다수확배추를 위해서 지른 실수는 결코 공명심에서 출발한것이 아니었다.

이제와서 명백한것은 실책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자기자신이라는것이였다.

(나는 사람을 끝까지 믿지 못하였다. 순간이나마 한 당원을 의심하지 않았는가?)

아무도 보고있는 사람은 없지만 그는 온 세상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운 면과 사업상의 빈구석을 펼쳐보인듯이 얼굴이 화끈거리어였다.

자신이 몹시 지치고 피로했다는 생각도 비로소 느끼였다.

그리고 중요하게는 자기가 독감만이 아닌 어떤 다른 일시적인 병에 걸렸다는것을 깨달은것이였다.

그가 걸린 이 병은 독감보다도 더 무서운 병이었다. 이 병은 일만을 첫자리에 놓고 사람의 문제를 뒤자리에 놓을 때, 그리고 참된 사람을 끝까지 굳게 믿지 않은 때 얻게 되는 병이었다.

《반장동무, 이건 정말 훌륭한 생각이요. 그런데 왜 이 일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만 하였소? 또 실패할가봐 겁나서?

반장동무! 당원은 일하는 과정에 잘못을 저지룰수도 있소. 그건 물론 칭찬할것은 못되지. 그러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셨소? 문제는 잘못을 저지른데 있는것이 아니라 저지른 잘못을 어떻게 고치는가 하는데 있다고 하시지 않으셨소? 반장동무, 이런 일은 실패를 겁내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해야 하오.》

정인범은 걱정예 넘쳐 말하였다.

흥분된 그의 말을 듣자 유종림은 고개를 들었다.

《비서동지! 고맙습니다. 그렇게까지 저를 믿고 있는줄은... 정말 전 비서동지가 이렇게 찾아올줄은 몰랐습니다.》

유종림의 목소리는 감격에 젖어있었다.

《반장동무! 그래 내가 도와줄건 없겠소?》

《없습니다. 비서동지!》

유종림은 금시 날개라도 얻은듯이 환희에 넘쳐 대답하였다.

《우리도 집으로 들어가자던참입니다.》

정인범의 등뒤에서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있

던 유종림의 안해가 한마디 보태었다.

《그럼 들어갑시다. 오늘밤은 꼭 쉬고 래일 작업반적으로 작업조직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인범은 굳이 집으로 유종림을 이끌었다. 그의 완강한 요구로 유종림일가는 터밭에서 손을 털었다.

정인범은 유종림일가가 자기 집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는것을 보고서야 돌아섰다.

.....

그가 소재지로 돌아왔을 때 관리위원장의 방엔 그냥 불이 켜져있었다.

관리위원장 배운집은 낮에는 포전에서, 밤에는 늦도록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이었다.

정인범은 새삼스러운 기분으로 관리위원장의 방문을 두드리었다.

《아니? ...어떻게?》

관리위원장은 땀에 젖은 정인범을 보자 놀랐다.

《9반에 갔됐습니다!》

《9반이요? 그럼 유종림을 만나보러 갔됐단말입니까?》

관리위원장은 눈을 크게 뜨며 담배가치를 끄집어내었다. 그리고 송구한 심정을 가리우려고 꺼내친 담배가치에 서둘러 불을 붙이였다.

그의 손에 쥐여친 담배가치를 보고서야 정인범은 주머니에 넣고있는 상아물부리가 생각났다.

《참 관리위원장동무는 담배를 무척 좋아하는구만! 담뵐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부리도 좋아한다던데... 자! 이걸 받소!》

정인범은 자기의 주머니에서 물부리를 꺼내었다.

《아니, 이진 상아물부리가 아닙니까?》

관리위원장은 놀람과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탄성을 울리였다.

《위원장동무, 이진 한사람이 오래전에 나한테

구해다준거웨다.》

《그 사람은 누군데요?》

관리위원장은 상아물부리를 만지작거리면서 물었다.

《그걸 구해온게 바로 유종림이지요. 그 동무는 이렇게 귀한걸 곧잘 얻어내군한답니다. 지금도 찾아가보니 그 동무는 언배추를 살려낼 방법을 찾아내지 않았겠습니까.》

《예? 배추를 살려내다니요?》

《래일 나가보십시오. 언배추를 온상하였단말입니다. 위원장동무가 그를 도와줘야 할것 같습니다.》

《온상을요?》

담배가치를 켜 배운집의 손끝은 파르르 떨리였다.

《위원장동무! 우리가 그 동무를 도와줍시다. 어떻게 돕는가요? 믿음으로요. 끝까지 믿는것으로 말입니다.

믿음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관리위원장의 얼굴은 불그레하니 물들고있었다. 그것은 심각한 자책의 호수를 건너가야 할 사람들의 얼굴에서만 찾을수 있는 빛갈이었다.

《쓸데없이 서론만 길어진것 같습니다. 그럼 전쟁때 이야기나 합시다. 종림동무가 조국이 가장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싸웠는가 알고싶다고 했지요? 내 이야기하리다. 그가 어떻게 훌륭하고 용감하게 싸웠는가를 이야기하리다!》

정인범이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하였을 때 벽시계의 종소리가 새날의 새 출발을 알리며 땡-! 하고 울리였다.

그것은 그전의 그 모든 종소리들과는 전혀 뜻이 다르게 울리는 소리였다.

## 새벽길에서

한웅빈

농촌마을의 휴식일의 이른새벽은 조용한 시간이다. 여름에나 겨울에나 마찬가지다. 지어는 활짝 피었던 살구꽃이 어느사이 지고 배꽃과 사과꽃, 복숭아꽃이 다투어 피며 사람들을 초조하게 하고 수로의 물소리가 일손을 재촉하는 바쁜 5월의 휴식일의 새벽에도 다를바 없다. 마치도 농촌마을 이른새벽의 휴식과 정적은 불가침의것인듯 싶다.

하루 후치령이 바라보이는 니망지리에는 봄 여름, 어느 계절이나 하루같이 새벽길을 걷는 사람이였다. 사람들은 벌써 7년째 변함없이 새벽이면 마을의 크고작은 길과 포전길을 걷는 그를 보아왔다. 하기에 사람들은 그를 두고 《부지런한 사람》, 《새벽잠 없는 사람》, 《휴식할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지지도 않은 몸집, 마흔여섯이라는 나이에 맞춤하게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한 얼굴은 어디서나 볼수 있는 보통의 사람이였다. 그렇다. 그는 조금도 특별한 사람이 아니였다.

그는 결코 새벽잠 없는 사람도 아니였고 휴식할줄 모르는 사람도 아니였다. 그 역시 휴식의 즐거움을 잘 알았고 따뜻한 베개머리에 쏘는 새벽잠의 달콤함을 잘 알았다. 누구보다도 잘 알았다. 다만 그는 휴식할수 없는 사람, 새벽잠을 잘수 없는 사람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리당비서들의 임무가 매우 중요합니다. 리당 비서들이 자기의 역할을 원만히 하여야 농촌에서 모든 일이 다 잘되어나갈수 있습니다.》**

그는 이날도 교요속에 잠긴 마을을 걷고있었다. 새벽이였다.

그는 마을을 벗어나 포전길에 들어섰다. 채 걷히지 않은 어둠과 새벽빛은 한데 어울려 안개처럼 포전을 덮고있었다.

모든것이 조용했다. 황철나무가 늘어선 남천강도(지도상으로는 엄연한 북청남대천이나 이곳 덕성사람들은 남천강이라고 부른다.)조용했고 수로의 물소리도 잠든듯했다.

그는 포전머리들에 걸린 속보를 읽어도 보며 속보판을 바로 세워놓기도 하며 걸었다. 그의 발자국소리에 잠을 깬듯 수로는 출렁거리는 물소리를 내며 가까이 다가왔고 즐겁게 조잘대며 따라섰다.

수로와 인사라도 하듯 허리를 굽히고 손을 잡

그어 물깊이를 재보던 그는 머리를 들었다. 어데선가 트랙포르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얼마동안 귀를 기울였고 그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논에서 두대의 트랙포르가 씨레질을 하고있었다. 벌써 씨레작업을 마친 몇개의 논배미들이 운동장처럼 드러누워 번쩍거렸다.

트랙포르의 번호판은 흙물투성이가 되어있었으나 그는 운전수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낼수 있었다. 트랙포르소리와 운전숨씨, 그보다도 밤새워 작업하여 모내기논판을 선행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알았다.

운전수들은 김동무와 강동무였다. 트랙포르소리는 그렇게 생각해서인지 밤새운 피곤으로 지친 것처럼 들렸다. 그는 논판에 들어섰다. 고르롭게 풀어진 물흙이 장판지에 시원하게 감겨들었다.

두 운전수는 그가 트랙포르앞에 나섰을 때에야 알아보았다.

《수고하오!》

《리당비서동지!》

운전수들의 피로해보이던 얼굴에는 반가운 웃음이 피여났다. 순식간에 실컷 자고 깨어난 사람들의 얼굴같아졌다.

《밤을 새웠지? 좋지 않아!》

비서의 책망을 그들은 칭찬보다 더 기쁘게 받아들이는듯했다. 서로 마주보며 히죽이 웃었다.

《어떻게 좋은 일만 하겠습니까? 모내기할 논판을 선행시켜야 하지 않습니까. 쉬는게야 후에도 시간이 많으니까요.》

그들의 말이 옳았다. 후에도 될수 있다. 그러나 모내기는 후에 할수 없다. 계절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잠시후 비서는 그들이 트랙포르에서 내리는것을 보고서야 그곳을 떠났다. 그러나 얼마 가기도 전에 뒤에서는 다시 트랙포르의 발동소리가 터져올랐다. 그 소리는 마치도 계절정비를 마친 트랙포르가 시동하듯 청청하고 기운찼다.

비서는 잠시 귀를 기울여보고 그냥 내걸었다. 휴식을 권고해야 필요없음을 그는 잘 알았다. 그는 자기 사람들을 알고있었다.

그는 씨레질하는 트랙포르의 소리를 들으며 농립모밀에서 싱글대는 모내는기계운전공의 얼굴들과 꼼꼼한 보장장거너들을 그려보았다.

비서는 미소를 지었다. 이 새벽길이 그는 즐거웠다. 기쁜 길이었다. 두 트랙포르운전수의 얼굴에서 그는 모든 농장원들,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따사로운 해발이 스민

니망지리땅의 주인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았다. 두사람의 모습이 래일의 열사람, 백사람의 모습으로 안겨왔다.

이런 때면 그는 자기 사업의 보람을 느꼈다. 새벽길은 그에게 자기 사업을 검토해보게 하는 길이기도 하였다. 그는 이 길에서 어제 포치한 사업을 돌이켜보았고 오늘의 사업계획을 확인했고 래일에 대하여 설계했다. 그런만큼 이 새벽길은 그에게 기쁨의 시간이기도 하였고 피로움의 시간이기도 했다.

얼마전 포전에 퇴비를 널 때였다. 그는 산비탈의 다락밭을 돌아보다가 퇴비가 맨웃포전에까지 올라가있지 않는것을 발견하였다. 트랙토프바퀴는 50메터나 백메터를 채 못가서 멎어있었다.

비서는 그곳에 이윽도록 서있었다. 몇어버린 바퀴자리에서 그는 등짐으로 나르던 옛날에 비하면 이만해도 호사라는 트랙토프운전수와 작업반장 그리고 분조장들의 생각을 읽었다. 며칠 앞당겨 끝냈다는 큰소리를 치고싶어하는 얼굴들도 보았다.

이제는 사람들의 잔등으로 저울려야 했다. 그러느라면 아무래도 맨우에는 적게 올라갈것이고 가을에는 가벼운 이삭을 거두어야 할것이다. 퇴비없는 경사지의 밭, 이는 곧 자기 사업의 빈구석이었다.

그날밤 집에 돌아와 그는 질통을 만들었다. 자기 가정의 식구수만큼 만들었다. 새벽에 그는 안해와 아이들을 깨웠다.

하늘에서는 아직 별이 반짝거리고있었다. 안해도 아이들도 군말없이 따라섰다. 그들은 집에 들어와서는 말이 적고 표정으로 더 많이 말하는 아버지에게 습관된 아이들이였고 혹시 밥이 설거나 찬이 입에 맞지 않아도 아무말없이 상을 받고 물리는 남편에 습관된 안해였다.

그러나 이 새벽따라 아버지는 말이 많았고 남편은 다심스러웠다.

《줄리지 않니? 밭밀을 잘 보면서 걸어라.》

《피곤하지 않소? 신발은 든든히 신었소?》

아이들은 아직도 별이 반짝거리는 새벽하늘과 아버지를 번갈아보았다.

《아버지, 어데 가나?》

잔등에서는 질통들이 흔들거렸다. 막내의 손목을 끌고가는 아버지의 대답은 무거웠다.

《아버지가 잘못해놓은 일을 바로잡으려고 간다.》

《아버지가 잘못된 일?》

아이들은 이제 곧 아버지가 잘못된 일을 보게 되리라고 믿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들을 데리고 간곳은 다락밭이었고 시작한 일은 퇴비를 날라가는 일이었다. 그들은 이것이 어찌하여 아버지의 일인가고 의아해하였다. 아버지는 그들의 질통을 받들어주며 대답했다.

《이건 아버지의 일이다. 아버지가 잘못된 일이다. 알아두어라. 우리 농장에서 무슨 일이건 잘못되면 그건 모두 아버지가 일을 잘못한때문이다. 너희들의 학교에서 누가 지각했다고 하여도말이다.》

리당비서의 온가족이 퇴비를 등짐으로 저울리고 있다는 소식이 마을로 퍼져간것은 얼마후였다. 온 농장이 떠들썩해졌고 모두들 서둘러 질통을 지고 달려올라왔다. 움직일수 있는 사람은 모두 올라왔다. 농장의 총 인원은 천여명인데 올라온 사람은 이천명을 넘었다. 소녀애들은 조그만 소랭이들을 들고 올라왔다.

퇴비는 순식간에 옮겨졌다. 모든 등성이다락밭에 빈구석은 하나도 남지 않았다. 불과 한시간에 끝내버렸다.

그러나 이 한시간이 한달맛잡이로 길고 고통스러웠던 사람들이 있었다. 트랙토프운전수들과 작업반장, 분조장들이었다. 그들은 리당비서가 자기들을 땀나게 하였고 버릇을 떼주었다고 말하였다. 하나 그 한시간을 가장 기나긴 리로운 시간으로 느꼈던것은 리당비서였다.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더는!...

내가 만난 니망지리의 리석천당비서는 이런 사람이었다. 리당의 한 일군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비서동무는 재미있는분입니다. 만나보면 속단할수도 있는데 예술소조공연을 지도하기도 하고 연출도 합니다. 노래는 물론이고 무용까지 지도한다면 놀랄겁니다.》

나는 얼마후 리석천비서를 만나자 그 일군이 무엇때문에 예술소조사업에 대하여 이야기했는지를 깨달았다.

별에 타서 철색이 된 얼굴은 무뚝뚝해보였다. 웃는적이 드물듯한 얼굴이었다. 이야기하기를 즐기지 않았고 무언가 생각하며 창밖을 내다보는 경우가 더 많았다.

《우리 니망지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를 그 어데보다 많이 받고 영광스러운 당의 보살핌을 끊임없이 받고있는 고장입니다.》

우리고장을 더 살기 좋은고장으로 만드는것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기쁨을 드리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깎지깎 손목에서는 시계의 초침이 분주히 돌아가고있었다...

내가 그를 두번째로 본것은 깊은 밤. 논두렁에서였다. 이날밤 논판에서는 해불과 우등불이 무수히 타오르고있었다. 한랭전선을 이겨내기 위한 논두렁높이쌓기에 온 농장이 떨쳐나선것이였다. 군이동방송은 그들을 노래로 고무하고있었다. 마치 열두시 지난 밤이 아니라 초저녁인듯했다.

논두렁의 한 해불아래에서 한 처녀가 부지런히

삽질을 하고있었다. 비서는 그의 뒤에 나타나 일하는 모양을 지켜보기만 했다. 그는 들판을 한바퀴 돌아보고 오는것 같았다.

잠시후 그는 주머니에서 종이장을 꺼내들고 처녀를 찾았다. 처녀는 삽을 세워놓고 마주 갔다.

《이 원고를 방송차에 갖다주오. 온통 노래만 내보내는군. 실정에 맞게 방송하라고 말해주오.》

《예.》

처녀는 어둠속으로 사라졌다. 비서는 그가 세워놓은 삽을 들고 논두렁을 쌓기 시작했다.

나는 처녀가 사라진쪽을 바라보았다. 그는 방송원고생각만 할뿐 비서가 자기를 쉬우기 위하여 보냈다는것은 얼마후야야 깨달을것이다.

비서는 논두렁을 쌓고있었다. 묵묵히 그러나 겉싸게 삽질을 해나갔다.

이 밤, 그는 아마도 들판에서 마지막 횃불과 우등불이 꺼질 때까지 떠나지 않을것이다. 허나 다음날 새벽에는 또다시 그 누구보다먼저 일어나 이슬을 밟으며 걸을것이다.

마지막 사람까지 잠재우고야 잠자리에 들고 농장의 새벽을 맞는 첫사람으로 포전길을 걷는사람, 그의 한걸음 한걸음은 검열과 사색, 설계의 걸음이다. 또한 사람들의 심장속으로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걸음이다...

농장의 한 처녀는 나에게 이렇게 말했었다.

《우리 비서동진 처음에 보면 잘 웃지도 않고

무뚝뚝합니다. 유심히 바라보거나 생각하는것처럼 보일 때가 더 많습니다. 처음은 좀... 그렇지 만 지내보면...》

처녀는 머리수건을 꼭 졸라매며 명랑한 눈길로 하늘을 쳐다보았다.

《지내보면... 사람을 정말 아끼는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얼마나 아끼는지... 정말 사람을 아깁니다.》

...횃불은 계속 타오르고있었다. 리석천비서는 묵묵히 삽질을 하고있었다. 별에 탄 거무스레한 얼굴, 손도 별에 탔고 발도 별에 탔다. 그의 온몸은 별에 탄 땅과 하나의 색깔로 보였다. 이 땅에서 태어나 이 땅에 뿌리박고 만풍년의 가을에로 농장을 이끌어가는 사람, 이런 당일군들로 하여 우리의 사회주의농촌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가리키는 만풍년의 가을에로 변함없이 달려가고있는것이다...

땅처럼 과묵하고 무뚝뚝해보이는 얼굴, 저런 얼굴은 웃음이 많지 않다. 웃음으로부터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사람을 맞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저런 사람이 한번 웃을 때면 마음은 한없이 즐거워지며 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되고싶어진다. 그런 웃음은 귀중한것이다. 아마도 니망지리의 사람들은 그런 웃음의 진가를 알고 귀중히 받아들여야 함을 깨달은것이리라...

이렇게 나는 생각했다...

## 가사

# 수령님은 전사의 편지를 보아주시네

## 안창만

푸른 별 설레는 여름날 아침에  
농장마을 찾아주신 우리 수령님  
병사의 고향집마루에 앉으시여  
젊은 병사 집에 보낸 편지를 읽으시네  
아 자애로워라 어버이사랑이여  
전사들은 그 사랑 안고 조국초소 지키다네  
훈련의 나날에 대렬감사 받았다고

자랑 가득 써보낸 편지의 구절  
수령님은 웃으시며 어머니에게  
다정히 손짚어 읽어주시네  
수령님 사랑은 이 땅에 넘치고  
전사의 편지엔 맹세도 뜨겁네  
나라의 영웅감이 자라났다고  
수령님은 만면에 기쁨을 담으시네

## 곤장덕에 오르며 외 3 편

장문필

덕이라 부르기에  
언덕인줄 알았더니  
산이로구나  
고원에도 험준한 산이로구나

단숨에 오르자니  
어지간히 숨가빠라  
힘겨움에 발걸음도 더디여지는 이때  
길센의 꽃들이 들려주는 말이여

- 이리로 가셨다오, 우리 수령님  
대오의 앞장에서 길을 여시며  
가파로운 이 언덕을 단숨에 오르셨다오  
삼십칠년 류월의 그 이른새벽...

아, 가슴을 툭 치는 뜨거운것이  
눈가에 핑그르 땀혀흘러라  
내 조국의 광복 위해 우리 수령님  
이런 길 그 얼마나 걸으셨으랴

넘으신 산 하도 높고  
헤치신 길 하도 험해  
이런 산 이런 길쯤 덕이라 부르는가  
헤아림이 닿기엔 끝이 없구나

곤장덕 곤장덕 산세험한 언덕이여  
숨가빠 오르던 내 목메여 오르노니  
걸음마다 이 몸에 흠뻑 젖어내리는건  
아아, 땀이 아니라 감격의 이슬이구나!

## 밀림속의 혁명대학

여기엔 없다  
생활의 끓는 네거리도  
력사깊은 대학의 층높은 교사며  
머리 센 교수의 류창한 강의도

다만 이깎나무 봇나무로  
빼곡이 들어찬 밀림의 바다  
밟아다져진 한오리 오솔길로  
끝없이 찾아오는 답사의 행렬뿐

높뛰는 가슴에 넓은 자리를 내고  
소중히 간직하는 사령부자리  
사령부의 위성처럼 빙 둘러앉은  
정연한 병실, 취사장과 샘물터...

밀림속에 펼쳐진 영광의 사적들은  
말없는 강의로 생활의 철학 가르치고  
신념의 탑인양 우뚝 선 구호목들은  
진리의 글발로 삶의 목적을 안겨준다

눈 감으면 진대나무도 이끼 털고 일어나  
그날의 사연을 뜨거웁게 전하고  
귀기울이면 못새들의 정다운 지저귐도  
그날의 기쁨을 속삭여주는듯

한그루 나무, 한포기의 풀, 한줌의 흙도  
완성된 강의안의 글발처럼 빛나며  
한평생 따라배울 고귀한 뜻을  
가슴벅찬 한순간에 새겨주는곳-

여기서는 나 어린 학생도 학직높은 교수도  
하나의 동급생으로 삶의 기준을 정하고  
여기서는 이름난 배우도 평범한 병사도  
하나의 모범으로 생활의 진리를 배우거니

아, 청봉속영지!  
너는 30년대가 넘겨준 영원한 배움터  
위대한 수령님의 전사들을 키우는  
백두밀림의 혁명의 대학이여라!



# 전우의 아들

-한 항일혁명투사가 부른 노래-

그대 남긴 글발 살아 빛나는  
청봉속영지 뜻깊은 구호목앞에서  
기뻐하오, 전우여  
내 그대의 아들을 만났소  
땅크부대의 대대를 지휘한다는...

얼마나 몰라보게 변했겠소  
해방되던 이듬해 봄  
장군님을 모시고 그대의 고향에 찾아갔을 땐  
더벅머리 나 어린 소년이더니  
장군님 품속에서 어엿이 자라  
지금은 혁명무력의 지휘성원이 됐소그러

참으로 몰라보게 변하였소  
하지만 내 첫눈에 알아보았소  
썩 떨어진 어깨며  
웃을 때 패이는 그 보조개  
어쩌면 그리도 신통하오  
그것은 그대 아들의것이여도  
나에겐 전우여, 못잊을 그대의것이였소

모습만 같은게 아니였소  
생각하는 품도 그대와 신통했소  
이끼푸른 구호목앞에 웃길 여미며  
- 영원히 충을 놓지 않습니다!

그대의 아들이 불같이 다짐할 때-

전우여, 나는 진정 듣는것만 같았소  
그대 열정의 목소리를말이요  
총잡고 한생을 전사로 살며  
장군님 혁명위업 길이 받들리라던...

아, 그 녀원 못이루고 우리결을 떠날 때  
뜨겁게 부탁한 그대의 아들  
아버이수령님께서 다 키워주셨구려  
한생을 베푸시는 그이의 은정속에  
그대의 녀원도 찬란히 꽃폈구려

기뻐하오  
그대의 아들, 우리의 후대들은  
선렬들의 혁명정신 빛나게 이어가오  
보오, 혁명의 성지 백두밀림에  
끝없이 흘러드는 답사의 저 물결을...

그렇소, 어제도 오늘도  
우리 혁명대오는 변함이 없소  
백두산기슭에 영생의 삶을 묻은  
아, 전우여  
그대를 닮은 그대의 아들처럼말이요!

# 나는 사랑한다

나는 사랑한다  
어릴적에 뛰놀던 고향의 강변을  
나를 저녁상에 불러들이던  
어머니의 다정한 그 목소리를  
그리고 해마다 높이 쌓는 난가리우에  
아버지의 농림모련듯  
등실 솟아오르던 시누런 달을

나는 사랑한다  
행복만이 찾아드는 처마아래서  
제비처럼 거침없이 하늘을 날아보던

철부지시절의 천진한 꿈을  
생활의 먼길에 지체함이 없도록  
걸음마를 익혀준 조그만 프락을

사랑한다  
그 시절에 배운 즐거운 노래들과  
그 시절에 낮익힌 정다운 모습들을  
그리고 아침마다 첫수업때면  
부러운듯 내 책상머리에  
살그머니 비쳐들던 금빛해살을...

초소의 밤에도  
 행군의 나날에도  
 나는 사랑한다, 그 모든것을  
 그러면 레사롭던 그 시절이  
 나에겐 더없이 소중한진다  
 나서 처음 바라본 푸른 하늘과  
 송아지동무들과 뛰놀던 들이...

소중해진다, 몇 갑절로  
 - 수령님 은덕을 잊지 말거라  
 편지마다 이르는 어머니의 말씀도  
 - 올해도 고향벌엔 대풍이예요

글줄마다 전하는 정든 처녀의 속삭임도

내 그것을 잊고  
 어찌 크나큰 이 땅을 사랑하라  
 거기서 소중한 내 삶이 시작되고  
 값높은 조국애가 움터났거니

오, 이글거리는 생명의 이 불길을 다해  
 나는 한생코 사랑하리라  
 정든고장, 복스럽던 그 시절을!  
 아아, 고마운, 고마운 나의 조국을!

## 초병의 눈 외 2 편

정 렬

어둠은 바위즈령을 감싸고  
 나무숲 촘촘한 산허리를 감싼다  
 건들바람도 잎새우에 잠들어  
 쥐죽은듯 정적이 흐르는 밤

저 멀리 창가의 불빛들  
 하나 둘... 꺼지는 밤에

산중의 초병이여

그대의 눈만은 초롱불이 되어  
 습새드는 티검불 하나 놓치지 않는다  
 온 누리 온 나라가 잠들면서  
 그대에게 눈을 모두 맡겼으매

## 달이 웃네

깊어가는 밤  
 혼곤히 잠든 전사  
 코를 고는데  
 중대장은 직일등아래  
 밤늦도록 앉아  
 엇그제 입대한  
 그 전사의 목달개 다네

한흙 누비면  
 숙영지의 새벽  
 야전밥통에 밥을 태우고  
 울먹이며 서있던  
 전사의 얼굴이 보여오고

또 한흙 누비면  
 아슬한 벼랑가에서  
 수리갈이 내리꽂히던

전사의 미더운 모습 밝혀와  
 저혼자 흐뭇이 웃는데

세상모르게 잠든 병사  
 그도 꿈을 꾸는듯  
 장난이 세차던 어린 날  
 흙탕물에 얼룩진 옷을  
 밤늦도록 다림발에 곱게 다려  
 머리말에 포개여놓아주던  
 고향의 어머니를 만나보는가

그날의 그 사랑은 초소길에 이어져  
 오늘은 중대장이  
 변함없이 품어주고 보살펴주고있구나  
 전사와 함께 헤쳐갈  
 래일의 혼련길 그려보며  
 목달개의 마지막 실 끊는데

휘영청 밝은 둥근달  
창가에 내려앉아 웃네  
전사의 어머니가 보내는 미소인가  
달빛에 실어

이런 말도 보내오는듯  
- 그런 사랑속에  
아들을 맡겼으니  
마음이 놓인다오

## 산딸기

양무리 풀 뜯으며  
언덕길 내리는 저녁  
어디선가  
노을을 타고 바람 타고  
초원에 흐르는 노래소리

꽃구름 피었다 양떼 흐르고  
내 마음 어렸나 산딸기 익었다오

지나던 병사  
노래소리에 이끌리어  
발길 멈추는데  
산딸기 골라 따던 양몰이 처녀  
깜짝 놀랐네

소낙비 퍼붓던 날  
구룡강물속에 침병 뛰어들어  
떠내려가는 어린 양들을  
구원해준 고마운 병사

이름도 우편대호도 묻기전에  
제할일 했을뿐이라고  
꼭듯이 경례하고 떠나기에  
안타까와 몰래 가슴 태웠더니  
이렇게 다시 만날줄이야

가슴속 가득찬 말없는 기쁨이  
얼굴에 피어나  
수집을 타는 처녀

다소곳이 머리 숙이는데  
아이참  
그 병사 총탁못 박힌 손으로  
악수까지 청하면서  
산딸기 잘 익었다 하겠지

우리고장 마음인줄 아시고  
산딸기나 좀 드세요  
두손 받쳐 안겨주는  
처녀의 그 얼굴 산딸기빛에 익고  
아름다운 그 마음에 물들어선가  
병사의 그 얼굴도 붉게 탔네

방목장 언덕길에서  
병사의 배낭을 메워주는 처녀  
마주보는 눈길을 피하면서도  
살뜰한 말 한마디  
또 오세요

못잊어 못잊는 마음속에  
안고사는 고장이 없이  
초소의 눈비를 달게 맞을수 있으랴  
병사가 품고간 산딸기향기  
밤이슬 내리는 전호가에 차넘쳐  
언제나 조국의 향기로 풍겼네

꽃구름 피었다 양떼 흐르고  
내 마음 어렸나 산딸기 익었다오

## 나의 《작가수첩》에서

박래원

작가들은 대개 자기의 수첩을 가지고있다.

독서를 하다가 느끼는바를 적어두거나 인상적인 생활사실들과 인간성격들의 단편들을 거기에 적어넣곤한다. 때로는 장편소설의 줄처럼 떼여지지 않는 허두를 써보기도 한다.

나에게도 눈을 볼수 있는 10여년전에는 작가수첩이 있었다.

현재 마지막 제3부를 구술해가고있는 장편력사소설 《갑오농민전쟁》에 등장하는 수많은 긍정 및 부정 인물들의 첫 얼굴들이 거기 기록되어있었다. 100년전의 풍속이며 사회제도 그리고 그때 쓰이던 낱말들도 적어넣곤했었다.

두눈을 볼수 없게 된후부터 작가의 사색과 노력의 흔적을 담아두는 그 작가수첩은 소용이 없게 되였었다.

눈으로 현실을 볼수 없고 더구나 계획한 력사소설의 무대인 그 당시의 사실들을 내 눈으로 고증할 길이 없으니 적어둘것이 없어졌던것이다.

그러던 내가 새 작가수첩을 가지게 되였다.

그것은 내 손으로 만들수 없었다. 앞을 볼수 없는데다가 전신불구까지 겹쳐 기동조차 할길이 없는 몸으로 그것을 만들수는 없었던것이다.

그것은 나를 간호해주는 늙은 안해가 만들어준 것도 아니다. 작가의 사색과 노력은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대신해줄수는 없으니말이다.

나의 새 《작가수첩》은 실재없이 정확에 피여오기만 하던 그 어둠을 말끔히 가셔주시고, 밝고밝은 광명을 안겨주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마련해주신것이고 은혜로운 손길로 나를 안아일으켜세워주고 동시대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대지를 확보할수 있게 해준 영광스런 당중앙이 안겨준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작가, 예술인들은 늘 로동자, 농민과 접촉하고 로동자, 농민과 결합되며 그들속에서 무궁무진한 창조적지혜의 원천을 찾아낼줄 아는, 로동자, 농민에게 충실히 복무하는 혁명적 작가, 예술인으로 되여야 하겠습니까.》**

아버이수령님의 교시가 새겨진 나의 《작가 수첩》에는 내가 사는 광명의 나라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함께 살며 일하는 우리시대 사람들의 정다운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있다.

나는 그들과 함께 손잡고 조국땅 그 어디나 다 걸어가면서 그들이 아버지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바쳐 싸우

고있는 감동적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우리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인 인민대학습당건설에 참가한 한 젊은이는 나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우리 인민대학습당 건설자들은 이미 착공한 1백화점건설도 동시에 밀고나갑니다. 여기서 우리 <돌격대>가 단단히 한몫하게 될것입니다.

선생님! 부디 몸조리 잘하시고 좋은 작품을 더 많이 써주십시오.》

나는 처음 만나보는 그 젊은 건설자와 함께 인민대학습당의 웅대하고 화려한 건물과 불꽃튀는 1백화점건설장을 눈앞에 본다.

젊은 건설자는 또 나에게 이런 말을 들려주었다.

《...자유와 민주를 요구한 광주의 애국청년들과 시민들을 총과 대검으로 무참히 살해한 전두환도당은 소설 <갑오농민전쟁>에 나오는 안해사 리용태와 무엇이 다릅니까? 땅이 없고 권세 없는 고부농민들이나 자유와 민주가 자취를 감춘 남녘땅의 광주시민들의 처지는 시대가 다를뿐이지 다를것이 없습니다.

광주의 애국적인민봉기는 정당한것이며 군사불한당 전두환살인마는 하루속히 처단되어야 합니다.》

젊은이는 힘주어 이렇게 계속한다.

《우리는 아버지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이 고마운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행복하게 살며 일하는 기쁨과 자랑을 더욱 깊이 간직하고 우리 체도를 목숨으로 지킬것이며 지난날 우리 선조들이 겪은것과 같은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하고있는 남녘겨레들의 투쟁을 더욱 힘있게 지원하기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싸울것입니다.》

나는 그와 함께 주먹을 부르쥐고 광주의 어린이들과 80젊은이에 이르기까지 닥치는대로 학살한 살인마 전두환역도와 그를 부추긴 미제침략자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로 심장을 불태운다.

그리고 이 늙고 병든 나에게도 언제나 밝은 신심과 삶의 보람을 안겨주시는 아버지수령님과 당중앙을 목숨으로 사수할 불타는 결의를 그와 함께 다진다.

나의 작가수첩에는 또한 자강도 초산땅의 협동농장 청년분조장인 한 처녀의 얼굴과 함께 그가 들려준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적혀있다.

그는 나에게 자기들의 청년분조가 얼마나 커다란 기쁨속에 일하고있는가에 대해 이렇게 전해준다

《...이곳 자강땅에도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아버지수령님께서 높고 험한 명문고개를 넘고넘으시여 수습여차나 찾아주시여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셨기에 지난해 이처럼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례년에 드문 풍년이 마련되었답니다.

우리 청년분조도 지난해 농사를 짓고 한일도 없이 우리 분조에 보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감사문을 받아안았습니다. 우리는 이 영광, 이 신임에 꼭 보답하기 위하여 나라의 쌀독을 지켜선 농업전사답게 일하고있습니다.》

자기들이 거둔 커다란 로력적성과에 대해 전해주던 처녀분조장은 말머리를 돌려 이런 말을 한다.

《떠도는 소문에 선생님이 <갑오농민전쟁> 제1부를 쓰신후 병이 더하다고 하기에 저는 동무들과 함께 매우 가슴아파했었습니다.

그러던차에 군도서관에서 제2부를 보았을 때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 불편한 몸으로 써내놓은 새책을 손에 들었을 때 저는 기뻐서 어쩔줄을 몰랐습니다. 저뿐아니라 우리 온 분조원들도 다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 분조원들이 모두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아픔을 덜어드릴수만 있다면 단숨에 달려가 밝고밝은 대지와 날로 꽃피여가는 조국의 모습을 볼수 있게 해드렸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창작사업과 함께 병치료를 잘하기 바랍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나라에서는 60청춘에 90환갑이 아닙니까!

선생님이 더 좋고 더 많은 작품을 쓰는것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런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는 길입니다.

보다 큰 성과를 바랍니다.》

나는 북받쳐오르는 뜨거운것을 삼키며 눈물이 글썽해 나를 쳐다보고있을 처녀의 머리를 쓸어주며 대답한다.

《처녀야! 나는 70평생을 살아오는 과정에 인생의 쓰고단 맛을 다 맛본 사람이다. 그래서 눈물을 좀처럼 흘리지 않는 사람이다.

그러나 너희들처럼 아름답고 깨끗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들이 살며 일하는 이 땅을 생각할 때 이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세상을 지구우에 세워주시고 너희들을 키워주신 아버지수령님과 당중앙의 품을 생각할 때 나는 뜨거운 눈물을 금할수 없구나. 너희들과 너희들이 꽃피우고있는 그 품, 그 손길을 생각하며 나는 운다...》

그와 헤어진 나는 올해 열네살에 난다는 감쪽한 한 소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소녀는 나에게 자기들의 학교에서 벌어지고있는 즐거운 일과들과 명절차비들에 대해 전해준 다음 이런 질문을 한다.

《저도 <소년신문>과 아동잡지들에 글을 써보아서 압니다만 글을 쓰기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눈을 못보시는 선생님은 어떻게 그 전력사소설을 쓰셨나요? 전 그것을 알고싶습니다.》

나는 소녀의 손을 잡고 그에게 대답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투쟁하여왔는가를 보여주는 력사소설을 쓰라고 하신 그 교시를 받들고 쓰기 시작했었다.

그런데 도중에서 눈이 멀고 몸이 말을 듣지 않게 되었었다. 그렇지만 나는 붓을 놓을수 없었다.

내가 그러가던 100년전의 그 좋은 사람들이 만약 오늘에 태어났었다라면 반드시 너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와 언니들처럼, 너희들처럼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되었을것이라는 그 생각이 붓을 놓지 않게 한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러가는 그 나쁜 인물들의 얼굴에는 오늘 남반부에서 인민들을 괴롭히고있는 나쁜놈들의 물결이 비껴있단다...》

나는 좀처럼 터놓지 않던 나의 창작동기와 열정의 원천을 소녀에게 터놓게 된다.

감쪽한 소녀는 그제야 납득이 간다는듯이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보인다.

나의 작가수첩에는 이밖에도 수많은 우리 사람들의 슬기로운 얼굴들과 정다운 생활들이 적혀져 있다.

아버지수령님과 당중앙에 기쁨을 드리기 위해 새로운 풍년을 마련하려고 투쟁하고있는 평북 태천땅의 한 나이 지긋한 협동농장원의 모습이며 원산의 어느 병원에서 일하고있는 젊은 의료일군의 얼굴이며 한 휴양소에서 일하는 관리원아주머니, 그리고 용해공과 벌목부와 교원들, 광부들과 어로공들의 이름과 얼굴도 있다. 백화점에서 일하는 마음씨 고운 판매원과 지배인의 모습도 적혀져 있다.

이루 다 헤아릴수 없이 많은 그 사람들중에서 나처럼 불구의 몸이 되어 번민하다가 새로운 힘을 안고 일어난후, 되려 나를 고무하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다.

《...저는 올해 스물다섯살입니다. 저도 불구의 몸으로 락천적으로 살자고 다짐하면서도 앞날에 대해 생각할 때마다 모대기군하였습니다. 피로운 가슴을 안고 비내리는 밤거리를 헤매기도 하고 터져오는 가슴을 안고 번민한것도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은혜로운 손길의 부축을 받으며 저도 선생님처럼 일어섰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바치는 충성의 열정에 심장이 불탈 때 불구의 피로움도 극복할수 있다는것을 저도 깨달았습니다.

저와 수많은 독자들이 <갑오농민전쟁> 제3부가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있습니다.》

나는 숙연한 마음으로 그와 대면한다.

그가 남모르는 고뇌와 번민끝에 얻었다는 그 힘과 그 힘의 원천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우기 불구의 몸인 그가 나에게 보낸 고무와 격려는 나로 하여금 더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사로운 품과 영광스런 당중앙의 손길아래서는 비록 불구의 몸은 있을지언정 결코 불행은 없다는 그것이다.

그것은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육친적인 배려가 있기 때문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불멸의 주체위업, 그 위업을 자각하고 그 위업으로 심장을 불태울 때 육체적인 불구자도 자신을 불구로 느끼지 않는것이다. 거기에는 오직 행복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람차고 위대한 사업에 참가하고있다는 그 자각만이 남는것이다.

나는 나를 고무격려해주는 그 젊은이의 손을 잡은채 오래도록 헤어지기를 아쉬워한다.

나의 작가수첩에는 또한 인민군대 군무자들의 슬기롭고 영웅한 모습들이 기록되어있다.

그들은 내가 일찌기 조국해방전쟁시기 종군작가로 전선에 나갔을 때 포연탄우속에서 만나본 그 용사들의 아들딸들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보람찬 전투정치훈련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한편 나를, 총을 쏜 전사의 이름으로 격려해준다.

나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이 준 가장 밝은 눈을 가지고 우리의 장엄한 시대를 본다. 그속에서 아름답고 고귀한 얼굴들을 보며 육신을 놀릴수 없어도 그들과 함께 조국의 푸른 하늘밑으로 끝없이 펼쳐진 풍요한 대지를 확보하고있다. 이런 사람들, 이런 고귀한 정신을 키워주시고 꽃피워주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손길을 나는 본다. 내가 사는 나라,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품을 생각하며 나는 목이 메인다.

행복, 그렇다. 오랜 세기를 두고 사람들이 꿈꾸어오던 그 행복의 참모습을, 그 품, 그 손길아래서 나는 찾았다. 그것이 내가 누리고있는 하루하루이다.

작가인 나에게는 그것을 세상에 길이 전할 의무가 있다.

나는 신성한 그 의무를 위해 세계 어느 나라 작가들도 체험할수 없었고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그 빛나는 세계를 그리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 것만 같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나의 《작가수첩》, 나의 심장의 갈피마다에 아로새겨진 우리 시대 사람들과 함께 손잡고 기쁘게 충성의 한길을 간다.

## 가사

# 제대병사 고향으로 돌아오네

배헌평

다박솔 푸르려 정다운 고향아  
초소에서 돌아오는 나를 반겨 설레느냐  
총잡은 가슴에 그 언제나 못잊던 꽃  
밀보리 향기속에 나를 안아주누나

전선에서 승리하고 아버지가 돌아온 길  
오늘은 이 아들이 자랑 안고 들어서네  
넓어진 한가슴에 고향별을 안으니

병사의 훈장도 눈부시게 빛나네  
초소에서 떨쳐온 병사의 위훈을  
고향의 들판에서 빛내여나가리  
나서자라 정다운곳 대를 이어 꽃피우며  
해마다 풍년기쁨 이 땅에 안아오리

# 길가의 쉼터에서

김정철

시내 밝은 길가의 쉼터  
달아오른 기관의 점점을 마치고  
먼지 오른 자동차의 거울을 닦으니  
사랑하는 사람아 그대가 마주웃네

떠나온 길은 멀어도  
여기까지 함께 따라왔는가  
새벽부터 정성껏 차를 닦아놓고서도  
잘 다녀오라는 그 한마디는  
이 거울속에 새겨두었더냐

첫 산모퉁이 돌아설 때까지  
행주치마속에 젖은 손 감싸쥐고 섰던 모습  
고개고개 몇고개 넘어왔건만  
여기에 그냥 비쳐있는듯

새벽에 밤중에  
언제나 방긋이 웃으며 바래주던 그대  
꽃비단 짜는 살뜰한 그 손길  
굽이굽이 령길우에  
운전대도 함께 잡아온듯싶어

내 공구주머니에 별을 수놓으며  
직포직장도 년간계획 넘쳤다고  
수집은듯 타고르던 그 미소  
내 어이 모르랴  
말없는 그대의 속깊은 당부

아, 멀리 갈수록

가까와만지는것이 우리의 정인가  
고속도 넓은 길 만속으로 달리다가도  
문득 자동차의 거울 쳐다보면  
좀더 빨리 가자요 그대 웃으며 재촉하는듯

진정 내 가는 이 길이 더 길었던가  
그대 짜는 비단필이 더 길었던가  
끝간데 없는 우리의 사랑처럼  
끝간데 없는것이 내 가는 길이더라  
그대 짜는 비단이더라

우리의 사랑  
씨실과 날실이 되어  
필필이 꽃비단으로 늘어지고  
우리의 사랑  
눈부신 한쌍의 전조등이 되어  
밤길도 대낮처럼 밝히였거니

아직은 우리에게  
준엄한 싸움속에 꽃피워가는  
그러한 사랑이 없다 해도  
평범한 로동일에 서로 돕고 이끄는  
이러한 사랑도 조국엔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차에 스민 그대의 정성  
아, 우리의 수송전선을 돕는  
인민의 뜨거운 한마음으로 받아안으며  
달리는 차길은 즐거워라, 흥겨워라

# 우리 관리위원장

박영봉

잔등이 넘적한 큰몸을  
자라는 곡식들속에 수그리고  
직심스러이 땅을 가꾸어갈 때면  
탐스러운 포기포기들이  
그의 결싼 일손을 기다려 마중하는듯

설참에  
밭두렁에 앉아  
그 두터운 입술을 벌리고 웃을 때면  
함께 따라웃는 농장원들의 웃음소리에  
온 들판이 만풍의 기쁨으로 설레인다

땅에 깃들인 그의 노력으로 하여  
늘쌍 농장원들과 함께 있는것으로 하여  
벌에도 마을에도  
어데서나 사람들이 즐겨부르는 그

다락발에 물길을 짜던 젊은이들은  
그를 불러 청년돌격대원이라고  
논에 가면 흐르는 수로물이  
그를 물관리공이라 속삭이고  
야밤삼경 숲속의 부엉새도  
벌의 초병이라 그를 반기는듯...

간곳마다 사랑스런 말들이  
벌을 지나 오고가도  
그는 거기에 귀기울이지 않는다

그에게는 그때마다  
급히 풀어야 할 일들에 골똥하여  
찬이슬을 헤쳐야 했거늘  
날마다 그렇게 벌을 향해 사라지면  
그를 다시 보기란 정말 험치 않아

과수밭에 가면 방금  
수령님 찾으셨던 논머리에 있었다고 하고  
저기 양수장 더기에 가면 엇저녁  
첫애기 낳은  
제대군인의 새집 문턱너머에  
온다는 말도 없이 가만히  
미역보따리 놓고갔다는 이야기...

하지만 그를 만나기 어렵다 해도  
농장벌 어데서나 그를 본듯이 기쁘다  
땅처럼 미더웁고  
이삭인양 그 마음 수긋하고  
그 정열 파도치는 푸른 들에 넘치는 그  
온몸, 온 넋을 벌에 바쳐  
벌에 더없이 친근한 우리 관리위원장

그의 손자욱 력연한 벌 바라보느라면  
젊음이 물결치는 벌 그 한복판에  
웃으며 서있는  
그를 마주한듯하나니-



# 남조선에 류포되고있는 《순수문학》론과 그 문학의 반동성

장형준

오늘 우리앞에는 우리 문학을 더욱 혁명적이고 인민적인것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동시에 온갖 반동적부르조아문학을 반대하여 비타협적으로 투쟁하여야 할 전투적과업이 나르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반동적부르조아문학예술의 온갖 독소를 반대하여 단호하게 투쟁하여야 하며 우리의 붉은 문학예술을 더욱 전투적이고 풍부한 것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 모든 재능과 창작적열정을 바쳐야 할것입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225페이지)

오늘 남조선에는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의 반동적책동으로 말미암아 형형색색의 부르조아반동문학조류들이 횡행하고있다. 그가운데서도 최근년간 가장 머리를 쳐들고 날뛰는것은 《순수문학》론이다. 해방전시기부터 《순수문학》은 부르짖으며 문학의 계급성과 혁명적인 교양적기능을 반대해오던 부르조아반동소설가 김동리는 남조선에서 1970년대에 들어와 현실비판의 문학이 급속히 장성해지자 이를 반대하기 위하여 또다시 문학의 사회정치성과 현실적인 교양적기능을 부정해나섰다. 그러자 남조선의 몇몇 반동적문학평론가들이 《문학수호의 등불》을 밝혀주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그를 적극 비호해나서고있다.

이러한 조건에서 그들이 주장하는 《순수문학》론과 그 문학의 반동성을 까밝히는것은 남조선의 반동적부르조아문학조류를 폭로분쇄함에 있어서는 물론 남조선문학의 건전한 발전을위해서도 매우 긴절한 문제이다.

※ ※

남조선에서 부르짖고있는 《순수문학》론의 반동성은 문학의 사회정치성과 인민대중에 대한 그의 교양적기능을 반대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사회적의식형태의 하나인 문학은 일정한 력사적시대의 사회제도와 사람들의 정치생활, 경제생활, 문화생활 등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고 인민대중의 사상미학적교양에 이바지하는것을 자기의 숭고한 사명으로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의 부르조아작가 김동리는 《공리성, 사회성 편중》은 《한국문학을 오도》하는것이라고 하면서 문학의 《사회성, 공리성》을 반대하고있다.

문학의 교양적기능과 관련하여 《공리성》을 운운하는것이 우리의 비위에 거슬리는 말이기는 하나 그의 반동적견해를 까밝히기 위하여서는 이 말의 의미부터 따져보아야 할것이다. 그는 쓰기를 《공리성이란 현실적효율성을 가리키며 사회성이란 말속에는 정치성이란 뜻도 포함되어있다.》

고 하였다.

여기에서 명백한바와 같이 그가 반대하는 《공리성, 사회성》은 문학의 사회정치성과 인민대중의 사상교양에 효과적으로 이바지하는 문학의 현실적기능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는 문학의 《공리성, 사회성》을 반대한다고 하면서 사실상 추악한 남조선사회현실의 부정면을 그리며 비판하는것을 반대하고 당면한 현실적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문학을 떼어내려고 획책하였다.

이러한 목적밑에 그는 문학의 《공리성, 사회성》을 반대하면서 《시간적영구성과 공간적보편성을 지닌 문학》을 내세웠다.

그러면 과연 사회성, 공리성을 띠지 않은 작품이 시간적영구성과 공간적보편성을 지닐수 있다는 말인가? 절대로 그럴수 없다.

어떠한 작품도 당해 시대와 당해 현실을 옹계 반영하고 자기 시대, 자기 나라 인민에게 훌륭히 복무한 작품만이 시간적으로 영구하고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시간적영구성, 공간적보편성》을 《사회성, 공리성》과 분리시키고 대치시키는것은 해당 시대, 해당 사회현실을 반영하고 해당 시대, 해당 인민에게 복무하는 문학의 사회적성격과 교양적기능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반동적견해이다.

《현실적공리성과 사회성》을 지닌 작품이 다 《시간적영구성과 공간적보편성》을 지닌 작품으로 된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시간적으로 영구하고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는 작품은 어느것을 막론하고 다 《현실적공리성과 사회성》을 전제로 한다. 《현실적공리성과 사회성》을 떠나서는 《시간적영구성과 공간적보편성》에 대하여 절대로 말할수 없다.

김동리는 자기의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세계문학에서 몇개의 작품을 그 실례로 들었는데 그 작품들도 그것이 《시간적영구성과 공간적보편성》을 지닌 문학인 경우에 있어서는 언제나 《공리성, 사회성》과 《대치》되지 않는다는것을 증명해주고있다.

이것은 그가 레중한 작품들가운데서 셰크스피어의 비극인 《햄릿》하나만을 보아도 충분할것이다.

김동리는 이 비극의 주제를 한마디로 《회의》라고 규정하고 주인공의 성격이 《사색하는 인간형》으로 풀이된다고 하면서 《이것도 공리성, 사회성과는 거의 대척적인것》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햄릿》가 그 주제와 주인공의 성격에 있어서 공리성, 사회성과 상반되기때문에 《시간적영구성과 공간적보편성을 지닌 문학》으로 되게 되었다는것이다.

그러나 《햄릿》은 주제나 주인공의 성격으로

보아 결코 《사회성, 공리성》과 상반되는 그 어떤 초시대적 초공간적인 작품이 아니다.

연극의 무대는 비록 단마르크 왕궁으로 되어 있으나 봉건절대왕권이 지배하던 16세기말 17세기 초의 영국현실을 넘두에 두고 작품이 창작되고 있다.

그러므로 작품의 주제와 주인공의 성격은 어디까지나 당시의 영국현실을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사회성, 공리성과 상반되는것일수 없다.

이 작품의 주제를 《희의》라고 보는것은 전혀 가당치 않다. 작품의 기본문제는 김동리가 말한 바와 같이 주인공이 아버지의 망령을 만나고 다시 그것이 과연 실재일가 환상일가 하고 의심하는데 있지 않기때문이다. 다시말하여 이러한 의심을 푸는데 비극의 문제성이 있지 않다. 《햄릿》의 주제는 중세기적봉건왕권의 패륜, 패덕, 위선과 불의에 대한 개인적항거라고 말할수 있다. 그것은 이 연극이 왕자 햄릿을 주인공으로 하여 자기 아버지를 암살하고 왕위를 빼앗고 어머니마저 가로챈 삼촌의 극악무도한 반역과 패륜, 위선과 불의, 왕을 떠받들고있는 왕궁의 그 모든 봉건적지배세력에 대한 인도주의자의 증오와 개인적항거를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중세기적봉건왕권의 사회악과 그것을 빚어내는 지배세력을 반대하여 개인적으로 항거한 주인공의 운명이 파멸로 끝나는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햄릿의 비극은 그가 인도주의적리상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지 못하고 그 모든 사회악과 봉건세력을 반대하여 개인적으로 항거한데 있다.

연극은 햄릿의 비극적죽음과 그에 대한 폐의를 갖춘 장례를 통하여 중세기적인것에 대한 인도주의의 승리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햄릿》은 문예부흥기에 영국사회현실의 부장 부패를 폭로하고 당시의 영국인민들을 인도주의정신으로 교양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으로서 충분히 《현실적공리성과 사회성》을 지니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 작품이 그것이 창작된 자기 시대와 자기 나라의 범위를 벗어나서 영구하고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고있다고 할 때 그것은 주제나 주인공의 성격이 사회성,공리성과 《상치》되어있기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이 작품은 자기 시대, 자기 나라의 현실을 사회정치적견지에서 예리하게 반영하고 자기 시대, 자기 인민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답한것으로 하여 시간적으로 영구하고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이것은 부르조아작가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자기 시대, 자기 현실에서 절박하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여 주제로 하고 시대의 긍정적리상을 구현할수 있는 인간을 주인공으로 내세워야 그 작품이 자기 시대, 자기 인민에게 훌륭히 복무하고 나아가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영구하고 보편적인 의의를 가지게 된다는것을 말하여준다.

그러므로 공리성, 사회성을 반대하고 그와 동떨어진 문학의 시간적영구성과 공간적보편성을

찾는것은 문학에 현실적인 사회정치적문제를 담는것을 거부하고 문학을 초현실적이며 추상적인 세계에로 끌어가며 문학의 인식교양적기능과 혁명적사명을 거세하기 위한 흉악한 목적으로부터 나온것이다. 따라서 부르조아작가들이 말하는 문학의 《순수성》이란 저들의 부르조아적당성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적인 표현에 지나지 않는다.

## ※ ※

남조선에서 부르짖는 《순수문학》이 어떠한 문학인가 하는것은 《순수문학》론을 앞장서 주장하며 남조선의 반동적문단에서 《원로》라고 불리우는 부르조아 소설가 김동리의 문학이 무엇보다도 잘 말하여준다.

그는 문학의 공리성, 사회성을 반대하고 작품에 《인생의 영원한 문제》나 《형이상학적인것》을 다루라고 주장하였는데 그가 말하는 문학세계는 바로 신의 문제, 종교적세계와 같은 중세기적 신비주의의 세계이다.

그는 《신과 인간의 관계, 저승과 이승의 관계, 이것은 나의 창작적생활에 있어 일생을 두고 추구해가고있는 기본적인 과제》라고 말하였다. 그가 일생을 두고 추구해간다는 《기본적인 과제》가 어떤것인가 하는것은 그의 장편소설 《을화》에 그 집중적으로 드러나고있다.

20세기 마지막분기의 이 문명한 시대에 장편소설에 무당을 주인공으로 내세우고 샤머니즘을 옹호하며 미신을 선전하고 전파하고있다면 건전한 현대사람치고 누구도 이를 쉽게 믿으려고 하지 않을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다. 남조선의 《순수문학》작가 김동리가 바로 그렇게 하고있다.

그는 1936년에 무당을 주인공으로 한 단편소설 《무녀도》를 쓴바 있는데 그때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에도 아직 그 몽매한 세계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1978년에 또 장편소설 《을화》에 무당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 샤머니즘, 그 미신의 세계를 펼쳐놓았다.

샤머니즘이란 령혼(귀신)을 믿는 미신의 한 형태이다. 샤머니즘에서 특징적인것은 무당이 원시적인 미신적행사를 직접 담당하는것이다. 무당들은 자신을 령혼과 교제하는자로 자처하면서 굿을 비롯한 여러가지 미신적인 행사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미신을 믿도록 꾀한다. 무당들은 《령혼》에는 《선한 령혼》과 《악한 령혼》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산 사람에게 붙은 《악한 령혼》을 내쫓아 사람을 구원한다고 한다. 샤머니즘은 원시공동체사회에서 널리 퍼졌으나 그후에도 잔재로 계속 남아있다. 샤머니즘이란 말은 동부씨비리족의 하나인 통그스족의 언어인 《사만》(우리 말로 무당)에서 나왔다. 샤머니즘은 주로 동북아시아역나라들의 원시 종교로 알려지고있으나 세계의 다른 지역 나라들에도 널리 퍼져있다.

그러므로 샤머니즘은 우리 조선에만 고유한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작가 김동리는 샤머니즘이 마치 조선고유의것이거나 한것처럼 간주하면서 샤머니즘에 손을 댄것은 《신과 인간의 관계에다 민속 내지 토속을 결부시킴으로

써 유린되고 허물어져가는 민족의 고유한 일을 함께 찾고 지키자'고 한 것이며 《샤마니즘은 우리가 좀 더 문학적으로 밀착하여 승화시켜 볼만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유산》이라고 장편소설《을화》를 내면서 썼다. 이것은 이 작가가 얼마나 넓고 고루한 관점에 서있으며 얼마나 락후하고 몽매한 세계를 문학적으로 추구하고있는가 하는것을 말하여준다.

샤마니즘이 우리가 계승하고 문학적으로 승화시킬만한 《민족의 중요한 유산》으로 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우리 나라에 퍼져있었던 샤마니즘에는 조선에만 고유한 《특징》이 있을수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것이 오늘의 조선인민이 계승하고 발전시켜야 할 민족적이며 토속적인것일수는 없다. 오늘의 조선인민이 계승하고 내세워야 할 민족적이며 토속적인것은 오직 인민적이며 진보적인 유산일뿐이다. 낡고 반동적인것은 비록 그것이 지난날 우리 인민들의 생활에 있었던것이라고 하더라도 계승하고 지켜나갈만 한것이 되지 못한다. 샤마니즘과 같은 미신은 우리 인민이 계승하고 내세워야 할 민족적이며 토속적인것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오히려 그것은 철저히 청산되고 마땅히 극복되어야 할 원시적인 잔재이다. 그런데 작가라고 하는 사람이 샤마니즘, 그 미신의 세계에서 《민족의 고유한 열》을 찾으려고 하였으니 소가 옷다가 꾸레미 터질 일이 아니고 무엇인가! 그가 찾으려는 《민족의 열》이 조선인민의 슬기롭고 억센 민족정신과는 하등의 련관도 없다는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미신에서 《민족의 열》을 찾으려고 한것부터가 잘못이지만 샤마니즘은 어느 한때도 우리 민족의 운명과 깊은 관계를 가진적이 없다. 사람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미신, 그나마 일부 락후한 녀성들속에 퍼져있던 샤마니즘에 어떻게 민족의 열, 민족의 녀이 담겨져있겠는가?

그런데 이 유치하고 원시적인 샤마니즘에 《어느 종교에서나 철학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이승과 저승사이에 걸려있는 귀신의 존재가 비교적 뚜렷이 나타나있다.》고 하면서 이 허황한 미신의 세계를 소설에 그대로 옮겨놓고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장편소설 《을화》에는 주인공이 무당으로 되는 동기와 그 과정부터가 《신령님》의 분부인것처럼 미신적으로 묘사되어있다.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옥선이라는 젊은 녀자는 어린 아들이 마마(홍역)에 걸려 심하게 앓게 되자 성황당에 가서 정성껏 빈다. 그러던 어느날 밤에는 갑자기 어디선가에서 울려오는 《빠지(무당의 별명)한테 가거라》고 하는 《신령》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신령》의 분부대로 빠지무당을 데려다 곁을 하니 아이의 숨결이 편안해졌다는것이다. 아들이 일어난 다음 이번에는 옥선이자신이 석달이나 앓았는데 밤마다 어떤 로파가 꿈결에 나타나 그를 어디론가 자꾸 끌고다녔다. 그러다가 어느날 밤에는 《장승밑이다.》라고 하였다. 소스라쳐 깨어난 옥선은 장승이 서있는곳을 찾아가 그림을 파보았다. 거기에서는 청동거울과 옥가락지와 방울 하나가

나왔다. 이것을 가지고 빠지무당한테 가서 사연을 말하니 그것은 무당이 되라는 《신령님》의 분부라는것이다. 이렇게 하여 옥선이 무당이 되게 된다. 소설은 이러한 허황한 묘사를 통하여 세상에 귀신이 있다는것과 무당이란 바로 신의 뜻을 받아안은 존재라는것을 사람들에게 믿게 하려고 하였다. 이것은 무당의 《역할》을 신비화하고있는데서 더욱 뚜렷이 드러난다. 젊은 녀인은 무당이 되자 인차 유명해진다. 그가 곁을 하기만 하면 죽을 병에 걸려 앓던 사람도 그 즉시로 일어나있게 되는것이다.

이런 미신이야기는 이밖에도 소설에 많이 묘사되어있다. 죽은 어린아이의 귀신을 지피여서 점을 치는 이야기도 그중의 하나이다. 소설에 나오는 태주할미라는 점쟁이는 남의 집 4살짜리 아이를 독속에 가두어넣어 죽이고 그 아이의 새끼손가락끝을 잘라서 자기의 고이속에 차고있다. 그래서 그는 점을 잘 친다는것이다. 소설에서는 태주할미의 살인행위가 비난되고있기는 하나 죽은 아이의 혼으로 점을 친다는 미신은 그대로 긍정되고 있는것이다. 이것은 아이를 잃은 어머니가 아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것을 알아보기 위해 다른 부인과 함께 태주할미를 찾아가서 점을 치는 대목에서 볼수 있다. 은가락지를 잃었다고 꾸며내고 점을 치니 신주단우에 걸쳐두었던 검은 수건끝이 가는 바람에 나뭇가듯 잘게 하늘거리며 난데없이 《외바리》, 《나비함》 하는 가는 소리가 들려오는것이다. 그바람에 아이어머니는 그만 자기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기절한다. 그것은 분명 죽은 자기 아이가 틀림없었기때문이다. 아이를 죽였다는것이 폭로되게 되자 태주할미는 그날 밤으로 없어진다. 태주할미가 도망친후 을화무당이 이 집에 와서 죽은 아이를 찾는데 그것도 역시 미신적으로 그려져있다. 즉 무당은 이 집에서 잠결에 쿵쾅거리는 아이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내는데를 따라가 마침내 부엌뒤의 뒀안을 파서 거기에서 독속에 가두어넣어 죽인 어린아이의 머리칼을 찾아내는것이다.

이런 있을수 없는 허황한 미신에 대한 묘사를 통하여 소설은 귀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무당의 《신기한 힘》을 《보여주고있다》.

소설에는 무당인 을화와 그리스도교신자인 그의 아들사이의 《갈등관계》가 그려져있는데 이 관계를 통해서도 작가는 무당을 《신의 아들》로 보여주고 샤마니즘을 적극 옹호하고있다. 이것은 특히 주인공인 을화의 말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을화는 아들에게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하면서 보통인간은 저승에 곧장 가지 못하고 이승과 저승사이에 있는 귀신세계로 간다고 말한다. 그런데 불행하게 죽은 사람의 귀신은 이승의 변두리에서 빙빙 돌다가 살았을 때의 인연을 따라 산 사람에게 가붙는다는것이다. 그러면 사람이 병들게 되는데 이런 병은 약으로는 고치지 못하고 오직 무당에 의해서만 고칠수 있다는것이다. 그것은 무당이 《푸닥거리》나 《오구굿》을 하여 귀신을 사람한테서 떨어지게 하고 그를 저승으로 가도록 하기때문이라는것이다.

을화는 자기 아들에게 《내 푸닥거리로 귀신이 안떨어진 사람이 있고 내 오구에서 저승으로 천도 못시킨 귀신이 있는가》고 하면서 무당도 예수와 같은 《신의 아들》인데 어쩌서 너는 먼 타국의 옛날 《신의 아들》(예수)만 제일이고 살아있는 제나라 《신의 아들》(무당)은 외면하는가고 말한다.

사람들을 속이는 요사스러운 무당을 《신의 아들》로 내세우고 허황하고 유치한 샤머니즘을 민족적인것으로 추켜올려 사람들을 미신과 몽매 속에 빠뜨리려고 한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의 반동성이 있다. 이 소설뿐아니라 그의 다른 소설, 레컨대 《사반의 10자가》등도 역시 신과 인간, 현세와 래세, 천상적인것과 지상적인것간의 관계를 취급하고있다.

남조선의 사회현실에서 리탈하여 이런 원시적이며 중세기적인 신비주의세계를 즐겨 묘사하는것은 인민대중의 자주의식과 혁명성을 마비시키고 거세하여 그들을 지배계급과 착취계급에게 순종하는 영원한 노예로 만들기 위한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조선의 부르쵸아작가 김동리의 일생을 두고 추구하고있다는 신과 인간의 관계, 저승과 이승의 관계를 묘사하는 《순수문학》의 은폐된 반동적목적이다.

오늘 《순수문화》은 남조선의 근로인민대중을 우매화하려는 현군사독재체제의 반인민적정책을 비호하고 그 수행에 적극 복무하는 자기의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내놓고있다.

## ※ ※

현실은 문학의 모체이고 문학은 현실을 반영한다. 따라서 현실을 작가가 어떻게 보는가 하는것은 그의 사상을 규정하는 출발점으로 된다고 말할수 있다.

남조선의 부르쵸아작가 김동리의 문학에 대한 반동적견해도 추악하기 그지없는 남조선의 사회현실을 옹호하는 그의 반동적인 립장에 뿌리박고있다. 남조선현실이 부정부패, 부조리로 짙 차있으며 아주 절망적이고 폭발적이라는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는 사실이고 온 세계가 다 인정하고있는바이다. 이것은 전두환군사강패도당이 집권하고있는 오늘이나 박정희피괴도당이 도사리고있던 그때에나 마찬가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 작가 김동리는 남조선현실의 부정부패를 그린 작품들을 그해의 대표작으로 내세우는 평론가들을 비난하면서 비참하고 암담한 남조선현실을 비호해나섰다. 그러면서 그는 남조선현실이 《지금은 온 국민이

다 굶어죽게 되어있고 부정, 부패, 부조리만 차있는 암담하고 절망적인것입니까? 농촌에 가나 도시에 가나 그렇게 아주 폭발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되도록 절박하게 비참하게 되어있습니까?》라고 항의하였다.

이 작가의 《항의》에 대해서는 남조선의 현실자체가 잘 반박하여주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력대 군사파쑈도당들의 매국매족행위로 말미암아 340여억달러나 되는 엄청난 외국빚을 걸머지고 원료위기, 재정위기, 식량위기에 허덕이고있는데다가 수출관로마저 막혀 산업이 전면적파산에 직면해있다. 노동자들은 무리로 해고되고있으며 농민들은 정든 고향을 등지고 거리를 방황하며 류랑걸식하고있다. 실업군중은 홍수처럼 남조선에 차넘치고 물건값은 천정모르게 뛰여오르며 굶어죽는 참상들이 도처에서 빚어지고있다. 이것이 놈들의 소위 외자도입과 《고도성장》의 결과이며 미제의 식민지통치가 가져온 엄중한 후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생존을 위한 최저한도의 생활조건도 보장받지 못하고 기아선상에서 헤매고있는데 그들에 대한 전두환군사강패도당의 탄압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요구는 물론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마구 체포구금되고 무참히 학살당하고있다. 오늘 남조선은 하나의 커다란 《감옥》으로 되고있다.

그러므로 남조선현실은 과장 없이 말하여 폭발이 일어날만큼 절박하고 암담하다. 사실 남조선에서는 벌써 여러차례 폭발이 일어났다. 남조선인민들의 노도와 같은 폭발로 하여 매국역적 박정희가 1979년 10월에 꺼꾸러졌고 그후 정선지구 노동자들의 폭동이 일어났으며 그에 뒤이어 아세아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격렬하고 대규모적인 영웅적광주민항쟁이 또 터지지 않았는가!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에서는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속에서 대중적폭발이 일어나고있다.

부르쵸아작가 김동리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남조선현실은 바로 이러하다. 그러므로 남조선의 리성있는 작가들이 문학작품에 남조선현실의 부정부패를 그리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한것이이며 이러한 작품들가운데서 그해의 대표작을 고르는것도 응당한 일이다.

남조선의 《현실참여》작가들이 비록 남조선현실의 부정면을 작품에 심각하게 반영하였다고 하더라도 남조선현실의 비참성과 엄혹성에 비추어볼 때 그것은 아직 멀고 멀었다고 해야 할것이다. 그런데 김동리는

남조선현실의 부정면을 그린 《현실참여》문학과 사실주의적경향을 긍정하고 지지하는 남조선평론가들을 반대하여 피대를 돌구며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억지는 누구에게도 통할수 없다. 남조선평론가들이 지향하는 사실주의는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와는 그 사상적기초부터가 다른것이다. 다 아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의 세계관적기초는 로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 공산주의사상이다. 우리의 사회주의적사실주의창작방법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 구현인 우리 당의 로선과 정책에 기초하여 현실을 보고 그리며 민족적형식에 사회주의적내용을 담는것을 근본원칙으로 삼는다. 그러나 남조선평론가들이 들고나가는 사실주의는 그들 자신이 말하고있는바와 같이 발자크나 톨스토이의 사실주의 즉 비판적 사실주의이다.

이러한 사실주의는 사회현실의 부정면을 어느 정도 깊이 보여주고 예리하게 비판하면서도 많은 경우 이에 머무르고 사회적모순의 근본원인과 현실개조의 혁명적방도를 옳바로 밝혀내지 못하는것이다. 여기에 바로 비판적사실주의의 제한성이 있다.

그런데 반동작가 김동리는 이러한 사실주의경향에 대하여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는 사상적 감투까지 씌워 남조선 평론가들과 작가들을 위협 공갈하였다. 《반공》을 《국시》로 삼고있는 남조선에서 《사회주의》라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것을 모르지 않는 그가 박정희대국역도도 감히 그렇게 하지 못한 악랄한 방법으로 남조선 평론가들과 작가들을 공격하고있으니 이런 무도한 일이 또 어데 있겠는가.

만일 그가 말하는데로 현실의 부정면을 그린 작품들을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해야 한다면 지난 시대의 이름있는 사실주의작가치고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가 아닌 사람이 없을것이다. 발자크나 톨스토이 같은 비판적사실주의작가는 물론 셰스피어와 같은 문예부흥기 사실주의작가도 다 《사회주의적사실주의작가》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런 웃지 못할 망발은 그가 사회주의적사실주의를 리해하지 못해서가 결코 아니다. 이것은 그가 극악한 《반공》분자이기때문이다. 《반공》작가로서의 그의 정체는 다음과 같은 그의 글에서로골적으로 드러나고있다.

《내가 수년래 한국문단의 특수한 흐름에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한것은...나와 우리의 자유를 지

키기 위하여 한국의 적화를 막아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그는 《순수》의 너울을 스스로 벗어 놓았다. 그가 말하는 《우리》란 남조선의 군사강패도당과 지주, 예속자본가들이다. 왜냐 하면 남조선에서 《반공》을 구실로 하여 인민들을 탄압하고 착취하는 《자유》를 누리는자는 바로 이들 뿐이기때문이다.

권세있고 배부른자들의 《자유》를 지키려는 반인민적목적으로부터 그는 문학에서 남조선현실의 부정면을 비판하는것조차 두려워하면서 것처럼 《반공》의 몽둥이를 마구 휘둘러대는것이다.

그러나 현실의 부정면을 비판하는 사실주의경향의 문학이 《적화》를 위한 문학이 아니라는것은 세계문학에서 그례를 들 필요도 없는 하나의 상식이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적사실주의》에 대한 김동리의 폭언은 인민대중에게서 배격받고 고립된 《반공》분자에게서만 볼수 있는 일종의 신경과민과 정신적과열상태를 보여주는것으로서 거기에는 한조각의 진실도 없다. 그의 위협공갈은 남조선문단에 하나의 웃음거리를 남겨놓았을뿐이다.

사실 김동리의 이 폭언을 지지하는 작가나 평론가는 별로 없다. 한두 반동평론가가 김동리의 편을 들기는 하였으나 그의 회극적영상을 지워낼수는 없었다. 왜냐 하면 비판적사실주의를 《사회주의적사실주의》라고 증명해낼수는 도저히 없었기때문이다.

김동리의 《순수문학》론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자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시대와 인민대중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것이다.

만일 그들이 평론과 창작에서 이룩하지 못한 《순수문학》의 《우세》와 《승리》를 강권의 힘을 빌어 이룩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생활의 진리와 인민의 요구는 그 어떤 강권이나 탄압으로써도 억제될수 없다.

오늘 전두환군사강패도당의 전례없는 탄압으로 밀미암아 남조선의 진보적작가들이 심각한 시련을 겪고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의 문학력사가 증명하여주고있는바와 같이 사실주의문학은 어떠한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인민대중과 함께 자기의 길을 곳곳이 걸어 오지 않았는가! 남조선의 진보적인 문학인들도 군사강패도당과 어용 작가, 평론가들의 어떠한 폭압, 어떠한 공격에도 꺾이지 않고 인민의 편에 튼튼히 서서 이미 개척한 사실주의의 길을 따라 더욱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것이다.

# 날려보낸 화살

강학래

## 1

때는 기원 28년, 추석을 이틀 앞둔 달밝은 밤이다.

대무신왕의 부름을 받고 한나라 침략군들을 물리칠 계책을 의논하는 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돌아오는 좌보(국왕밀에 있던 높은 관직이름)을 두지의 마음은 지못 무거웠다.

기원 10년경에 들어서면서부터 한나라 침략자들의 침략기도를 짓부시면서 고조선의 옛땅을 되찾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려 한나라 침략세력의 동쪽 전초기지였던 룡서지방을 공격하여 그곳 장관인 전담놈까지 처단해버리며 천하에 위세를 떨치던 고구려가 오늘은 불의에 쳐들어온 룡동태수의 수많은 군사들의 공격을 받아 일시적이나마 어려운 시련을 겪지 않으면 안된 것이 못내 가슴아팠던 것이다.

<물때문에 고구려에서 제일 견고한 성이라고 일러오던 위나암성(집안에서 서북쪽으로 10리 떨어진 곳에 있는 성이름)을 더는 지탱할 수 없게 되다니, 이게 될 법이나 한 말이나?>

을두지의 머리속에는 방금전에 있는 모임에서 대무신왕이며 수하 장수들이 기염을 토하며 주고받던 말들이 꼬리를 물고 떠올랐다.

《한나라 군사들이 성을 에워싸고 달포가까이까 막 움직이지 않는 것은 도대체 무슨 까닭이고?》

눈에 불을 담고 한동안 말없이 좌중을 둘러보던 대무신왕이 조용히 묻는 말이었다.

누구나 다 알고싶고 혹 아는 사람이 없는가 하여 서로 묻고싶어하던 말이었다. 한달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기승을 부리던 적들인가.

처음에 적들은 위나암성을 에워싸자 산성의 정문인 남문앞에 세명의 《사자》를 보내어왔다. 사연을 알아본즉 룡동태수의 전갈을 가지고 왔다고 하여 을두지가 나가 맞아들였다. 그런데 방자하게도 한낱 지방장관에 불과한 룡동태수가 함부로 왕의 이름(무휼)을 부르면서 룡동의 여러 성이 이미 세손안에 들어왔으니 목숨이 아깝거든 빨리 성문을 열고 나와 항복할 것을 요구하고있다는 말을 전해듣자 좌보 을두지는 분기를 참지 못하여 그 사자놈들을 성문으로 내보내지 않고 개구리뎡개치듯 성밖으로 집어던지게 하였다.

그 광경을 바라보던 룡동태수는 머리칼이 울울이 일어섰는지 겹겹이 둘러싸고있던 수많은 군사들을 내몰아 고구려의 위나암성을 단숨에 삼킬양으로 덤벼들었다. 수십만의 아우성은 산을 허물어내리는 것 같았다. 둘레가 20리나 되고 높이가

서너길도 넘는 웅대한 성, 게다가 산등선에 쌓은 성이라 급한 경사가 다시 수직적이다. 이런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조련치 않은 일이었다. 그러나 적장은 물러서려 하지 않고 흠주머니와 군사들의 시체로 깊은 골짜기를 메우며 연속적인 공격을 들이대었다.

사닥다리들이 성벽에 석가래처럼 걸리었다. 무쇠투구와 무쇠갑옷을 입은 고구려군사들은 철퇴와 도끼와 칼과 창을 들고 사다리를 타고 기어오르는 적들의 골통을 박살내고 목을 찢르고 하였다. 그러다가도 파리떼처럼 달라붙은놈들의 사다리를 뒤로 벌렁 쳐켜 요정내기도 하고 간혹 성우에 올라서는놈이 있으면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와락 달려들어 성밖에 집어던지거나 같이 덩굴어 성밖으로 떨어지기도 하였다.

한나라 군사들의 사닥다리에서는 피가 폭포처럼 흘러내렸다. 사람들의 아우성, 군마들의 울부짖음, 성둘레는 삽시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을 연상시켰다.

이렇게 되자 적들은 건디다 못해 이번에는 땅 밑으로 기어들려고 땅굴을 파더니 다시 잠잠해졌는데 그것이 벌써 달포전 일이다. 사정이 이러했던만큼 적들의 기도가 누구에게나 금급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좌중에서 제일 성미가 급한 우보(국왕밀에 있던 높은 관직이름) 송옥구가 침묵을 깨뜨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우리한테 물이 없는 기미를 알아챈게 아닐가 아뢰오?》

《그걸 저놈들이 어떻게 알것이고?》

대무신왕이 다시 물었다.

《소문이 나갔을런데 없습고 짐작컨대 땅굴을 뚫다가 물기가 없는 것을 보고 눈치챈게 아니온가 하옵니다.》

송옥구가 그렇지 않느냐는 듯 좌중을 둘러보았다.

《아무리 그렇기로 적들이 우리가 물준비없이 성안에서 싸우리라고 감히 생각인들 할 수 있겠느냐?》

대무신왕은 그 말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렇기도 하옵니다. 아무리 미련한 적들이기로서니 어찌 그런 요행을 바라고 이 먼곳까지 와서 싸우자고 하겠사옵니까?》

대무신왕의 눈치를 살피던 한 신하가 조갈이인 입술을 혀끝으로 추기고나서 자기 생각을 털어놓았다.

대무신왕은 그의 말은 들은듯만 듣고 좌중을

둘러보며 가부를 물었다.

《아무튼 우리는 지금 형세로 보아선 사흘안으로 큰 비가 내리지 않으면 문을 열었지 별수 없게 되었다. 비를 기다릴것이나, 군사들이 더 지치기전에 나가 싸울것이나, 이 두 갈림길에서 어느 길을 택하는게 옳을고?》

우보 송옥구가 비분강개한 어조로 다시 말을 이었다.

《내 이전에도 주장한바 있지만 서북지방의 여러 성이 아직 다 떨어지지 않았으니 우리가 나가 싸우면 그곳 백전로장들도 용기를 내어 저 오랑캐놈들을 전후좌우에서 족칠것이니 한나라의 백만대군도 두려울것이 없을줄로 아뢰오.》

《그건 안되오. 피끓는 생각으론 당장 나가 적과 싸움을 결단하고싶지만 지금 형편에선 그것이 오히려 국운을 위태롭게 할뿐이라고 생각하오. 내 오늘 진중을 돌아보니 물때문에 우리 군사들이 기진맥진해서 싸울 생각이 없고 물때문에 발광하는 자가 한둘이 아니요. 지금 와서 싸운다는 건 죽기매일반이니 좀더 자중하는것이 좋을것 같소.》

국왕에게 하는 말인지 우보에게 하는 말인지 알수 없는 어투로 좌보 을두지가 말하였다.

대무신왕은 결심이 서지 않는지 손가락으로 팔결이를 다독이더니 이윽고 을두지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좌보의 의향은 어떠하오. 어느 길을 택하는게 좋겠소.》

을두지는 선뜻 대답을 못하였다. 성문을 열고 나가서 사생결단을 하자고 할수도 없고 그렇다고 무작정 비를 기다리자고 할수도 없는 일이였기때문이다.

위나암성에는 본시 큰 못과 우물도 수십개 있었다. 그래서 적들에게 포위될 당시 누구도 물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수십년래에 처음 보는 왕가물이 계속되어 샘줄기를 말려버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료동으로부터 밀리기 시작한 수만명의 군사들까지 성안에 들이닥쳐 못과 우물물이 마침내 바닥이 드러나고말았다. 어찌나 불별이 무섭게 내리쬘었던지 지어 임금의 수라상(임금이 먹는 밥을 수라라고 한다)에 올릴 잉어를 기르기 위해 파놓은 못물마저 바싹바싹 졸아들어 두세마리의 잉어가 감탕판에서 덩굴며 아가미를 벌름거리는 모양은 차마 눈을 뜨고 볼수 없는 광경이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사람들의 온 정신이 물에만 가있어 오늘은 여기를 뚫고 래일은 저기를 뚫고 하면서 어디서 물이 난다 하면 우 그리로 밀리고 나중에는 성루의 파수군들도 초소를 버리고 물을 찾아 해매는 판국이었다. 목이 말라 죽는 사람도 나오고 허를 깨물어 피를 마시는 사람까지 나왔다. 이런 형편에서 적과 싸운다는것은 자멸의 길을 택하는것으로 될뿐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있던 좌보 을두지는 국왕의

얼굴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소신은 어느쪽도 택하고싶지 않습니다. 지금 형편에서 우리는 무엇보다 한나라 군사들의 내정을 알아내는것이 급하다고 보웁니다. 그놈들이 과연 우리가 물에 궁한줄 알고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는지, 아니면 랑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또 성을 넘을 무슨 기구를 만드는지, 적의 군량은 앞으로 얼마나 견딜수 있는지 이걸 탐지한 연후에라야 그에 맞는 계책을 세울수 있을 줄로 아뢰나이다.》

대무신왕은 고개를 크게 끄덕이고나서 자기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는 을두지에게 그 소임을 맡기었다.

지금 을두지는 어떻게 하면 대무신왕을 안심시키겠는가 하는 생각에 잠겨 뜨적뜨적 걸음을 옮기고있었다. 그가 남문앞에 거의 다달았을 때였다. 문득 그의 귀전에 아츠러운 비명소리가 들려 그는 번쩍 고개를 들었다.

남문 성벽우에서 두사람의 그림자가 얼쩡거리더니 그중 한사람이 성아래로 굴러떨어지고있었다.

을두지는 나는듯 달려가서 먹살을 잡아 일으켜 보았다. 뼈가 없는 사람처럼 흐들거렸다. 벌써 시체가 된것이였다. 여기저기서 군인들이 모여들고 성우에서 그와 똑씨름하던 사람도 뛰어내려왔다. 그는 남문에서 편장(백여명의 군사를 거느린다)노릇을 하고있는 을두지의 아들 이사달이였다

《무슨 일이나?》

을두지는 엄하게 물었다.

《미친 사람처럼 물, 물 하면서 적진으로 넘어가려는것을 제가 막는다고 철퇴를 휘두르며 달려들기에 ...》

이사달은 숨을 헐떡거리며 사실대로 여쭙었다.

《적들이 눈치채진 않았느냐?》

《제가 인차 입을 틀어막아서 다행히 적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을두지는 알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주억거렸다. 그리고는 못내 가슴이 아픈듯 원망스런 눈길로 비를 주지 않는 하늘을 쳐다보았다. 이윽고 그는 고개를 떨어뜨리며 추상같은 목소리로 명령하였다.

《전령관은 가서 내 말을 끌어오고 남문 장관과 편장은 군사들을 정렬시켜라!》

전령관이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대오를 짓는 구령소리가 나자 사람들이 한동안 웅성거리였다.

전령관이 땀을 뻘뻘 흘리며 말을 끌어오자 을두지는 이번에는 수문장에게 남문을 활짝 열어제끼라고 명령하였다.

수문장은 영문을 몰라 좌보의 얼굴만 응시하고 있었다.

《왜 그러고 섰느냐? 어서 문을 활짝 열어서 저 군사들이 물때문에 저런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해주어야 하지 않느냐. 내 좌보로 더는 저런 꼴을

못보겠다.》

《그 일만은 차마 못하겠사옵니다. 차라리 이 목숨을 끊어주십시오. 소신은 고구려의 충신으로 죽고싶사옵니다.》

수문장은 두팔을 짹 벌리고 바위처럼 남문을 막아섰다.

일이 이렇게 되자 누구보다 놀란것은 이사달이었다.

(아버지가 왜 갑자기 저러실까? 고구려를 위해 백전로장으로 한생을 늙어오고 또 자식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던 아버지가 오늘은 왜 남문을 열라는건가? 고구려를 통채로 들어 원수의 아가리에 떨어놓자는건가? 아니 그럴수 없다.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 누구보다 원수를 미워하는 아버지다. 룡동태수의 전갈을 가지고 온 한나라의 세 사자놈을 개구리팽개치듯 서너길도 넘는 성너머로 집어던지던 아버지가 아닌가. 그때 나는 성우에 나는듯 달려올라가 한나라말로 얼마나 통쾌하게 웨쳤던가. .

《이 오랑캐놈들아, 이게 고구려사람들의 대답이다. 눈깔만 멀뚱거리지 말고 저 사자놈들의 시체나 끌어가거라. 제 동료들의 뼈다귀 하나 끌어갈만한 의리도 없는놈들이 우리 고구려를 먹어보겠다구? 어렵도 없다. 이 돼지같은놈들아!》

호탕한 웃음, 끝없는 야유, 그로 하여 달려드는 적들을 또 얼마나 통쾌하게 족쳤던가! 그렇게 범처럼 사납던 아버지가 오늘은 수문장에게 남문을 열라고 호령하다니? 물론때문에 저 군사들보다 먼저 리성을 잃은게 아닐까?

그는 아버지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한 목소리로 말하였다.

《아버지, 이게 웬일이십니까? 이 땅 고구려를 그렇게도 사랑하시던 아버지가 어찌된 일이십니까? 저걸 보십시오. 저 부르튼 입술들을말이에요. 마른침을 삼키면서라도 이 고구려를 위해 한목숨 바칠 각오를 하고 서있는 저 군사들이 아버지눈엔 한낱 이 배신자같은 인간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까. 네 ?》

《모르는 소리! 오늘은 한사람의 배신자가 나왔지만 래일은 두사람, 모레는 세사람, 하늘이 비를 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 이 몰골이 되겠는데 좌보로서 내 어찌 차마 눈을 뜨고 그 꼴을 본단 말이나. 차라리 성문을 열고 가까운 저 생명들을 구하는편이 낫지 ...》

《리치는 그러하오나 우리 고구려군사들이 언제 저 오랑캐놈들앞에 무릎을 꿇적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한 곤난이 앞을 막는대도 우리는 결코 적들편에 넘어가지 않을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고구려군사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이사달은 자리에서 일어나 대오를 짓고 선 군사들을 향하여 소리쳤다.

《고구려병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물때문에 무서운 시련을 겪고있습니다. 우리앞에는 지금 물

과 고구려를 바꾸느냐 고구려를 지켜 갈증을 이겨내느냐 하는 갈림길에 놓여있습니다. 그러니 이 편장과 함께 목숨이 진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사람들은 이쪽에 나서십시오. 그래도 물과 신성한 우리 고구려강토를 바꾸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저쪽에 나서십시오.》

이사달의 말이 떨어지기 바쁘게 군사들이 한동안 웅성거리며 이쪽으로 옮겨섰다. 물과 고구려를 바꾸겠다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었다. 이사달은 다시 아버지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두손을 다른쪽무릎우에 정히 포개여었으며 간절한 목소리로 애원하였다.

《보십시오. 아버지, 우리 고구려군사들은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래도 아버지는 저 남문을 열라고 하십니까? 네 ?...》

좌보 을두지는 여전히 근엄한 표정을 짓고 아들을 굽어볼뿐 자기의 결심을 고치려 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그래도 굳이 성문을 여시겠다면 저에게 한가지 계책이 있으니 그것을 리행한 연후에 성문을 열도록 해주십시오.》

계책이란 말에 을두지는 귀가 번쩍 열려 다급히 물었다. 《계책? 무슨 계책이나? 어서 말해보아라.》

《여기서는 말할수 없습니다.》

《그건 왜?》

《비밀을 담보할수 없기에...》

《그럼 좋다. 네 소원이 그렇게 군사들이 모두 너와 뜻을 같이 하니 나는 물러가겠다만 다시 물때문에 군기를 문란하게 하는자가 나타나면 사정을 두지 않고 목을 치겠으니 그리 알아라. 다른 할 말이 없느냐?》

《없사옵니다.》

이사달이 선뜻 대답하였다.

《왜 군사들은 잠잠하냐? 너희들도 다른 할말이 없느냐?》

《없사옵니다.》

군사들도 이구동성으로 힘차게 대답하였다.

《그럼 너는 군사들을 헤치고 곧 내 처소로 오너라. 네 계책이 뭔지 그걸 들어봐야겠다.》

《네, 알겠사옵니다.》

을두지는 흡족한 마음으로 말안장에 뛰어올라 발꿈치로 배허벅을 힘껏 걷어찼다. 말은 한걸음 뒤로 물러섰다가 네굽을 안고 나는듯 달리였다.

## 2

좌보 을두지가 거처하는 방은 창문마다 구슬발이 드리우고 구석마다엔 으리으리한 퀘짜들이 놓이고 방한복판에는 호랑이가죽을 씌운 의자며 청룡을 부각한 향로 등이 놓여있어 자못 엄엄하고 풍치가 우아하였다.

창문가에 서서 구슬발을 한손으로 걸어올리고



비를 주지 않는 은하수비긴 하늘을 바라보던 을두지는 이사달이 들어서자 곧 몸을 돌려 그에게 자리를 권하였다.

《어서 앉거라. 너는 내가 남문을 열겠다는 절정말인줄로 알았느냐?》

이사달은 가족의자에 앉으며 대답하였다.

《네.》

《다른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알더냐?》

《네, 다들 그렇게 알고 가슴들이 뜨끔했습시다.》

을두지는 호탕하게 웃었다. 자기의 소원이 성취된것이 못내 기뻐던것이다.

이사달은 영문을 몰라 왜 웃는가고 물었다. 그제야 을두지는 정색하고 말하였다.

《너한테니 말한단만 나는 처음부터 남문을 열 생각은 꼬물만큼도 없었다. 물때문에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군기를 바로세우고 난관앞에서 동요하는 고구려군사들에게 힘을 주려구 짐짓 엄하게 그런 령을 내린게다. 이제는 내 마음을 알겠느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사달은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어놓는 아버지의 그 기지에 다시한번 머리를 숙이지 않을수 없었다. 아버지의 그 뜨거운 애국충정을 리해하지 못하고 군사들앞에서 열변을 토하기까지 한 자신이 어리석게 생각되기도 하였다.

(나는 언제 가야 아버지처럼 로숙하게 군사들의 마음을 격동시킬줄 아는 그런 지휘관으로 자라나게 될까?)

이사달이 이런 생각에 잠겨있을 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젠 잡담은 그만하고 네게 있다는 계책이 뭔지 그거나 들어보자.》

이사달은 허끝으로 터슬터슬 트기 시작하는 입술을 추기고나서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며 조심스럽게 말하였다.

《저의 계책이란 다른것이 아니라 적진에 들어가서 놈들의 내정을 렴탐해보자는것입니다. 놈들이 우리 성안에 물이 없는걸 아는지, 또 놈들에겐 어떤 난관이 있는지, 그걸 알아낸다면 우리도 계책에 궁하지 않을줄로 아옵니다.》

좌보 을두지는 고개를 끄덕이였다.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있는것이 기뻐했던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고 되물었다.

《생각은 좋은데 적들의 형편을 탐문할 방법이 있겠느냐?》

이사달은 얼른 대답을 못하였다. 그에게는 자기를 희생시키는 한이 있어도 고구려를 위기에서 건져내야 한다는 이 하나의 신념만이 있었을뿐이였다.

《죽음을 각오하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한나라 말을 잘하니 하다못해 귀동냥을 해서라도 놈들의 내정을 꼭 탐지해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뭐? 네가 그 사지판에 들어가겠단말이냐?》

《네, 제가 직접!》

을두지는 미간을 모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것은 허락할수 없다는 말없는 암시였다.

이 순간 을두지는 이사달이 자기가 낳은 아들이었다면 못내 대견하여 부둥켜안고 열싸 불을 비비며 어서 떠나라고 그의 넘적한 잔등을 두드려줬을것이다. 그러나 그럴수 없는것이 못내 안타까와 오래동안 미간을 찌지 못하고있었다.

이사달은 본시 을두지의 아들이 아니였다. 그는 고구려현의 이름난 사냥군 고뉴의 아들이였다. 을두지가 군사를 이끌고 나가 현도군의 고구려현을 탈환한후 그곳 질서를 바로잡는 한편 짬만 생기면 산에 올라 사냥을 즐기였다. 그때 그를 따라다니며 그의 사냥을 보좌해준 사람이 바로 이사달의 아버지 고뉴였다. 일생을 사냥으로 보낸 고뉴의 사냥솜씨는 참으로 탄복할만한것이였다. 그 어떤 큰 짐승과 맞다들어도 머리털 한오리 쭉뻗함이 없이 화살이나 창보다 앞서 눈정기로 짐승의 의기를 꺾군하였으며 어떤 험준한 산길에서라도 짐승이 뛰는만치 말을 달리거나 앞서 달릴 때라야 활통에서 살을 뽑군하였다. 달림으로 짐승에게 뒤떨어져가지고 활을 당기거나 창을 던지는것은 사냥하는 사람의 정신이 아니라고 그는 늘 말하군하였었다. 이런 사냥솜씨를 가진 그가 어느날 갑자기 달려든 한나라 오랑캐놈들과 싸우다가 을두지에게 날아오는 화살을 몸으로 막고 숨이 지고말았다. 을두지는 못내 그의 죽음을 애석히 생각하여 그가 남긴 일점혈육인 이사달을 데려다 자기의 양자로 삼고 무술을 익히게 하여 오늘은 이렇듯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할줄 아는 끝 끝한 장정으로 자라난것이였다.

을두지는 온몸에 혈기가 넘쳐나는 이사달의 용모를 감회깊은 눈길로 바라보다가 천천히 방안을 거닐기 시작하였다. 그가 낳은 자식도 아닌 남의 자식을 적진에 보내자니 선뜻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것이다. 고뉴의 그 장한 기상을 닮아 무술에 들어서는 당할자 없고 또 한나라놈들이 통치하던 땅에서 살아 한나라말을 막히는데 없이 잘한다지만 사람의 일은 알수 없는것이다. 사나이로 칼을 차고 나섰다가 어엿이 싸워보지도 못하고 적의 손에 잡혀 발모듬에 죽는다면 이보다 더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을두지는 좀처럼 마음을 질정할수가 없었다.

을두지의 이런 심정을 알리 없는 이사달은 이번에는 아버지앞에 한쪽무릎을 꿇고 앉아 간절한 목소리로

《아버지, 왜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나라의 운명이 칠성판에 올랐는데 저라고 왜 사지판에 못 들어가겠습니까. 꼭 저를 보내주십시오. 네? 아버지!》

을두지는 두뼉두뼉 창문가로 다가가 구슬발을 쳐들고 검푸른 하늘을 내다보았다. 하늘에서는

금빛을 뿌리며 별들이 깜박이고있었다. 영원한 빛을 뿌리는 저 별과 같이 자기의 기억에서 사라질 줄 모르는 고뉴의 모습을 그려보며 그는 혼자 말로 중얼거렸다.

《고뉴, 나를 용서하라구. 아무래두 자네의 아들 이사달을 보내야 할것 같네.

나라가 있어야 자식도 있고 백성의 안녕도 있으며 오늘과 같은 이 무서운 갈증도 면할수 있을게 아닌가. 자식보다 나라가 더 귀중하다는거야 나보다도 오랑캐놈들과 싸워온 자네가 더 잘 알걸세. 게다가 한나라 진중에 들어가 적정을 탐지할만한 위인도 이 진중에 이사달만큼한 책임자가 없다는것도...》

마치 고뉴의 허락이라도 받은듯이 구슬발을 내려드리우고나서 을두지는 방한복판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은 이사달앞으로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는 조용한 목소리도 정답게 물었다.

《애야, 네가 꼭 가야만 하겠느냐? 그 어려운 일을 네가 감당할만 하나?》

《아버지, 마음을 놓으십시오. 한목숨 바쳐서라도 오랑캐놈들의 내정을 탐탐해가지고 꼭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다 못돌아올 경우에는? ...》

《그때는 화살이라도 날리겠습니다.》

을두지의 얼굴에는 기쁨의 미소가 물결쳤다. 얼마나 미더운 아들인가! 나라를 위해 한목숨 기꺼이 바치겠다는 그의 결심은 또 얼마나 대견한가!

을두지의 입에서는 저도모르게

《내 저녀석을 헛기르진 않았구나!》라는 말이 새어나왔다. 을두지는 이사달에게 크나큰 믿음을 주려고 그의 양어깨를 힘있게 쥐었다 놓고나서 가벼운 걸음걸이로 방한쪽 구석에 다가가 으리으리한 궤짝을 열고 그속에서 찰막한 칼 한자루를 꺼내들고 와서 이사달앞에 내밀었다.

《이걸 받아라. 이건 너의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물이다.》

《네? 아버지가 남기고 간 유물이라니요?》

이사달은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에 그만 아연해지고말았다.

《그렇다. 너의 진짜 아버지는 내가 아니라 고구려현의 용감한 사냥꾼 고뉴였다. 나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가 갑자기 달려든 한나라놈들과 싸우다가 나를 대신해서 장렬한 최후를 마쳤다. 저 한나라 오랑캐들은 네 살부지수(아버지를 죽인 원쑤라는 뜻)다. 그러니 저놈들과는 끝까지 싸워야 한다.》

아버지의 손때 묻은 칼을 받아든 이사달의 눈에서는 주먹같은 눈물이 툭툭 떨어졌다. 너무도 놀라운 소식이였다. 그는 칼자루에 활을 비비며 오한이라도 만났듯 몸을 부르르 떨었다. 그의 가슴에는 복수의 일념만이 차오를뿐이였다.

《사지판에 뛰어들 너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건 네가 네 근본을 알고 싸우기를 바라서다. 자식도 귀중하지만 나라가 더 귀중하기때문에 너를 보내는것이니 부디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이 밤으로 적진에 들어가겠습니다.》

을두지는 머리를 가로저었다.

《오늘밤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낳아준 아버지께 대한 이야기나 실컷 듣고 래일밤 성을 넘어 적진에 들어가도 늦지는 않다.》

을두지는 이사달의 양어깨를 지그시 눌러 자리에 앉힌 다음 자기도 그앞에 마주앉았다.

### 3

추석을 하루 앞둔 밤, 동쪽하늘에 달이 엿비듬히 걸렸다. 다행히도 초저녁이여서 달이 아직 높이 뜨지 않았기때문에 성벽서쪽은 그믐밤같이 캄캄하였다.

망대로부터 아무런 적정이 없다는 신호를 받아 을두지는 성밖으로 바줄을 내려드리우고나서 한나라 군사로 변장한 이사달의 손을 굳게 잡았다.

《어서 떠나거라. 회소식을 기다리겠다. 돌아오지 못할 형편이면 남문기둥에 활이라도 쏘아라.》

《네, 고구려인민의 기대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이사달은 하직인사를 고하고나서 바줄을 타고 성을 내리었다. 성밑에는 한나라 군사들의 시체가 너저분하게 널려있었다, 그는 잠시 몸을 숨기고 주위의 동정을 살피었다. 피비린내와 악취가 풍겨올뿐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그는 성가퀴의 그림자를 쳐다보며 바줄을 흔들었다. 그것은 무사히 내렸으니 바줄을 거두라는 신호였다.

그는 다시 적정을 살피면서 품속에서 칼을 꺼내어 입에 물었다. 그리고는 배를 땅에 바싹 붙이고 천천히 경사가 급하게 진 산비탈을 내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눈앞에는 물때문에 허를 깨물고 마른침을 삼기고있는 전우들의 모습이 자꾸만 어른거리고 자식도 귀중하지만 나라가 더 귀중하기때문에 보내는것이니 부디 조심해서 다녀오라고 하던 을두지의 말이 귀전에 쟁쟁히 울려오는 것이였다. 그는 지금에 와서야 비로소 자기의 양어깨에 나라의 운명이 무겁게 실려있다는것을 깨달았다.

한치한치 조심스럽게 기여내려가던 그는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는것 같은 감촉을 받았다. 그는 얼른 입에 가로 물었던 칼로 바위턱을 쿵쥔려 몸을 버티여냈다.

얼마나 기였는지... 등성이 하나를 넘어 버딩쪽으로 내려가고있는 그의 등골에서는 땀이 흘렀다.

지금 그의 몸에서 제일 예민한것은 귀였다. 심장이 뛰는 소리조차 북을 울리듯 쿵쿵 들리었다.

한치를 기고 둘러보고 두치를 기고 귀기울이며 그는 가까스로 우묵한 골짜기에 내려섰다. 여기서부터는 행동이 좀 자연스러웠다. 몸을 낮추고

꿀짜기를 따라 또 얼마간 기여내려가던 그는 그냥 엎드린채 다시 귀를 강구었다.

어디선가 돌돌돌 물흐르는 소리가 정답게 들려왔다.

《아, 동구하로 흘러가는 물이로구나!》

얼마나 그림고그림던 물인가! 저 물이 없어 성안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목이 말라 죽어가고 있다.

《물! 물!》 그는 미친 사람처럼 물을 찾으려 적진이라는것도 까맣게 잊고 허둥지둥 기여내려갔다. 이제는 손을 뻗치고 한번만 더 배밀이해나가면 물가에 닿게 될 순간, 그는 그만 돌을 굴러떨락! 소리를 내고야말았다, 그가 막 고개를 쳐들려고 하는데 아래쪽에서 《이 자식아!》 하는 소리가 뒤미처 들려왔다. 이사달은 머리칼이 오싹 일어서었다. 물때문에 헤엄비다가 적들에게 들킨줄 알고 입에 물었던 칼을 얼른 바른손에 비껴들었다. 그리고는 소리가 난쪽을 유심히 살피면서 몸을 빙그르르 돌려 아래도리를 물속에 푹 잠그었다. 그 위급한 순간에도 물에 대한 욕망만은 버릴수 없었던것이다.

《왜 자꾸 벼쳐거리는거야, 망할자식같으니! 가재를 잡아먹으려다 고구려사람들의 화살을 먹으려나!》

자기쪽을 넘겨다보며 한나라 군사가 하는 말이였다.

이사달은 비록 놈들에게 들키긴 하였지만 이놈이 자기를 제편사람으로 안다는것을 눈치채자 몰아넣었던 숨을 후- 내쉬었다.

《넌 아직 못잡았니?》

이사달은 한나라말로 넌지시 물어보았다.

그놈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계두덜거렸다.

《방금 여기서 봤는데 어디로 내뺐는지 또 놓치고말았어!》

가재잡이를 나온놈은 하나뿐이 아니였다. 동구하로 흘러가는 개울을 따라 여기저기에 한나라 군사들의 빨난 투구가 달빛에 어른거렸다.

(흠, 이놈들이 식량이 떨어졌구나! 술한 군사들이 가재잡이에 떨쳐나선걸 보니 고구려군사들의 물고생보다 더큰 고난을 치르는 모양이구나!)

놈들의 내정을 손쉽게 알아낸 이사달은 기쁨김에 물속에 얼굴을 푹 잠그고 옷이 젖는줄도 모르고 배가 터지도록 물을 마시었다.

《이자식들아, 빨리 올라와. 저쪽에서 순시가 온다.》

누군가가 다급한 목소리로 이렇게 웨치자 여기저기서 우르르 한나라 군사들이 언덕으로 뛰어오르고있었다. 이사달은 얼른 물속에서 나와 그들 틈에 끼여들었다.

여기저기서 배고프다는 한탄뿐이였다. 그의 좌우에 엎드린 놈들의 배에서는 연방 쪼르륵소리가 들려오고있었다. 놈들은 하루에 한끼씩 먹으나마나 하고있었다. 그러면서도 놈들은 성안에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것이였다. 지금쯤 성안에 물

이 떨어졌을지도 모른다거니 물준비도 없이 룡성하는 법이 어디 있느냐거니 하면서 저희들끼리 옥신각신하고있었다. 한나라군사들의 신경은 지금 온통 먹는데만 쏠려있었다.

이윽고 순시가 올라와서 뻥뻥거리며 일장 혼시를 하고나서 미처 올라오지 못하여 죽은듯이 엎드려있던 녀석 하나를 끌고 저쪽으로 사라지는것이였다.

이사달은 마음이 조금해났다. 이 밤안으로 한나라 진영의 내막을 알고싶었던것이다.

어서 돌아가자, 아버지도 나라가 귀중하기때문에 나를 보낸다면서 부디 조심해서 갔다오라며 얼마나 근심했던가. 아니 그건 안돼. 내가 돌아가다가 잡히면 적정을 전할길이 없지 않는가? 나의 운명보다 나라의 운명이 더 귀중하다고 했는데 내 이 무슨 망녕된 생각을 한담? 화살을 먼저 날리고 그 다음 돌아가든가 여기 남든가 해야 한다. 짧은 한순간이였지만 우주를 안고 모대기는것 같은 벽찬 긴장이 그를 사로잡았다.

순시가 멀리 사라지자 한나라군사들이 또 하나둘 배밀이로 개울을 향해 기여내려가기 시작하였다. 이 순간을 놓칠세라 이사달은 어정어정 진지에서 기여나와 개울가로 내려가는척하다가 언덕쪽으로 기여올라 꿀짜기를 건넌 다음 남문이 바라보이는곳까지 가서 사위를 살피고 다시 엎드려 준비해가지고 온 형겅에 글을 썼다.

《한나라놈들은 지금 식량이 떨어져서 하루에 한끼도 먹으나마나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병들이 온통 떨쳐나서 산열매를 따먹다 못해 개울에 나가 가재잡이를 하고있는 형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위나암성을 포위한채 침묵을 지키고있는건 이놈들이 우리 성을 공격하려고 땅굴을 파다가 땅밀에 물기가 없는것을 보고 얼마 못가서 성안에 물이 마르리라는것과 성안에 사람사태가 났으니 마실물이 없어 스스로 성문을 열고 투항하게 되리라는것을 타산하였기때문입니다. 자기들이 공격할 때 우리가 끓는 물을 끼얹지 않은것도 물이 없는 증거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만큼 이놈들에게 우리 성안에 물이 많다는것만 보여주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이길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남아있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더 큰일을 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사달.》

맨뒤에 자기 이름까지 밝히고나서 이사달은 형겅을 화살끝에 단단히 비끄러매고 소리가 나지 않게 뒤쪽의 깃은 다 뜯어버리었다. 그리고는 안도의 숨을 후-내쉬고 남문 성루의 기둥을 향하여 살을 먹여 시위를 힘껏 당기었다. 깃을 뜯고 형겅오리를 매단 살이여서 빗나가지 않을가 걱정하였으나 세차게 먹인 살인지라 곧추 날아올라 기둥에 정통으로 박히며 딱! 소리를 내었다.

《누구야?》

뒤에서 목소리를 죽여가지고 묻는놈이 있었다. 이사달은 태연히 돌아섰다. 이제는 목숨과도 바

끝수 없는 그 귀중한 화살을 날려보냈으니 금시 죽는대도 두려울것이 없었다. 게다가 자기의 품속에서 아버지가 들려준 서슬푸른 칼이 울고있으니 그간놈 하나쯤 하는 생각까지 겹쳐들자 배심이 생겼다.

《이자식아, 성루에 고구려놈이 서있는걸 보구 두 가만 있으란말이나. 쏘구볼판이지...》

《자식, 군기를 어지구두 무슨 잔말이야?》

이사달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런 규률이 서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그였다. 그러나 그는 침착하게 그의 말을 받아넘겼다.

《너는 군기를 그렇게 잘 지켜서 개울에 나가 재채잡이를 하니?》

《그야 배고프니 별수 없지 않아...》

《그러니까 다같은 처지에 공연히 큰소리를 치지 말란말이야. 알겠어!》

그놈은 짹소리로 입을 다물고있었다.

이사달은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긴것이 꿈만 같아 그놈이 보전말건 유유히 기여 다른곳으로 자리를 옮겨갔다.

## 4

밤은 지루하게 흘러가고있었다. 밤새껏 먹을것을 찾아헤매는 한나라군사들과 함께 순시놈에게 쫓기여 여기저기 밀려다니던 이사달은 적장 료동태수의 장막과 적들의 진지사이에 펼쳐진 잔술밭에 몸을 숨기고 새날이 밝아오기를 기다렸다. 놈들이 주고받는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도 하고 놈들의 움직임을 살피기도 하면서 그는 오만가지 생각에 잠겨있었다.

지금쯤 성안에서는 내가 날려보낸 화살을 받고의논들이 분분할것이다. 어떻게 하면 놈들에게 성안에 물이 많다는것을 보여줄수 있을까? 놈들을 잠잠 놀라게 해야 할텐데... 그러다가 만일 방도가 서지 않는다면 나는 이틀이고 사흘이고 이 적진에 있어야 할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생각이 마치자 이사달은 마음이 더욱 조급해졌다. 화살을 날려보낸후 다시 바줄을 타고 성안으로 돌아갈걸 공연히 남은것이 아닐가? 아니, 내가 왜 공연히 남았던말인가! 나라를 위해 더 큰일을 하자고 남은 내가... 그렇다면 내가 여기 남아서 이제 더 할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겠는가?

이사달은 잔술밭에 반듯이 누워 별이 총총한 검푸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다시 생각에 잠겼다.

밤은 소리없이 흘러가고 이제는 풀벌레들의 울음소리도 그쳤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그는 문득 자리를 차고 일어나앉았다. 너무도 신통한 생각이 떠올랐기때문이었다. 고구려사자들이 와서 성안에 물이 많다는것을 파시하고 돌아갈 때 그들편에 투

향해 넘어가는척하면서 놈들의 면전에서 한나라 진영에 식량이 떨어졌다는것을 폭로하자는것이였다. 그렇게 되면 놈들은 안팎으로 된타격을 받고 물러가지 말래도 스스로 물러가게 될것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그는 환성이라도 지르고 싶었다.

그의 눈앞에는 낮익은 전우들의 모습이 어른거리고 그들을 향해 소리치며 달려나가는 자기의 모습이 그려졌다.

그러자 다음 순간 그는 오싹 소름이 끼치는것 같은 긴장을 느끼었다. 자기가 소리치며 달려나갈 때 놈들이 가만 있자고 하겠는가 하는데 생각이 미쳤던것이다. 놈들은 자기들의 대오에 변절자가 났다고 소란을 피우며 화살을 쏘아대거나 기를 쓰고 추격해올것이다. 그렇게 되면 나는 십중팔구 죽음을 각오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죽음이 두려워 이런 장한 생각을 해내고도 물러서야 하는가? 아니 그럴수 없다. 나는 나라를 위해 더 큰일을 하자고 여기 남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죽음을 맞바라나가야 한다. 그 어떤 위험이 닥칠지라도... 이렇게 결심하고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어느덧 지루하게 흘러가던 밤이 지새고 새날이 밝아왔다.

아침때가 솟아오를무렵이였다. 안타깝게 소식이 오기를 기다리던 이사달의 귀전에 정다운 천아성(약기의 이름)이 위나암성으로부터 구성지게 울려왔다. 이사달은 너무 기뻐 두눈에 눈물이 왈칵 솟아올랐다.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소식인가! 그것은 고구려인민의 높은 숨결이며 승리의 선언과도 같은것이였다. 그는 흥분을 억제할수 없어 잔술밭기슭으로 기여나와 남문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북소리와 징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울긋불긋한 기발들과 창검이 성우에 숲처럼 솟아올라 한동안 위세를 돋구더니 성문이 짹 열렸다.

미구하여 기발을 든 사자가 말을 타고 남문앞에 나타나고 뒤따라 역시 말을 탄 수원들이 한줄로 늘어서서 이쪽으로 다가오고있었다.

한나라 군사들은 모두 눈들이 켜해졌다.

맨앞장에 서서 기발을 휘날리며 위풍당당히 말을 타고 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아버지가 남문을 열라고 호령할 때

《그 일만은 차마 못하겠사옵니다. 차라리 이 목숨을 끊어주시오. 소신은 고구려의 충신으로 죽고싶사옵니다.》

하고 웨치며 두팔을 짹 벌리고 남문앞에 버티고 섰던 그 수문장이였다.

그의 뒤에는 찬감이 큼직한 돛대야를 들고 오는데 귀밑에서 세뿔은 착실히 될 잉어세마리가 수초에 덮인 몸통이를 물속에 채감추지 못하여 대야밖으로 나온 꼬리를 툭툭 치고있다. 임금의 수라상에 오르던,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 잉어다. 게다가 맨 뒤에 선 사람은 말 한필을 여벌로 끌고오는데 거기에는 술항아리까지 쳐매달았다.

하루에 한끼도 먹으나마나한 한나라군사들은 너무나 희한하여 입들을 딱 벌리고 서로 쳐다보기만 하였다. 그들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동요하는 빛이 질게 어려있었다.

《성안에 물이 있구나. 한발씩이나 되는 저런 잉어를 잡아내는 런못이 있는줄도 모르고 우리는 헛고생만 했구나.》

《그러게 내 뭐라던가. 물도 없이 성안에 들어박혀 싸울 고구려사람들이 아니라구 하지 않았나.》

《아이구, 이젠 다 죽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엔 차라리 도망치고말자구!》

《그러다 잡히면 어떻게 해?》

《끓어죽으나 잡혀죽으나 죽긴 매일반이야. 까짓거, 이제 고구려 성안에 물이 있다는 소식이 순식간에 짹 퍼지겠는데 이대루는 하루두 못넘겨!》

이사달은 진지밖에까지 뛰쳐나와 중구난방으로 떠들어대는 한나라군사들의 물골을 보며 속으로 감탄해마지않았다.

펄펄 뛰는 잉어, 푸르싱싱한 수초, 게다가 물이 없이는 담글수 없는 술, 이것이면 성안에 물이 많다는것을 보여주고도 남음이 있었다.

누가 이런 묘안을 생각해냈을까? 그것은 물을것도 없이 자기의 친아버지나 다름없는 좌보를 두지일것이다.

홉족한 기분으로 각일각 다가오고있는 사자일행을 바라보던 이사달은 불시에 눈이 동그라졌다.그것은 술항아리를 쳐매달고오는 말이 바로 좌보 을두지가 타고다니는 적토마였기때문이다.

아버지가 무엇때문에 그토록 사랑하는 적토마에 사람도 태우지 않고 들고와도 될 술항아리를 달아보냈겠는가? 그것도 생사운명을 알길 없는 이 적진에...

여기에는 필시 무슨 꼭질이 있는것 같았다.

무엇때문일까? 적장에게 주어 그걸 타고

일찌감치 도망가라는것을 암시하기 위해서일까? 아니 그것일수 없다. 그것이라면 의례상 빈말을 보내야 할것이며 적토마를 보낼 까닭도 없는것이다. 그렇다면...? 혹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적토마를 보낸것이 아닐까? 내가 적토마를 보고 적진에서 뛰쳐나와 저 말을 타고 사자일행과 함께 돌아오기를 바라서 일부러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던 말을 보냈을지도 모를 일이다. 매사에 주도세밀하고 궁양이 넓은 아버지니 왜 적토마를 보냈는지는 두고봐야 알 일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 적토마의 움직임을 지켜보던 이사달은 이번에는 적장의 장막쪽을 바라보았다.

적장 료동태수도 어느새 장막밖에 나와 사자일행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있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은우에 술이 달린 금띠를 두르고 앞끝이 뾰족한 검은 가죽장화를 신은 적장의 얼굴에는 면도할썸도 없었는지 구레나룻이 꺼칠하게 돋았다. 그는 넓은 소매자락을 걸어올리고 왼손으로 턱수염을 쓸어만지며 잠시도 한자리에 서있지 않았다.

긴칼들을 차고 좌우에 늘어선 장수들도 태수의 눈치를 살피며 몸둘바를 몰라하고있었다.

적장의 장막앞에 와닿자 수문장은 말에서 내려 한 수원에게는 잉어를 들리고 또 다른 한 수원에게는 술항아리를 들려가지고 적장앞에 나가 공손히 인사하고나서 우렁우렁한 목소리로 찾아온 사연을 말하였다,

《우리 대무신왕께서 오늘같은 추석날을 그저 보낼수 없다면서 만리 타향에서 수고하는 태수에게 이걸 가져다드리라고 하여 가져온것이니 목들이나 추기시고 피로를 푸시기 바라나이다.》

수문장의 말이 떨어지기바쁘게 수원들이 들고온 물건을 적장앞에 주련이 놓았다.

잠시 허리를 굽혀 아가미를 벌름거리며 꼬리를 치는 잉어며 수초와 술을 내려다보던 적장은 걸상에 털썩 주저앉아 입을 앓다문채 주먹으로 허벅다리를 톡 내리쳤다. 그 모습은 마치도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놈이냐. 저렇게 큰 잉어를 낚아내는 못이 있는줄도 모르고

한달씩이나 군사들을 굶기며 성안에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다니, 이 일을 어찌면 좋은가?》

하고 통탄해마지않는것 같았다.

《한나라군사들에게 다 한상씩 안겨주고싶지만 태수의 의향을 몰라서 장군과 수하 장수들에게만 가져온것이니 널리 양해하고 명절을 잘 쇠시오. 우리는 이만 물러가겠소.》

수문장은 언지시 고구려의 체통과례절을 보여주고나서 여유작작하게 돌아서서 말안장에 올라탔다.

적장은 아까처럼 왼손으로 락수염을 쓸어만지며 장막앞에서 오락가락할뿐, 술항아리와 잉어를 버리라거나 되돌려보내라는 말은 입밖에도 내지 않고있었다. 그것이 안타까운지 수하 장수들이 안절부절못하는 사이에 수문장은 적토마를 끌고 유유히 적의 장막을 떠나고있었다.

한 장수가 앞에 나서서 곡진한 음성으로 아뢰었다.

《장군께선 왜 전날 고구려사람들이 우리 사자들을 개구리팽개치듯 성너머로 집어던진 그 앙갚음을 할 생각도 안하시오.》

태수는 그 말에 머리를 움켜쥐며 신경질적으로 말하였다.

《이 땅덩이를 통채로 집어삼키자던 일이 튀는판에 그까짓 사자 세놈이 뭐가 대수냐. 빨리 물러들가서 군사들의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그것이나 단속하라.》

수하 장수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뒤걸음쳐 물러설 때였다.

웬 군사 하나가 잔술받기슭에서 고구려사자들을 향해 내달으며

《형제들, 제발 나를 데려가주오, 지금 한나라 진중엔 식량이 다 떨어져 우리는 벌써 입에 풀칠을 못한지가 오래였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바엔 여러분들덕에 잉어국이라도 실컷 먹고싶으니 제발 나를 데려가주오.》

하고 소리치는것이였다. 그는 적의 갑옷으로 변장한 이사달이였다.

을두지의 부락을 받고 적진에 발을 들여놓는 첫순간부터 이사달이 어디 보이지 않나하여 두루

살피던 수문장은 자기들의 면전에서 놈들의 치명인 약점까지 까밝히며 죽음을 무릅쓰고 달려오는 그의 영웅적인 행동에 저으기 감동되어 격한 음성으로

《어서 타시오. 아버님께서 편장님을 태워오라구 이 적토마까지 보내주시었소.》

하고 말하였다.

《아버님께서요!》

이사달은 전혀 예측못한바는 아니였지만 적토마를 자기때문에 보냈다는 말을 전해듣자 더 말을 잊지 못한채 굳어져버렸다. 얼마나 다심한 아버님이신가! 나라를 건질 묘한 생각을 해내고 또 자기를 구원할 방도까지 세워 사자일행을 보내준 아버지의 그 응심깊은 사랑이 고마와 이사달은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남문을 향해 몇번이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외우며 이사달은 수문장이 내주는 적토마우에 나는듯 뛰어올랐다.

한나라 《변절자》의 호소를 받아들일것 같지 않던 고구려사자들이 그에게 말을 넘겨주고 그가 적토마우에 뛰어올라 질주하기 시작하자 급해맞은 적들은 여기저기서 그를 향해 어지럽게 활을 쏘아대며 추격하였다.

정황은 매우 위급하였다. 수문장이 이사달을 응위하러고 뒤에 떨어지려는 순간이였다.

누가 쏜 화살인지 그의 잔등에 두대씩이나 날아와 폭 박혔다. 그는 등자를 뚫고 일어서며 뒤로 벌렁 나가넘어졌다. 다행히 등자에 발이 걸려 말우에서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가 다시 눈을 떴을 땐 자기의 머리가 좌보 을두지의 무릎우에 놓여있고 새것이 달린 절풍모를 눌러쓰고 자기를 내려다보는 눈물로 얼룩진 무수한 얼굴들이 바라보였다.

《너를 구원해오자구 일부러 적토마까지 보냈는데 네가 이 지경이 되다니. 너의 아버지 고능가 알면 나를 얼마나 원망할테냐...》

을두지는 너무도 원통하고 가슴이 아파 피가 터지도록 입술을 깨물었다.

《저의 아버지도 기뻐할거예요. 사나이 칼을 차고 나섰다가 나라를 위해 죽는것보다 더 큰

자랑이 어디 있겠어요. 이젠 눈물을 거두십시오. 아버지가 적토마를 보내준 덕에 저는 이렇게 살아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는 안간힘을 쓰며 몸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러나 오록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애야, 진정하거라. 저 소리를 듣느냐? 지금 놈들은 총퇴각중에 있다. 네가 날려보낸 화살이 우리 고구려를 지켜낸셈이다.》

《그래요?!》

이사달은 창백한 얼굴에 알릴듯말듯 스쳐지나던 미소를 거두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니예요. 아버지가 적장에게 펄펄 뛰는 잉어와 수초, 술을 보낸 덕이에요. 어떻게 그런 묘한 생각을 다 해냈어요.》

《나라를 지켜내자니 별 궁리가 다 떠오르더구나. 너도 그렇지 않느냐. 그 사지판에서 놈들의 식량이 떨어졌다는걸 까맣힐 생각까지 해내지 않았느냐. 어서 힘을 내고 일어나거라. 돌격하는 대오에 너도 함께 서야 하지 않겠느냐.》

이사달은 힘없이 눈을 뜨며 또 머리를 가로저었다.

《이젠 늦었어요. 아버지, 저를 놓아두고 어서 떠나세요. 저의 아버지를 죽이고 고구려인민들을 수없이 학살한 저 오랑캐놈들을 모조리 죽쳐...》

《예야, 정신을 차려라! 애야! 애야!》

을두지는 이사달의 몸을 마구 흔들며 소리쳤다.

다시 정신을 차린 이사달은 가느다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물, 물이라도 실컷 마셔봤으면...》

수문장이 원썬들의 추격을 받는 그 바쁜 속에서 떠나지고 온 물통의 물을 내밀었다. 을두지가 그것을 받아 이사달의 입에 대주었다.

《예야, 어서 실컷 마셔라. 맑고 시원한 조국의 물이다. 자-》

이사달은 눈을 감은채 입을 앙다물고 머리를 가로저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포박포박 말하였다.

《아니, 저는 일없어요. 물때문에 고생한 저 군사들이 한모금씩 마시고 내 나라, 내 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알게 해주세요. 저의 마지막 소원이예요.》

《그런 걱정은 말아라. 저 군사들은 이제 성문을 열고 나가면 실컷 마시게 된다. 자, 어서!》

이사달은 자기 입술에 대여주는 물통을 두손에 잡고 마지막 힘을 모아 두눈을 잔조롭게 떴다. 그리고는 물통을 내민채 좌보 을두지며, 수문장 그리고 사랑하는 동료들을 바라보면서 행복의 미소를 보내었다.

《물을 위하여, 고구려를 위하여 잘-싸워...》

그는 말끝을 채 맺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좌보 을두지는 이사달을 잔디우에 눕혀놓고나서 손에 물통을 들고 일어섰다.

《고구려 군사 여러분, 이사달이 남기고 간 물을 한모금씩 마시고 우리모두 내 나라, 내 땅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가슴속깊이 새겨넣읍시다.》

좌보 을두지는 자기가 먼저 물통에 입을 대이고 수하 장수들에게 넘겨주었다.

물통은 손에서 손으로 옮겨지며 순식간에 온 대오를 한바퀴 돌아 다시 을두지의 손에 돌아왔다. 그런데도 물은 거의 그대로 있었다. 을두지는 그 물통을 이사달의 머리맡에 놓아주고 결연히 일어나 장검을 비껴들었다.

《고구려인민과 이사달의 복수를 위하여 승마!》

군사들이 일제히 말우에 올라탔다.

《물을 위하여, 고구려를 위하여 앞으로!》

장대우에서 천아성이 길게 울리고 북소리 징소리가 하늘땅을 진동하였다. 활짝 열린 네 문으로 천군만마가 내달는 말발굽소리, 장검을 휘두르며 웨치는 아우성소리가 금시 위나암성을 허물어내리는것 같았다.

《물을 위하여, 고구려를 위하여!》

이사달이 마지막으로 웨친 이 말은 멸적의 기세로 내달는 백전로장들과 군사들의 입에서 입으로 옮겨지며 강산에 메아리쳐 멀리, 멀리로 울려 퍼지고있었다.

# 인간문제의 탐구와 중편소설 《불꽃》

-중편소설 《불꽃》에 대하여-

류 만

요즘 많이 창작되고있는 중편소설들가운데서도 《불꽃》은 널리 읽히는 작품중의 하나이다.

무릇 소설이란 사람들이 읽기 위해서 창작되는것이지만 그러나 모든 소설이 다 흥미있게 읽히우는것은 아니다. 우리가 소설을 두고 자주 이야기하지만 흥미있게 읽히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소설은 힘들게 읽히우며 또 어떤 소설은 그만 《인내성》없는 독자들로부터 버림받거나 마지못해 읽히우는 소설도 있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읽히운다는 말은 얼핏 생각하면 평범하게 스쳐지날수 있을듯싶지만 사실 그것은 아무 작품에나 쉽게 차례지지 않는 좋은 평가인것이다.

그러면 읽히우는 작품으로서의 중편소설 《불꽃》이 보여준 창작적성과는 과연 어디에 있는것인가.

## 1) 인간문제와 생산문제의 호상관계를 옳게 풀어서

사회주의현실물작품창작에서 실천적으로 중요하게 나서는 문제의 하나가 인간문제와 생산문제의 호상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문학은 인간학이기에문에 언제나 인간문제를 제기하고 풀어야 하지만 창작실천에서는 반드시 그렇게만 되는것은 아니다.

어떤 작품에서는 작가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인간학의 문제로 될수 없는 생산기술적문제를 내세움으로써 왕왕 다른 결과가 빚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은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결국 모든 문학예술작품들은 오늘의 우리 인민들에게 어떻게 살며 일하며 투쟁할것인가를 가르쳐주는데 복무하여야 합니다.》**(《사회주의문학예술론》, 162페이지)

주체적문제이론은 인간문제보다 생산문제를 앞에 내세우고 인간을 형상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기보다 생산공정을 보여주는데 치우치는것은 작가들이 문학의 본성을 깊이 알지 못하고 인간문제와 생산문제의 호상관계를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옳게 풀지 못하고있는것과 관련된다고 하면서 작가들은 생산활동을 그리는데서도 어디까지나 로동에 대한 사람들의 립장과 태도, 로동과정에서 맺어지는 사람들의 정치사상적, 문화도덕적관계를 밝히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밝혀주고있다.

중편소설 《불꽃》이 사람들속에서 널리 읽히우고 있는것은 바로 거기에 우리 시대의 의의있는 인간문제, 로동과정에서 나서는 사람들의 문제가 제기되고 깊이있게

형상되었기때문이다.

중편소설 《불꽃》이 무대료 하고있는곳은 어느 한 대화학기지건설장이다. 작품에서는 현시기 우리 당이 중요하게 내세우고있는 용접혁명을 일으킬데 대한 방침을 적극 반영하여 대화학기지건설장에서 중요한 생산기술적문제로 나섰던 특수용접문제가 어떻게 해결되어나가는가 하는것을 통해서 우리 당 정책이 현실에 구현되어나가는 과정을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그리고있다.

다시말하여 작품에는 대화학기지의 건설을 최대한으로 앞당기며 건설물들을 만년대계로 튼튼히 다지는데서 중심고리의 하나로 나섰던 특수용접공의 양성문제와 《풍막용접》의 실현문제 그리고 700미터관용접문제 해결과정이 반영되어있으며 그것이 작품에서 사건의 골자로 되어있다. 이러한 사건들이 제기되고 풀려나가는 과정은 곧 생산기술적인 문제의 해결과정과 떼수 없이 련관되어있다.

중편소설 《불꽃》에서는

사회주의현실물작품창작에서 흔히 맞닥들리게 되는 이러한 생산기술적문제들을 두고 그자체에 매여달리지도 않았으며 그것을 외면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생산기술적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면서도 초점은 어디까지나 그러한 생산기술적문제를 다루며 풀어나가는 담당자들이며 주인들인 사람들이 로동활동과정에서 맺어지는 다양한 인간관계와 의의있는 문제들을 작품의 중심에 내세우고 풀어나가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였다.

《과장동무나 저는 다 같은 용접기사들이 아닙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불꽃에 초점을 맞추고 일하는 용접기사들이지요.》

《우리들은 그 불꽃들을 보는데만 그치지 말고 마땅히 가슴속에도 깊이깊이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람들의 창조력과 지혜를 무한대로 발동할수 있는 힘은 우리 지도일군들의 가슴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 힘의 원천은 곧 인간들을 아끼구 믿어주는 사랑의 불꽃, 뜨거운 열정의 불꽃입니다. 지도일군들일수록 정열적인 인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김강호의 이 말은 작품에서 제기한 기본문제가 무엇인가 하는것을 명백히 리해할수 있게 한다. 작품에서는 여러차례에 걸쳐 때로는 주인공들의 말을 통하여, 때로는 그들의 내면세계의 개방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를 강조함으로써 작품에서 내세운 인간문제의 본질과 말하려는 기본문제를 명백히 하였다.



작품에서는 생산기술적문제를 반영하면서도 어디까지나 그러한 생산을 담당하고 책임지고있는 사람들에 대한 립장과 관점문제를 정면에서 제기하면서 여기에 생산기술적문제를 철저히 복종시켜나갔다. 즉 생산과 건설에서의 기적과 혁신은 그 어떤 높은 기술이나 자연적조건에 의하여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그것을 책임지고 해나가는 사람들의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되며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지니고 그들의 심장에 불을 지필 때 높은 기술도, 자연도 풀수 없었던 위대한 기적이 창조될수 있다는것을 기본문제로 제기하였다.

사람중심의 세계관인 주체사상의 원리를 빛나게 구현하여 어렵고 복잡한 과학기술적문제를 두고 된다 안된다를 결정하기전에 먼저 그 담당자들인 사람을 생각하며 사람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지니고 그들을 믿어주고 이끌어주며 그들의 사상의식을 발동시킬 때 그 어떤 과학기술적문제도 풀어나갈수 있으며 또 그렇게 하여야 한다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중심에 제기하고 풀어나간 바로 여기에 중편소설 《불꽃》이 제기한 기본문제의 심오성과 철학적깊이가 있으며 인간문제와 생산문제 호상관계를 인간학의 요구에 맞게 옹계 해결한 성과가 있다.

작품에는 물론 일련의 생산기술적인 문제들과 그 실현내용이 밝혀져있다. 그러나 그것이 지난시기 일부 《생산소설》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된다, 안된다의 기술실무적인 문제를 걸어놓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관계가 맺어지고 대립이 형성되며 사람들은 오직 생산기술적문제의 해결을 위해 분주히 뛰어다니며 그 해결과정과 결과가 곧 그들의 성격발전의 과정으로, 결과로 되던 그러한 도식적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게 되어있다.

이 작품에는 사람들에 대한 립장과 관점문제, 다시말하여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대로 모든 사업에서 먼저 사람을 보는가 안보는가,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문제가 기본으로 제기되어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관계가 맺어지고 성격이 발전하며 사건이 제시되고 해결되어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사람에 대한 옹은 립장과 태도,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어떻게 간직되고 표현되는가 하는 과정이 진지하게 추구되면서 생산기술적인 문제의 제기나 해결은 다 인간에 대한 그러한 사랑과 열정이 간직되고 표현되는 과정의 이야기로 되고있으며 그 사랑과 열정의 빛나는 결과로서 생산기술적혁신이 이루어진것으로 그려져있다.

때문에 이 작품을 읽어나면 먼저 안겨오는것이 사색하고 고민하며 생활하고 투쟁하는 인간들의 모습이며 그들의 심장에 간직된 숭고한 감정과 리성, 인간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다.

그 어떤 기술경제적조건이나 자연조건보다도 사람을 먼저 생각하며 모든 문제해결의 열쇠는 인간에 대한 믿음과 뜨거운 사랑과 열정을 지니는데 있다는 문제를 내세우고 그에 기초하여 매 인물들의 형상과제가 주어지고 인간관계가 설정되었으며 모든 형상요소들이 거기에 복종되어나간 여기에 이 작품에서 내세운 인간문제의 새로운 탐구와 높이가 있다.

## 2) 개성적인 성격을 통하여

주체적문제리론은 인간문제는 사람들의 생활과 투쟁에서 본보기로 될수 있는 전형적인 인간형성을 통하여서만 옹계 밝혀질수 있으며 개성적인 성격을 통하여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독창적으로 보여주는데 진정한 창조의 세계가 있다고 밝혀주고있다.

작품에 아무리 의의있는 인간문제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산 인간의 형상을 통하여 밝혀지지 못하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간학의 문제로 될수 없으며 또 인간형상이 있다하더라도 그것이 비반복적이고 개성적인 형상으로 되지 못할 때에는 의의있는 인간문제도 피지 못한 꽃망울처럼 참다운 가치를 나타낼수 없다.

중편소설 《불꽃》이 사람들에게 흥미있게 읽히우면서 깊은 사상정서적충격을 안겨주는것은 그것이 새롭고 의의있는 인간문제를 탐구하여 작품의 중심에 내세운것과 함께 그러한 인간문제를 오늘의 시대정신을 체현한 인간들의 전형적이며 개성적인 성격형상을 통하여 심오하게 밝혀낸데 있다.

작품에는 주인공 김강호를 비롯하여 당비서 장덕봉 그리고 최호산, 신기수, 박윤석, 정순정, 한복화, 방진 등 여러 인물이 등장하고있다.

강호를 비롯한 궁정인물들은 그들이 걸어온 생활로정과 말은 사업분야, 성격과 취미가 저마끔이지만 다같이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대로 대화학기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려는 하나의 지향과 념원으로 불타고있는데서 공통적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공통적인 지향을 강조하면서 하나의 지향과 념원으로 살며 일하는 인간들의 형상을 개성적으로 뚜렷이 부각하였다.

인간성격의 개성화에서 이 작품이 보여준 특징의 하나는 인간관계의 설정을 통하여 성격의 본질을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깊이있게 밝혀내고있는 점이다. 그것은 특히 강호와 방진의 성격형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있다.

용접직장 시공지도원인 강호와 시공과장인 방진은 다같은 초급지휘성원들이다. 이런데로부터 인간에 대한 믿음, 사랑과 열정을 간직할데 대한 작품의 기본문제를 형상적으로 구현하는데서 지휘성원들이 어떠한 립장과 관점에 서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깊이있게 밝히자면 무엇보다도 그들이 맺고있는

인간관계에서 그것이 구체적으로 천명되어야 하는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강호와 최호산, 신기수, 정순정과의 관계는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작품에서 강호와 최호산, 신기수와의 관계는 강호의 인간에 대한 믿음과 사랑, 열정의 높이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설정되고 해결되었다면 강호와 정순정과의 관계는 그가 인간에 대한 평가와 사랑을 그 인간이 지닌 심장의 열도에 두고있다는것을 설득력있게 보여준다. 이것은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깊이있게 형상되고있는바 최호산이가 특수용접에서 오작을 내고 시련훈련에서도 거듭 실패하며 신축관용접도 더는 시킬수 없게 되었을 때 엄격한 추궁을 내리는 그 순간에조차 《나의 먹살을 쥐어도 좋으니 고개를 숙이지 말고 자기를 옹호》할것을 바라는 그러한 사랑과 믿음에서, 거듭되는 실패와 방진의 추궁앞에서 자기의 희망까지도 버리고 직장을 뜨는 신기수를 끝까지 돌려세우고 적극 도와나서는 그 사심없는 헌신성에서 뚜렷이 표현되었다. 특히 정순정과의 관계에서 열정의 차이로 하여 그 관계가 버그러졌다가 그 열정의 일치로 하여 다시 결합되는 과정은 강호가 어떠한 인간인가 하는것을 형상적으로 깊이 파악할수 있게 하여준다.

우리 시대의 인간, 참다운 지도일군으로서의 강호의 모든 성격적특징과 그 개성적인 면모는 바로 인간에 대한 것처럼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과 열정에 그 바탕을 두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그는 다른 인물들과 자기를 뚜렷이 구별하면서 커다란 감화력을 나타내고있는것이다.

작품에서 방진의 성격 역시 많은 경우에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하여 두드러지고있다. 여기서 그와 최호산, 신기수와의 관계를 시종일관 철저한 실무주의와 《규정》에 대한 맹목성에 기초한 팽담한 관계로 설정하고 이와 함께 어느 중앙기관의 부부장, 공장지배인 등과의 관계까지 보여준것은 방진에게 있어서 기술신비주의와 책임회피, 남에 대한 의존심이 《규정》과 결부되어 그자체가 하나의 존재방식으로 되어버렸다는것을 생동하게 실증하여준다. 특히 작품에서는 이러한 그의 성격적 면모를 밝힘에 있어서 그의 옷차림이라든가 소지품에 대한 남다른 관심 등을 유기적인 연관속에서 그리고있는바 그가 애용하고있는 《물촉새》라이라든가 문자판이 시커먼 시계, 만년필, 담배갑 등은 그 실례로 된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세부들을 성격형상에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인간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없는것으로 하여 로동자들과 섞일리지 못하며 책임회피와 팽담성으로 하여 남보다 두드러지는 그의 개성적인 측면들을 형상적으로

잘 부각시켰다.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서는 인간관계의 중심에 부단히 대립되며 충돌하는 강호와 방진을 설정하고 최호산, 신기수 등과 그들의 구체적인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파고들었다, 이렇게 같은 대상에 대하여 두사람이 대하는 립장과 태도의 사상적본질과 그 차이를 여러면에 걸쳐 강조함으로써 결국은 그들의 성격의 본질과 그 개성적인 특징전반을 섬세하게 밝혀낼수 있었던것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이 작품의 인간관계설정에서 특징적인것은 강호와 방진이가 작품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과 연관되어 맞물려있으면서도 일부 인물들사이의 련계는 거의 주어져있지 않거나 극히 희미하게 설정되어있는것이다. 바로 최호산이와 신기수와의 관계가 그러하다. 최호산이와 신기수는 중요한 등장인물이기는 하지만 그들사이의 관계는 거의 언급되어있지 않으며 또 호산이와 다른 인물들과의 련계는 별로 설정되어있지도 않다. 그것은 최호산의 경우 강호나 방진과의 관계만으로도 남이야 뭐라든 자기식의 용접방법을 개척하려는 각오와 신심, 그것을 위해서는 탐구와 열정을 끝없이 기울여나가는 그의 강의하고 내성적인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에서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의 관계를 일률적으로 설정하지 않고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의 해명에 맞게 매우 엄밀하게 특징적으로 맺어준것은 긍정적측면의 하나라고 해야 할것이다.

이 작품에서는 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하는데서 또한 매 인물이 서로 구별되는 특징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형상전반에 걸쳐 그것을 두드러지게 부각한 좋은 측면도 보여주었다.

주체적문예리론은 인간성격이 비반복적인 개성으로 되자면 그에게만 고유한 그 어떤 특징적인것이 있어야 한다고 밝히고있다.

개성적인 성격은 한 성격과 다른 성격과의 관계에서 그 성격에만 고유한 특징을 의미하는것이므로 그 어떤 특징적인것이 없을 때 그 성격은 참다운 의미에서의 개성으로 될수 없다. 이 특징적인것은 인물의 사상감정에서, 말과 행동에서, 외모를 포함한 여러 측면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러므로 성격의 개성화를 지향하는 작가에게 있어서 이 특징적인것을 바로 찾아내어 그것을 형상으로 잘 살려내는것은 중요한 형상과제로 나선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불꽃》의 작가는 적지 않은 탐구적노력을 기울였는바 그것을 앞에서 이야기한 강호, 호산, 방진은 더 말할것도 없고 작품에 등장한 거의 모든 인물들이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서로 구별되는 개성으로

안겨오는데서 찾아볼수 있다.

다섯형제의 막내로서 가정의 온갖 권유도 마다하고 나래치는 희망과 포부를 안고 건설장에 달려왔으나 거듭되는 실패앞에서 때로는 주저하기도 하며 《전기절약》이라는 글발을 보고는 량심상 자책으로 모대기기도 하면서 다시 분발하여 성실하고 꾸준하게 일해나가는 기수, 언제나 통통 뛰여다니면서 노동자들과 함께, 자기의 가슴속에 첫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킨 기수를 도와 실패와 성공을 두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하면서 티 하나 없이 순결하고 맑고 뜨거운 심정으로 일해나가는 그야말로 미운데 하나 없는 옥별이, 도고한 자존심으로 하여 때로는 차갑게도 보이며 랭담했던 심장에 일단 불꽃이 달리면 견잡을수 없는 열정으로 노동자들을 믿고 위할줄 알며 사랑의 감정도 서슴없이 터뜨리는 순정이 그리고 억양이 센 평북지방의 사투리로 짧은이들과 섞였으면서 무엇인가 일감을 찾아 분주히 뛰여다니는 한복화여머니 등 모든 인물들이 자기의 얼굴과 성미와 리상을 가지고 생동하게 그려져있다.

그리고 공장당비서 장덕봉은 또 얼마나 품위있게 그려졌는가, 강호며 방진이를 비롯해서 고민하고 모대기며 새것을 찾아 사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의 따뜻하고 고무적인 말이 뜨겁게 울리고있으며 어렵고 힘든 모퉁이마다에는 그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보살핌이 있는것이다. 참으로 그의 성격은 《머리도 크고 어깨도 넓고 한마디로 골격이 굵직굵직하게 생긴, 산전수전을 다 겪은 백전로장의 풍격》이 풍겨지는 외모 그대로의 수수하고 텅텅하나 끝없는 믿음과 존경이 가는 그러한 당비서의 믿음직한 모습으로 개성화되었다.

여기서 곁하여 이야기할것은 작품에서는 매 성격의 특징을 밝히는데서 내면적측면을 외형적측면과 유기적으로 결부시킴으로써 개성적면모를 생동하게 부각하고있는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옥별이가 언제나 통통 뛰여다니는것을 강조한것이라든가 순정의 상체를 흔들지 않는 안전한 걸음걸이, 무엇을 썩도록 잘라버리듯이 손바닥을 모로 세운채 핵핵 내리치며 열변을 토하는 방진의 행동 등은 다 그들의 성격적특징과 잘 부합되는 외형묘사로서 깊은 인상을 남겨준다.

이밖에도 작품에서 제기된 인간문제를 개성적인 성격을 통하여 천명하려는 작가의 탐구적인 노력을 여러 측면에서 찾아볼수 있는바 문제는 작품창작에서 작가가 인물들을 옮겨 설정할뿐아니라 그들의 개성적특성을 기본문제의 해명에 맞게 어떻게 새롭고 다양하게 파고드는가 하는데 성과의 비결이 있는것이다.

### 3) 묘사문학으로서의 특성을

## 살려

주체적문예리론은 소설이 다른 형식과 구별되는 우점은 주인공들의 뒤생활과 내면세계를 깊이있게 보여줌으로써 성격들의 전모를 리해할수 있는데 있다고 하면서 소설에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감동적으로 묘사하여야 한다는것을 밝혀주었다.

예술의 다른 형태와는 달리 소설은 현실생활을 종이우에 글로 묘사하는 문학이기때문에 묘사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것은 소설문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는 기본조건으로 될뿐아니라 사람들은 소설의 세계에 심취되게 하고 생활을 폭넓고 깊이있게 리해하게 하는 확고한 담보로 된다.

중편소설 《불꽃》은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문학의 이러한 특성을 잘 살림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책을 놓을수 없게 하며 주인공들의 세계에 깊이 공감하게 한다.

《불꽃》이 묘사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잘 살리고있는것은 무엇보다도 작품에 제기된 인간문제의 해명과 주인공들의 개성적인 성격형상의 요구에 맞게 사건들이 치밀하고 흥미있게 잘 조직되어있는데 있다.

이 작품에서 주선을 이루는것은 어디까지나 강호의 적극적인 지도밑에 호산이와 기수들의 특수용접에서의 성공, 700판용접의 성과적인 실현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말할수 있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기본 사건선을 펼쳐나가면서 거기에 일련의 부선들과 일화들을 적절히 배합하였다.

레컨대 대학시절부터 시작되어온 강호와 순정이와의 관계, 실패를 거듭하며 전망문제를 두고 고민하는 가운데서도 얼음장밑에서 즐기치게 흐르는 강물과도 같이 고이 간직되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기수와 옥별의 사랑선 그리고 마치도 이 세상의 만족은 혼자 독차지한듯이 가정의 단란한 행복을 마음껏 누리는 박윤석반장과 그 안해에 대한 이야기와 호산이와 그 안해 성숙에 대한 일화 등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이러한 부차적인 사건선들은 다 그자체의 사상미학적미를 가지고있는것이 특징이다. 말하자면 우에서 세 사건선은 다 가정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인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어느 하나도 비슷하지 않고 저마끔 깊은 뜻을 가지고 안겨오는것은 거기에 주인공들의 사상감정이 깊이 체현되어있기때문이다. 같은 사람의 이야기인듯싶으면서도 강호와 순정의 관계와 기수와 옥별의 관계는 얼마나 대조적인 색채를 가지고있는것인가. 강호와 순정의 관계는 지성인들에게서 있을수 있는 보다 리성적인것이 앞서는 관계로서 일련의 곡절을 거치고있다면 기수와 옥별의 사랑은 그야말로 봄꽃이 피듯이

깨끗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것으로서 참으로 천진하면서도 속깊은 사랑으로 그려졌다. 호산과 윤석의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여기에는 그들의 내성적이며 활발한 성격적특징과 어울려 가정생활도 그러한 측면에서 독특한 활기를 풍겨주는것이다.

작품에서는 이외 같이 주선을 일관하게 끌고나가면서 거기에 주인공들의 다양한 생활선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킴으로써 생활묘사의 풍부성과 심오성을 보장하였을뿐아니라 우리 시대 인간들의 성격을 여러 측면에 걸쳐 생동하게 재현하였다. 이 작품이 독자들의 흥미를 끄는 요인의 하나가 이처럼 소설의 흐름이 양상한 사건으로가 아니라 거기에 산 사람들의 기쁨과 고민, 웃음과 랑만이 있는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적인 이야기로 엮여져있기때문인것이다.

중편소설 《불꽃》은 세부묘사가 생동하고 의미있게 되어있는것으로 하여 또한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준다.

단편소설은 물론이거니와 중편소설에서도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줄만한 뜻깊은 세부묘사를 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세부묘사가 그자체에 그치는것이 아니라 그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릴수 있는것으로 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작품에서 작가는 생동한 세부를 많이 탐구하여 감동깊게 묘사하였다,

그 하나의 실례로서 작품의 앞부분에 있는 구호 등에 대한 세부를 이야기할수 있다.

용접문제로 모대기고있는 강호를 찾아 현장에 온 당비서는 그에게 위대한 수령님께서 용접을 더 높이 발전시키자면 용접기술자들을 전망성있게 잘 키워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고 일깨워준다. 이때 당비서의 저력있는 목소리에 화답이나 하는듯 저기 비료공장 하조장꼭대기에서 껌벽 꺼졌던 색등이 차례로 살아나며 《6개년계획!》, 《총동원, 사회주의대건설!》 하는 글발을 새겨놓았다는 묘사가 작품에 주어져있다. 그리고 다시 당비서의 말이 계속된다. 얼핏 보면 그냥 스쳐지날수도 있을듯한 이 묘사가 되새겨볼수록 의미깊은것은 바로 그것이 천만마디의 말을 대신해서 당비서가 강호에게 무엇을 깨우치며 시대는 강호로 하여금 어떻게 사고하고 행동할것을 요구하는가 하는 심각한 정치사상적문제를 아무런 설명도 없이 현실적으로 생동하게 보여주고있기때문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특색있고 의의있는 세부묘사들을 많이 찾아볼수 있다. 강호에게는 바람이라면 미풍이건 훈풍이건 무작정

싫었다는것, 초기 순정의 방문에 붙어있는 《작업중 들어오지 마시오》하는 표쪽에 대한 세부, 특수용접의 검사결과를 말하는 흰종이와 노랑종이에 대한 세부 등은 그러한 실례로 된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생활세부들을 인물들의 성격적특징과 정황에 맞게 잘 살려씀으로써 대상의 특징과 본질을 명백히 하고 깊은 뜻을 형상적으로 잘 표현하였다.

《불꽃》은 구체적인 언어구사에서도 새로운 탐구를 보여주고있는바 이 작품의 언어구사에서 특징적인것은 매우 정확하고 생활적이며 풍부한 체험에 기초함으로 하여 정서적색갈이 진한것이다. 특히 작가는 언어구사에서 성구와 속담을 풍부히 리용하면서 비유법을 대상의 특성과 본질에 맞게 적절히 쓰고있는바 이것은 커다란 형상적효과를 나타내었다. 레컨대 《잔고기 가시 세다고 킷내기기사 어정쩡한 주장이 이만저만 강렬할것 같지 않다》, 《모욕당한 자존심이 살맞은 맹수처럼 흉악미에서 거칠게 뛰놀았다》, 《어쩌면 만나는 순간부터 새 사람한테 자기의 인상을 장마개천처럼 흐려냈다고 생각하니...》, 《술한 닭무리들속에서 봉황을 고르듯이 땅땅 소리가 나는 재간덩이들만 골라야 하는건데》, 《증이 나면 보리방아 더 잘 찼는다는 격으로 사실은 <그런것 같다>하고 추리했던 생각이...》, 《난 구새목에서 때늦게 피는 꽃을 두고 큰 열매를 기대하진 않소!》 등은 그 몇가지 실례이다.

또한 마지막 부분에서의 두 계절의 생경이질과 자리다툼에 대한 묘사에서 보는바와 같이 작품에는 자연묘사, 환경묘사가 감각적으로 깊이있게 주어지고있으며 그것이 사람들의 내면세계변화와 잘 조화를 이룸으로써 작품의 형상성을 더욱 풍부히 하여주고있다.

이상에서 중편소설 《불꽃》을 읽고 느낀 몇가지 문제들을 적으면서 우리는 작가의 진지한 사색과 탐구에 대하여 응당 강조하는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주체적문제리론은 사람은 자기가 아는것만큼 자기가 준비된것만큼 보고 듣고 느끼고 받아들이다고 밝히고있다.

이 작품을 읽으면 작가가 사색하고 탐구하고 애는 흔적이 느껴진다.

우리 작가들은 주체적문제리론이 가르치는대로 정치적식견과 창작예술적자질을 부단히 높여 작품에 제기하는 문제로부터 성격형상과 언어구사에 이르기까지 깊은 탐구와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새로운 발견이 느껴지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소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 류랑민의 원한

홍랑호

초겨울 눈서리 어지러운데  
나는 바다가를 거닐었노라

온종일 오가는 사람  
그들은 모두다 류랑하는 백성

묻노니 그대여 무슨 일이 피로와  
정처없이 떠다니다 여기 왔느뇨  
정든 고향 다 버리고  
어린것 이끌고 늙은이 부축하며  
그대들이 가는곳 그 어디더뇨

머리 들고 나에게 대답하는이  
얼굴을 찌프리고 한숨짓누나

…나는 본래 내포사람  
대대로 농사짓는 농군이였소

사나이 밭을 갈고 아낙네 길쌈하나  
살아가는 형편은 어려웠다오

밤낮으로 부지런히 일하였으니  
열손가락 어느 한때 한가했겠소

모진 추위와 무더운 더위  
어느 하루 편한 날이 정녕 없었소

가물이며 장마까지 겹치고보면  
거뒤편일 낱알이 무엇 있겠소

농사지어 내 입치레 어려운터에  
조세 내라 그 성화 몹시 급했소

고을 아전 날마다 문에 이르러  
떠들며 하는 행패 참기 어려워

분주히 술과 음식 마련해줘도  
빛독촉, 세금성화는 그대로였소

젖떨어진 두살짜리 어린아이가  
이번엔 군적에 이름 올랐소

집안에 남은것 아무것도 없고

마구간에 송아지 하나 있었소

그 송아지 장에 내다 팔아버리고  
그 돈으로 갚으려나 모자랐다오

베틀에 걸고 짜던 베도 잘라서  
병정들 옷감으로 다 바쳤다오

어쩌면 한조각 베라도 남겨  
헐벗은 이 몸을 가리워보겠소

입을것, 먹을것 전혀 없으니  
이해를 무엇으로 마쳐보겠소

찬바람에 살결은 얼어터지는데  
아이들 울음소리 차마 듣기 어려웠소

인생이 즐겁다고 뉘라서 말하였소  
차라리 들판에 버리는게 낫지요

안해를 이끌고 아이를 안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돌아다녀도

가는곳마다 살기 좋은 땅은 없으니  
열흘에 겨우 세끼를 먹는다오

우리네의 이같은 피로운 사정  
고을원도 자못 모른체하니  
구중궁궐 깊은곳의 나라님이야  
이 사정 어이 들어봤겠소

들으니 서울의 고대광실에선  
종들도 이밥, 비단 귀찮게 여기고

숫을대문 너른 뜰에선  
날마다 잔치로 세월을 보낸다오

하늘아래 백성들은 다 같으련만  
잘살고 가난함이  
어이하여 이처럼 고르롭지 못하오  
아무리 생각해도 알길 없으니  
이 아픔 그 뉘에게 하소하리오…

그의 말 구슬퍼서 듣기 어렵네  
이 마음 벌써부터 병이 들은듯  
  
돌아와 음식을 마주하여도

병든듯 차마 넘어가지 않누나  
  
내 이 사정 노래로 지어  
구중궁궐 임금한테 바쳐보리라

## 산골백성

김창협

말에서 내려  
산골집 찾아드니  
아주머니 한분이  
문에 나서 맞이하네

오막살이 처마밑에  
길손을 앉히고  
밥지어 대접하기  
수고를 하네

《바깥주인은  
어디에 계시오.》  
《아침에 후치 메고  
산으로 갔답니다  
산골 비탈밭은  
갈기가 힘이 들어  
해가 저물어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사방을 돌아봐야  
이웃이란 한집 없고  
닭과 개들만  
절벽아래 우그리고있네  
이 산속에는  
범도 많으리  
산나물을 뜯자 하나  
그 수고 얼마이라

《슬퍼라 이곳에 사는  
재미란 무엇일가  
힘하고 강과로운  
이 험산속에서》

《얼마나 좋겠소  
저 벌방에 살기란  
그러나 거기엔 못간답니다  
고을의 관리들이 너무 무서워》

## 독자편지

### 청춘의 심장을 끓게 하고 정열을 샘솟게 하였습니다

《조선문학》 제3호의 시들을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청춘의 약동하는 젊음을 당 제6차대회결정관철을 위한 총진군의 불도가니속에 잠그고 시대의 힘찬 박동에 맞추어 심장을 끓여나가는 청춘을 노래한 시들 《청춘의 꿈을 안고》, 《청춘의 빛나는 모습으로》가 좋았습니다.

청춘과 삶을 두고 모대겨운 저에게 있어서 이 시들은 젊음과 삶이 무엇에 필요하며 흘러가면 다시 오지 않는 청춘시절은 무엇을 위해 어떻게 바쳐야 하는가를 높뛰는 심장속 한복판에 자리잡게 해주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습니다.

《우리 조선청년들은 어디서, 어떤 환경에서 일하든지 언제나 로동당의 령도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 제6차대회의 높은 연단에

서 밝혀주신 경제건설의 10대전망목표를 향하여 총진군을 개시한 시대의 벽찬 이 흐름속에 한몸을 잠그고 젊음이 끓는 넓은 가슴으로 파도들 맞받아 뚝을 쌓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리키신 조국땅의 새 구역을 천년물속에서 잠을 깨워 일떠세우는 간석지개간자의 량만과 희열과 긍지.

열아홉-청춘의 작은 가슴에 열두삼천리벌을 안고 조국의 대지우에 1,500만톤의 알곡산을 받들어 올리고있는 청년분조원의 끝없는 기쁨을 노래한 이 시들을 읽어보는다면 저도모르게 자신을 간석지건설장과 열두삼천리 한복판에 세워보게 됩니다.

아, 이 땅에 태어난 청춘들  
가슴에 품고있는 푸른 꿈을  
태어나는 조국의 새땅으로 펼치며  
우리 옮겨가는 발자욱  
우리 쌓아가는 아득한 뚝이

사람들의 행복속에  
영원한 노래로 새겨지리라!  
(시 《청춘의 꿈을 안고》)

이 시는 나에게 청춘의 꿈도 찬란한 미래도 어느  
곳에서 무엇을 위해 어떻게 바쳐나가야 하는가를  
소리높이 말해주었으며 시 《청춘의 빛나는 모습으  
로》에서는 이 청춘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빛내어나  
가야 하는가를 열두삼천리벌을 안고사는 한 청년분  
조원의 소박하고 진실한 형상을 통하여 가르쳐주었  
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삼복더위 두렁길을 걸으실 때  
푸른 파도 철썩이는 백사장에 덩굴며 자랐고 수령  
님께서 눈바람에 옷자락을 날리시며 농장을 찾으실  
때 따사로운 해빛넘치는 교실에서 배우며 자란 청  
년분조원들이기에

수령님 걸으시는 길옆의 이슬을  
우리 앞서 털어 못드린다면  
수령님 어깨우에 내리는 흰눈을  
우리 먼저 막아서지 못한다면  
청년분조원, 그 이름 누가 부르랴

이렇게 노래한 《청춘의 빛나는 모습으로》에서는  
땅에 바친 땀의 무게도 남모르는 위훈의 높이도,  
마음속의 불붙는 아름다움도 높이 받아들여올린  
1,500만톤의 알곡고지-청춘의 빛나는 모습으로 자  
독자편지

랑하자는 우리 시대 청년분조원들의 가슴속에 불타  
는 충성의 열정을 그대로 일반화함으로써 서로 초  
소는 같지 않아도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  
앙을 받들어나가는 바로 여기에 청춘의 꿈과 랑만  
과 젊음이 있다는것을 숨김없이 그대로 노래하였습  
니다.

저는 열두삼천리벌을 안고 선 청년분조원도, 발  
파소리 지심을 울리는 채굴전선의 탄부도 아닌 이  
름없는 공장의 보통 선반공에 지나지 않지만 이 시  
들을 읽으면서 자신의 청춘, 자신의 젊음을 가슴뜨  
겁게 느꼈습니다.

조선문학 3호에 실린 이 시들을 보면서 저의 심  
정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한다면 당 제6차대회결정  
관철을 위한 제일 어렵고 힘든 초소으로 청년들을  
부른 이 시들이 좀 더 구체적인 생활을 파고들어가  
청춘의 꿈과 미래를 꽃피워나가는 간석지개간자의  
끝없는 랑만과 희열을 폭넓게 서정화하고 열두삼천  
리벌에 뿌리내려 청춘의 빛나는 모습으로 1,500만  
톤알곡고지를 받들어올리는 청년분조원의 기쁨을  
구체적인 계기에서 생활감정을 파고들어 노래했다  
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들의 심장에 위훈과 열정의 나래를  
주는 더 좋은 시들을 많이 실어주기를 바랍니다.

김치정동무가 사업하는 공장 노동자  
류동호

## 우리 시대 인간의 새로운 노래

산 인간의 숨결이 느껴지는 소설은 독자들의 심  
장을 틀어잡는 견인력을 가지며 투쟁으로 이끄는  
성실한 길동무로 됩니다.

《조선문학》1981년 2월호에 실린 단편소설 《그  
를 알기까지》(김봉철 작)가 그러한 소설이라고 생  
각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  
하시었습니다.

**《우수한 예술작품으로서 인민의 사랑을 받지 않  
는것이 없으며 또한 인민의 이해와 평가를 받지 못  
한다면 우수한 예술작품이 될수 없는것입니다.》**

작품은 처음부터 저의 마음을 짙 틀어잡아서 첫  
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단숨에 읽어버렸습니다. 특히  
소설의 주인공들의 숭고한 정신세계는 저에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인상을 남기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  
장을 번지고났을 때 나는 주인공들인 은석이와 혜  
심이의 생동한 형상이 눈앞에 선명히 떠올라서 몇  
번이고 다시 소설을 뒤적이며 그들과 함께 다정한  
이야기라도 나누고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참말이지 은석은 우리 시대가 낳은 주체형의 산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지향, 그의

심정은 그대로 숨은 영웅들을 따라배워 새로운 인  
간들이 태어나는 우리 시대의 전형적인 사상감정이  
였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아름답고 진실한 생활의  
노래라고 할수 있습니다. 소설의 주인공 은석이가  
지니고있는 정신세계는 과연 얼마나 순결하고 아름  
다운것입니까? 소설에서 보여준바와 같이 주인공  
은석은 명예나 공명을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조국과 인민을 위해 자기의 한몸을 아끼지 않았습  
니다. 은석은 응당 공명과 명예가 담보되어있는  
《교》토를 1년전에 찾아놓고도 세상에 공포하지 않  
았습니다. 그 《교》토로 말하면 사람들의 건강을 위  
한 귀중한 약제로 쓰이는것만큼 그것이 설사 학술  
적으로는 효과가 담보된다고 하여도 실제로 사람에  
게 주는 결과를 자신이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건강에 심한 후파를 미칠지도 몰랐  
지만 흙을 약으로 쓰게 될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의 체내에 먼저 실험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리하여 그는 1년이나 의사의 눈을 속여가며 하루에  
50그램이상을 먹고서 정상적인 위검열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자기의 병력서에 이상이 없음을 인정받  
고서야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였습니다. 이것은 결

코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닐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진정으로 당과 조국을 위하여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거기에서 참다운 삶의 의의를 찾을 줄 아는 인간만이 할수 있는 고결한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소설에서 한 작곡가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 여기 와서 옛날의 가장 슬프고 처참한 인간의 노래를 채보했습니다. 전 그것을 두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사동지, 난 오늘날 진실하고 참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새로운 노래를 들었습니다. 최고의 인격을 가진 우리 시대의 인간들, 숨은 영웅들의 노래지요. 그건 채보할수 없는것입니다. 작곡해야지요.》

그렇습니다. 지난날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 밑에서 우리 인민이 부르던 가장 슬프고 처참한 노래가 울리던 이 땅에 우리 시대 그의 아들딸들이 부르는 참되고 순결한 인간의 노래는 얼마나 장중하고 고상한것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품속에서 자라나 가장 고상한 인격을 지닌 우리 시대 인간들만이 창조할수 있는 값 높은 생활의 노래입니다. 정말이지 작품의 주인공은석기사는 한마디로 나의 넋을 틀어잡는 매혹적인 형상이었습니다. 소설에서는 그 형상이 비교적 다각적으로 묘사되고있습니다. 한때 푸른 바다를 헤치는 해병이었던 그가 오늘은 중중첩첩 산발을 뚫는 척후병으로서, 지질탐사 중대장으로 일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소설에는 그의 사상적지향과 함께 개성적인 기질들이 생동하게 그려지고있습니다. 보잘것 없는 자기 중대의 천막을 두고 《돛배》라고 부르며 그 《돛배》가 지하의 보물밭을 헤치며 나가는 굉장한 《쇄빙선》쯤은 된다고 생각하는 주인공의 모습은 참말로 진취적이고 락천적입니다.

다음으로 작품에 그려진 녀주인공 혜심이도 은석이와 더불어 우리 시대 인간의 노래를 함께 창조하는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처녀입니다. 은석의 아픔의 호소를 듣고 함께 걱정하며 위로하는 장면이며 정작 여러차례 진찰해보니 은석이가 《폐병》을 앓고있다고 생각되었을 때 격분을 못이겨 속물이라고

그를 저주하는 모습은 보건전사답게 인정이 풍부하면서도 그릇된것을 보고는 용서치 않는 그의 성격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작가는 매우 섬세하고 감칠맛있는 필치로 혜심의 정신적아름다움을 한갈피 한갈피 펼쳐보이었습니다. 소설의 마감에 이르러 혜심은 은석의 고결한 심정을 알게 되어 후더운 감동에 사로잡히며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혜심이가 은석이와 같은 사상적지향을 가졌기때문이었습니다.

소설은 구성에서도 간결하고 재치있게 이야기를 꾸며나갔습니다. 은석에 대한 혜심의 오해가 충분한 생활적타당성을 가지고 이야기가 펼쳐지다가 절정에 이르러 사건을 굴절시킨것은 이 소설의 생활적소재로 보아 아주 적절한 구성수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만일 혜심의 시점에서 오해선을 기본으로 하여 이야기를 꾸려나가지 않고 터놓고 생활을 펼쳐다면 소설로 갖추새를 이루기도 어려웠지만 지금처럼 도저히 예술적감흥을 줄수 없었을것입니다. 그리고 소설의 문체에서도 짙은 정서적색갈로 채색된 간결하고도 분석적인 묘사를 준것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을 읽으며 좀 아쉽게 생각한것은 은석의 내면세계가 소설의 처음부터 깊이있게 그려지지 못한 그것입니다. 물론 구성형식으로 보아 그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할수 있겠지만 소설의 마감에 가서야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과 같이 혜심의 오해선을 따라 이야기를 펼치면서도 작가가 좀 더 진지한 탐구를 하였더라면 능히 이러한 부족점도 극복할수 있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나친 욕심일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단편소설 《그를 알기까지》는 매우 흥미있고 감명깊은 작품이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참말로 문학적이야기가 있고 작가의 개성이 느껴지는 이런 단편소설들을 더 많이 실어주으면 좋겠습니다.

**김일성종합대학 학생 장유선**